2011

노인일자리 통계동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발 간 사

우리사회에서 고령화 사회현상은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마주친 위기이자 기회를 의미합니다. 노동시장에서 노인인력의 주변화, 노동 생산성 약화, 노인빈곤, 질병 및 노화 등의 고령화 사회의 현상으로 나타난 사회적 위험은 불안정으로 작용하는 문제들입니다. 반면에 활동적 노화와 이에 따른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의 중요성 증가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새로운 시대적 요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을 둘러싼 생활환경과 경제활동 전반의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객관적 지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원에서는 이러한 증가된 요구에 따라 2009년에 「2009 노인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통계」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010년부터는 「노인일자리 통계동향」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노인일자리사업의 사업현황과 노인의 주요 욕구 실태, 객관성이 높은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에 관한 기존의 각종 통계 정보들을 수록하였습니다. 기존 통계자료집들이 단순하게 통계표를 나열하는 것에 그치는 반면 본 보고서는 간략한 해설을 덧붙여 독자들의 가독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011 노인일자리 통계동향」보고서가 정책 결정자, 연구자, 민간 실천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되기를 바라며, 다양한 연구를 통해 양질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2년 4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김 득 주

목 차

I. 보고서 개요 ····· 1

1. 노인일자리 통계의 필요성 ····· 3

2. 보고서의 목적 ····· 4

3. 보고서의 구성 ····· 5

1) 구성 내용 ····· 5

2) 구성 원칙 ····· 6

4. 보고서의 체계 ····· 7

1) 노인일자리사업 통계 ····· 7

2) 정책효과평가 결과 ····· 9

3) 노인의 경제활동 관련통계 ····· 11

4) 참고 통계 ····· 13

II. 노인일자리사업 통계 ····· 15

1. 노인일자리사업 주요통계 그래프 ····· 17

2. 노인일자리사업 주요조사 결과 ····· 24

1) 2011년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실적 ····· 24

2) 사업유형별 실적 ····· 33

3. 노인일자리사업 운영현황 ····· 46

1) 사업운영현황 ····· 46

2) 재정투입현황 ····· 60

3) 공공분야 일자리 탄력적용사업 현황 ····· 65

4) 사고발생 현황 ····· 67

4. 참여노인 ····· 70

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분포 ····· 70

2) 노인일자리사업 중도 포기자 분포 ····· 80

III. 정책효과평가결과 ····· 83
1. 정책효과평가 참여노인 특성 ····· 85
2.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만족도 ····· 100

IV. 노인의 경제활동 관련통계 ····· 107
1. “그림으로 보는” 노인의 경제활동 관련통계 ····· 109
2. 경제상태 ····· 111
1) 빈곤수준 ····· 111
2) 기초생활보장 수급현황 ····· 112
3) 기초노령연금 수급현황 ····· 113
4) 국민연금 수급현황 ····· 114
3. 경제활동 ····· 115
1) 경제활동 현황 및 추이 ····· 116
2) 경제활동 추이 ····· 118
3) 직업특성 ····· 119
4) 현재 종사직업 특성 ····· 121
5) 주된 일자리 특성 ····· 127
6) 구직 특성 ····· 131
7) 취업 욕구 ····· 134
8) 희망 직업 특성 ····· 136
4. 경제활동 환경 ····· 139
1) 기준고용률 ····· 140
2)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 145

V. 참고 통계 ····· 149
1. “그림으로 보는” 노인일자리 참고 지표 ····· 151
2. 주요 고령화 지표 ····· 154
1) 노인인구 현황 및 추이 ····· 154
2) 노인인구추이 ····· 159
3)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 162

4) 기대수명 ····· 163
5) 생산가능인구 ····· 165
6) 중위연령 ····· 166
7) 출산율 ····· 167
8) 사망원인 ····· 168
3. 노인인구특성 ····· 169
1) 가구형태 ····· 169
2) 교육수준 ····· 170
3) 건강상태 ····· 171
4) 생활시간 특성 ····· 173
4. 베이비붐 세대 현황 ····· 174
5. 고령화 관련 국제지표 ····· 179

부록 ····· 185
1. 수록 주요 통계 소개 ····· 187
2. 시군구별 노인인구 비율(2011.12.31 기준) ····· 192
3. 2012 노인일자리 정책 주요 특징 ····· 197

표 목 차

<표 2-2-1> 2011년 노인일자리 창출목표 및 실적추이(사업유형별, 연도별) ····· 24
<표 2-2-2> 2011년 노인일자리 창출목표 및 실적(사업유형별) ····· 25
<표 2-2-3> 2011년 노인일자리 창출실적(시 · 도별) ····· 26
<표 2-2-4> 2011년 시 · 도별 노인일자리사업 창출실적(사업유형별, 시 · 도별) ····· 28
<표 2-2-5> 2011년 노인일자리 사업창출실적(기관유형별) ····· 30
<표 2-2-6>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실적(기관유형별, 사업유형별) ····· 31
<표 2-2-7> 2011년 공익형 세부유형별 노인일자리 창출 실적 ····· 33
<표 2-2-8> 2011년 교육형 세부유형별 노인일자리 창출 실적 ····· 35
<표 2-2-9> 2011년 복지형 세부유형별 노인일자리 창출실적 ····· 36
<표 2-2-10> 2011년 시장형 세부유형별 노인일자리 창출 실적 ····· 37
<표 2-2-11> 2011년 시장형 세부유형별 참여기간 및 보수수준 ····· 38
<표 2-2-12> 2011년 시장형 시·도별 참여기간 및 보수수준 ····· 39
<표 2-2-13> 2011년 시장형 기관유형별 참여기간 및 보수수준 ····· 40
<표 2-2-14> 2011년 인력파견형 세부유형별 노인일자리 창출 실적 ····· 41
<표 2-2-15> 2011년 인력파견형 세부유형별 참여기간 및 보수수준 ····· 42
<표 2-2-16> 2011년 인력파견형 시·도별 참여기간 및 보수수준 ····· 43
<표 2-2-17> 2011년 인력파견형 기관유형별 참여기간 및 보수수준 ····· 44
<표 2-2-18> 2011년 창업모델형 세부유형별 노인일자리 창출 실적 ····· 45
<표 2-3-1>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및 사업단 수 추이(연도별) ····· 46
<표 2-3-2> 2011년 월별 사업단 운영비율(사업유형별) ····· 47
<표 2-3-3> 2011년 월별 참여노인참여비율 ····· 48
<표 2-3-4>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 시 · 도별 수행기관별 현황 ····· 49
<표 2-3-5> 2011년 기관유형별, 사업유형별 인원 ····· 51
<표 2-3-6> 사업유형별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현황 ····· 52
<표 2-3-7> 기관유형별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현황 ····· 53
<표 2-3-8> 전담인력 추이 ····· 54
<표 2-3-9> 시 · 도별 전담인력 현황 ····· 55
<표 2-3-10> 기관유형별 전담인력 현황 ····· 57
<표 2-3-11> 전담인력 인원수 ····· 58
<표 2-3-12> 전담인력 현황-교육수준별, 성별 ····· 59
<표 2-3-13>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집행 현황(사업유형별, 예산주체별) ····· 60

<표 2-3-14>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집행 현황(시 · 도별, 예산주체별) ·····61
<표 2-3-15>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집행 현황-공공분야(세부사업별, 예산주체별) ·····62
<표 2-3-16>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집행 현황-민간분야(세부사업별, 예산주체별) ·····64
<표 2-3-17> 2011년 세부유형별 탄력적용사업 운영현황 ·····65
<표 2-3-18> 2011년 시·도별 탄력적용사업 운영현황 ·····66
<표 2-3-19> 2011년 사고유형 및 산재보험 수혜 현황(누적) ·····67
<표 2-3-20> 연도별, 월별 사고발생빈도 ·····68
<표 2-4-1> 2011년 사업유형별·성별 참여자 현황(누적) ·····70
<표 2-4-2> 2011년 세부사업별 참여자 성별현황(누적) ·····71
<표 2-4-3>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연령별추이 ·····74
<표 2-4-4> 사업유형별 연령별 현황 ·····75
<표 2-4-5> 2011년 사업유형별·성별·연령별 참여자 현황(누적) ·····76
<표 2-4-6> 참여자 학력별 추이('08~'11년) ·····77
<표 2-4-7> 2011년 사업유형별 · 성별 · 학력별 참여자 현황(누적) ·····78
<표 2-4-8> 2011년 참여동기별 참여자 현황(누적) ·····79
<표 2-4-9> 2011년 사업유형별 중도포기 사유 현황 ·····80
<표 2-4-10> 2011년 시 · 도별 중도포기 사유 현황 ·····81
<표 3-1-1> 사업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85
<표 3-1-2> 노인일자리사업 인지경로 ·····86
<표 3-1-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이유 ·····88
<표 3-1-4> 노인일자리사업 현재 활동 선택이유 ·····90
<표 3-1-5>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활동별 선택이유 ·····91
<표 3-1-6> 기간에 따른 숙련도, 지식 축적 활동 정도 ·····92
<표 3-1-7> 노인일자리사업 변경이나 중단 희망 이유 ·····93
<표 3-1-8> 유형별 경제상태 ·····95
<표 3-1-9> 사업유형별 현시점에서의 심리적 특성의 차이 ·····96
<표 3-1-10> 참여노인의 건강상태 ·····97
<표 3-1-11> 사업유형별 참여노인의 건강상태 ·····99
<표 3-2-1> 사업유형별 만족도 ·····100
<표 3-2-2> 수행기관별 만족도 ·····101
<표 3-2-3> 거주지역별 만족도 ·····103
<표 3-2-4> 유형별 희망 월급여 ·····104
<표 3-2-5> 노인일자리 사업 차년도 참여 희망여부 ·····105
<표 4-2-1>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추이(연도별) ·····111
<표 4-2-2> 기초생활보장 수급현황 추이(연도별) ·····112

<표 4-2-3>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 및 지급실적(시 · 도별, 2010년 기준) ·····113
<표 4-2-4>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및 지급액(급여종류별, 성별, 2010년 기준) ·····114
<표 4-3-1> 2011년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 현황(성별) ·····115
<표 4-3-2> 2011년 노인 고용률 현황(성별) ·····116
<표 4-3-3> 2011년 노인 실업률 현황(성별) ·····117
<표 4-3-4>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성별, 연도별) ·····118
<표 4-3-5> 현재 취업상태 및 과거 취업경험(성별, 연령별) ·····119
<표 4-3-6> 지난 1년간 취업경험(성별, 연령별) ·····120
<표 4-3-7> 현재 종사산업(연령별) ·····121
<표 4-3-8> 현재 종사직종(연령별) ·····122
<표 4-3-9> 비임금근로자 현황 ·····123
<표 4-3-10> 비정규직근로자 현황 ·····124
<표 4-3-11>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추이(연도별) ·····125
<표 4-3-12> 노인의 월급여 및 시간당 정액급여 추이(연도별, 정규/비정규직별) ·····126
<표 4-3-13> 주된 일자리 근속기간(성별) ·····127
<표 4-3-14> 주된 일자리 이직연령(성별) ·····128
<표 4-3-15> 주된 일자리 퇴직사유(성별) ·····129
<표 4-3-16> 최근 일자리와 이직 전 주된 일자리의 관련성(성별) ·····130
<표 4-3-17> 지난 1년간 구직경험(성별, 연령별) ·····131
<표 4-3-18> 구직경로(성별) ·····132
<표 4-3-19> 미취업자 비구직 사유(연령별) ·····133
<표 4-3-20> 55~79세 향후 취업의지(성별, 연령별) ·····134
<표 4-3-21> 55~79세 향후 취업의지(취업상태별) ·····135
<표 4-3-22> 직업 선택 기준(성별) ·····136
<표 4-3-23> 희망 근로형태(성별) ·····137
<표 4-3-24> 희망 급여(성별) ·····138
<표 4-4-1> 55세 이상 고용현황(규모별, 업종별, 2010년 기준) ·····139
<표 4-4-2>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현황(업종별, 2010년 기준) ·····140
<표 4-4-3> 정년제 운용현황(2010년 기준) ·····142
<표 4-4-4> 단일정년제 채택사업장의 평균정년(규모별, 업종별, 2010년 기준) ·····143
<표 4-4-5>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지급실적 추이(연도별) ·····145
<표 4-4-6> 노인 취업알선 인프라별 실적 추이(시 · 도별, 연도별, 2010년 기준) ·····146
<표 4-4-7> 고령자 고용인프라 취업알선 실적 추이(연도별) ·····147
<표 5-2-1> 노인 인구 현황(성별, 연령별) ·····154
<표 5-2-2> 노인 인구 현황(시 · 도별) ·····155

<표 5-2-3> 2011년 기초지자체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시 · 도별) ·····156
<표 5-2-4> 기초지자체의 65세 이상 인구 추이(순위별, 연도별) ·····158
<표 5-2-5> 65세 이상 인구 추이(연도별, 연령별) ·····159
<표 5-2-6> 65세 이상 인구 추이(시 · 도별, 연도별) ·····160
<표 5-2-7> 65세 이상 노인 가구 추이(연도별) ·····161
<표 5-2-8>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추이(연도별) ·····162
<표 5-2-9> 기대수명 추이(성별, 연도별) ·····163
<표 5-2-10> 5세별 기대수명 현황 비교(성별, 연령별, 2009년 기준) ·····164
<표 5-2-11> 생산가능인구 추이(연도별, 연령별) ·····165
<표 5-2-12> 중위연령 추이(성별, 연도별) ·····166
<표 5-2-13> 합계출산율 및 총출생아수 추이(모 연령별, 연도별) ·····167
<표 5-2-14> 사망원인(순위별, 2010년 기준) ·····168
<표 5-3-1> 가구형태 추이(연도별) ·····169
<표 5-3-2> 교육수준 추이(연도별) ·····170
<표 5-3-3> 주관적 건강상태 추이(연도별) ·····171
<표 5-3-4> 65세 이상 노인의료비 지출 추이(연도별) ·····172
<표 5-3-5> 1일 시간활용 현황(성별, 행동별, 2009년 기준) ·····173
<표 5-4-1> 베이비붐 세대 인구 현황(연령별) ·····174
<표 5-4-2> 베이비붐세대 경제활동현황 추이(연도별) ·····175
<표 5-4-3> 베이비붐세대 취업자수 현황(성별, 종사상지위별, 2009년 기준) ·····176
<표 5-4-4> 베이비붐세대 취업자수 현황(산업별, 성별, 2009년 기준) ·····177
<표 5-4-5> 베이비붐세대 취업자수 현황(성별, 직종별) ·····178
<표 5-5-1> 주요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국가별) ·····179
<표 5-5-2> 주요국의 인구 구조 및 노인인구 비율 추이(국가별, 연도별) ·····180
<표 5-5-3> 2009년 UN 주요국 60세 이상 노인 관련 지표 ·····181
<표 5-5-4> OECD의 65세 이상 노인 고용 지표(2009년) ·····183

그림목차

<그림 2-1-1>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및 사업단 수 추이(연도별) ·····17
<그림 2-1-2>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 창출목표 및 실적추이(연도별) ·····18
<그림 2-1-3> 노인일자리사업 재정투입 추이(연도별) ·····18
<그림 2-1-4> 2011년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 실적(사업유형별) ·····19
<그림 2-1-5> 2011년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 실적(수행기관 유형별) ·····19
<그림 2-1-6> 공익형 중유형별 일자리 사업량 ·····20
<그림 2-1-7> 교육형 소유형별 일자리 사업량 ·····20
<그림 2-1-8> 복지형 중유형별 일자리 사업량 ·····21
<그림 2-1-9> 시장형 소유형별 일자리 사업량 ·····21
<그림 2-1-10> 인력파견형 소유형별 일자리 사업량 ·····22
<그림 2-1-11> 2011년 사업유형별 · 성별 참여자 현황 (누적) ·····22
<그림 2-1-12> 2011년 사업유형별 연령별 분포 ·····23
<그림 2-1-13> 2011년 학력별 참여자 분포(누적) ·····23
<그림 4-1-1> 60세 이상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성별, 연도별) ·····109
<그림 4-1-2> 55~79세 노인의 향후 취업의사 ·····110
<그림 4-1-3> 55~79세 노인의 희망급여 ·····110
<그림 5-1-1> 2010년 노인 인구 현황 (성별, 연령별) ·····151
<그림 5-1-2> 노인인구 추이(연도별) ·····152
<그림 5-1-3> 노년부양비 추이(연도별) ·····152
<그림 5-1-4> 가구형태 추이(연도별) ·····153
<그림 5-1-5> 60세 이상 노인의 교육수준(연도별, 2008년 기준) ·····153

I. 보고서 개요

I. 보고서 개요

1. 노인일자리 통계의 필요성

2011년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700,972명으로 총인구의 11.2%를 차지한다(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8,020,279명이며, 총인구의 15.8%를 차지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고령사회 도달은 2018년, 초고령사회 도달은 2026년으로 예상되는 등 타 국가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이렇게 급속한 고령화 경향 가운데 노인인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2011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년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7.1%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빈곤율인 13.8%의 3.4배로 빈곤이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대적 빈곤율은 가구 소득이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최상위 소득자부터 한 줄로 세워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 즉 중위소득의 50%에 못 미치는 가구 비율을 말한다. 소득계층을 3구분할 때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다. 중위소득의 150% 이상이면 고소득층, 중위소득의 50% 이상~150% 미만은 중산층,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으로 구분한다.

2006~2010년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3.8%→44.6%→44.8%→46.4%→47.1%'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빈곤율 추이는 '13.4%→14.1%→14.1%→14.1%→13.8%'다. 전체인구의 빈곤율은 같은 기간 횡보 내지 감소세를 보였지만 노인빈곤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2010년부터 전체 인구의 14.6%에 이르는 712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그 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은퇴가 본격화된다면 사회적으로는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가, 은퇴자에게는 은퇴 후 삶의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0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5'를 수립하고 고령자 삶의 질 향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인의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일자리사업의 내실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등의 정책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경제전반의 활력 저하와 성장 잠재력 약화에 대한 우려로 고령사회의 주요 성장동력으로서 고령인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노인의 일하고자 하는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노인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광역 및 기초지자체,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의 민간기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와 관련된 통계 및 조사 데이터 구축의 필요성도 함께 증가하였다.

본 보고서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 및 보고통계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일자리사업에 관심이 있는 정책 결정자, 연구자, 민간 실천가 등 각 이해관계자들이 욕구에 맞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노인의 경제활동에 관련된 다양한 조사, 보고통계 지표들을 함께 수록함으로써 흩어져 있는 노인 관련 지표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지난 2009년 처음으로 발간된 이후 세 번째로 발간되는 보고서로서 2011년 한 해 동안 생성된 조사 및 보고통계에 초점을 맞추어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최신 통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2. 보고서의 목적

본 보고서는 다음의 두 가지 작성목표를 지니고 있다.

첫 번째로,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된 2011년 사업 현황 및 2011년 실시된 주요 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노인일자리사업의 2011년 연간통계 및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조사결과를 보다 가시적이고 즉시 활용 가능한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노인인구의 특성, 노인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2011년 한 해동안 생산된 다양한 조사 및 통계 데이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노인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관련 조사 및 통계 데이터는 산발적인 조사에 의해 이루어져 그 결과의 취합이 어렵거나 다른 분야와 함께 조사, 발표되어 즉시 활용하는 데 있어 한계가 존재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관련 자료에 대한 욕구를 가진 누구나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3. 보고서의 구성

1) 구성 내용

본 보고서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첫째로, II장의 '노인일자리사업 통계' 부분에서는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하여 창출한 일자리 현황 및 사업운영 현황, 참여노인 현황 등을 포함하였다.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현황에서는 사업단 및 수행기관 특성, 인력, 재정 등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둘째로, III장은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 정책효과 평가'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 신규참여자 700명과 대기자3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사업의 경제적 효과, 건강증진효과, 심리사회적 효과, 사회네크워크 효과를 분석하였다. III장에서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일자리사업 유형별 참여특성, 경제적 특성, 건강 및 심리적 특성, 및 만족도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셋째로, IV장의 '노인의 경제활동 관련통계' 부분에서는 노인의 경제활동에 관련한 통계자료를 경제상태, 경제활동 상황, 경제활동환경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현황 및 취업경험, 근로형태별 분석, 향후 취업의지 등 노인을 둘러싼 경제활동 전반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V장의 '참고지표' 부분에서는 고령화와 관련된 각종 지표, 노인인구의 현황, 특성 및 욕구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고령화 지표, 노인인구의 특성, 베이비붐세대 특성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고령화 및 노인에 대한 지표들 중 국제적 비교가 가능한 자료들을 일부 제시하였다.

한편, Ⅱ, Ⅳ, Ⅴ장의 도입부에서는 주요 통계지표들을 그림으로 도식화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보고서의 부록에서는 본문에 소개된 통계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2011년 각 시군구별 노인인구비율 및 2011년 노인일자리 정책의 주요 특징 등을 수록하였다.

2) 구성 원칙

1. 노인일자리사업 외 통계표는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통계로 한정하며, 정기적 생산 통계 위주로 제시하였다.

2. 노인일자리사업 외 통계표는 각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계표를 가급적 원안대로 게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원데이터를 분석할 경우 다양한 조사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통계공표의 공식기준을 최대한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령기준을 60세 또는 65세 이상으로 한정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계표 외에 일부 연령기준을 추가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통계발표의 공식기준을 따르기 위하여 연령기준만을 조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3. 노인일자리사업 외 통계표는 각 통계별로 노인을 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때때로 55세 이상)으로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60세 이상 및 65세 이상에 대한 자료가 모두 수록된 경우에는 모두 소개하였고, 일부 정보만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따랐다.

4. 노인일자리사업 통계표는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현황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내 데이터베이스 자료 및 보고자료, 그리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노인일자리 관련 대표성 있는 전국조사 자료만을 포함하였다.

4. 보고서의 체계

1) 노인일자리사업 통계

(1) 노인일자리 주요조사 결과

영역	지표	집계항목	출처	표번호
총괄 현황	노인일자리 창출목표 및 실적	사업유형별, 연도별	정보시스템 DB	〈표 2-2-1〉
		사업유형별		〈표 2-2-2〉
		시 · 도별		〈표 2-2-3〉
		사업유형별, 시 · 도별		〈표 2-2-4〉
		기관유형별		〈표 2-2-5〉
		기관유형별, 사업유형별		〈표 2-2-6〉
사업유형별 현황	세부유형별 현황	공익형		〈표 2-2-7〉
		교육형		〈표 2-2-8〉
		복지형		〈표 2-2-9〉
		시장형		〈표 2-2-10〉
	시장형사업 참여기간 및 보수수준	세부유형별		〈표 2-2-11〉
		시 · 도별		〈표 2-2-12〉
		기관유형별		〈표 2-2-13〉
	세부유형별 현황	인력파견형		〈표 2-2-14〉
	인력파견형사업 참여기간 및 보수수준	세부유형별		〈표 2-2-15〉
		시 · 도별		〈표 2-2-16〉
		기관유형별		〈표 2-2-17〉
	세부유형별 현황	창업모델형		〈표 2-2-18〉

(2)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현황

영역	지표	집계항목	출처	표번호
사업 운영 현황	사업운영추이	연도별	정보시스템 DB	〈표 2-3-1〉
		사업유형별, 월별		〈표 2-3-2〉
		사업유형별, 월별		〈표 2-3-3〉
수행기관 및 종사인력 (전담인력) 현황	수행기관 현황	기관유형별, 시 · 도별		〈표 2-3-4〉
		기관유형별, 사업유형별		〈표 2-3-5〉
	신규 · 계속사업현황	사업유형별		〈표 2-3-6〉
		기관유형별		〈표 2-3-7〉
	전담인력 현황	연도별	운영실태조사	〈표 2-3-8〉
		시 · 도별		〈표 2-3-9〉
		기관유형별		〈표 2-3-10〉
		인원수		〈표 2-3-11〉
		교육수준별, 성별		〈표 2-3-12〉
재정투입 현황	예산집행 현황	사업유형별, 예산주체별	정보시스템 DB	〈표 2-3-13〉
		시 · 도별, 예산주체별		〈표 2-3-14〉
		세부유형별, 예산주체별 (공공분야)		〈표 2-3-15〉
		세부유형별, 예산주체별 (민간분야)		〈표 2-3-16〉
탄력적용 사업 현황	탄력적용사업운영현황	세부유형별		〈표 2-3-17〉
		시 · 도별, 세부유형별		〈표 2-3-18〉
사고발생 현황	사고유형 및 산재보험 수혜현황	세부유형별		〈표 2-3-19〉
	사고발생빈도	연도별, 월별		〈표 2-3-20〉

(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현황

영역	지표	집계항목	출처	표번호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노인 현황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분포	사업유형별, 성별	정보시스템 DB	〈표 2-4-1〉
		세부사업별, 성별		〈표 2-4-2〉
		연도별, 연령별		〈표 2-4-3〉
		사업유형별, 연령별		〈표 2-4-4〉
		사업유형별, 성별, 연령별		〈표 2-4-5〉
		연도별, 학력별		〈표 2-4-6〉
		사업유형별, 성별, 학력별		〈표 2-4-7〉
		사업유형별, 참여동기별		〈표 2-4-8〉
	노인일자리사업 중도포기자 분포	사업유형별, 중도포기사유별		〈표 2-4-9〉
		시 · 도별, 중도포기사유별		〈표 2-4-10〉

2) 정책효과평가 결과

(1) 정책효과평가 참여노인 특성

영역	지표	집계항목	출처	표번호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노인 특성	참여자특성	교육수준별, 사업유형별, 성별, 연령별	정책효과평가	〈표 3-1-1〉
	노인일자리사업 인지경로	가구형태별, 거주지역별, 교육수준별, 사업유형별, 성별, 연령별		〈표 3-1-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이유	가구형태별, 거주지역별, 교육수준별, 사업유형별, 성별, 연령별		〈표 3-1-3〉

영역	지표	집계항목	출처	표번호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노인 특성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동선택이유	-	정책효과 평가	〈표 3-1-4〉
		수행활동별		〈표 3-1-5〉
	기간에 따른 숙련 정도	-		〈표 3-1-6〉
	노인일자리사업 변경, 중단희망이유	가구형태별, 거주지역별, 교육수준별, 사업유형별, 성별, 연령별		〈표 3-1-7〉
	참여노인 경제상태	가구형태별, 거주지역별, 교육수준별, 사업유형별, 연령별		〈표 3-1-8〉
	참여노인의 심리상태	사업유형별		〈표 3-1-9〉
	참여노인의 건강상태	가구형태, 거주지역, 교육수준, 성별, 연령별,		〈표 3-1-10〉
		사업유형별		〈표 3-1-11〉

(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만족

영역	지표	집계항목	출처	표번호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노인 만족도	일자리사업 만족도	사업유형별	정책효과 평가	〈표 3-2-1〉
		수행기관별		〈표 3-2-2〉
		거주지역별		〈표 3-2-3〉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욕구	희망월급여	대상별, 사업유형별	참여노인 실태조사	〈표 3-2-4〉
	노인일자리사업 차년도 참여 희망여부	가구형태별, 거주지역별, 사업유형별, 연령별		〈표 3-2-5〉

3) 노인의 경제활동 관련통계

(1) 경제상태

영역	지표	집계항목	출처	표번호
빈곤수준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추이	연도별	가계조사	〈표 4-2-1〉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수급현황 추이	연도별	주민등록인구통계	〈표 4-2-2〉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 및 지급실적	시 · 도별	보건복지통계연보	〈표 4-2-3〉
국민연금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및 지급액	성별, 급여종류별	국민연금통계연보	〈표 4-2-4〉

(2) 경제활동

영역	지표	집계항목	출처	표번호
경제활동 현황	2011년 경제활동 참가율 현황	성별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4-3-1〉
	2011년 노인 고용율 현황	성별		〈표 4-3-2〉
	2011년 노인 실업율 현황	성별		〈표 4-3-3〉
경제활동 추이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성별, 연도별		〈표 4-3-4〉
직업특성	현재 취업상태 및 과거 취업경험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표 4-3-5〉
	지난 1년간 취업경험	성별, 연령별		〈표 4-3-6〉
현재종사직업 특성	현재 종사산업	연령별		〈표 4-3-7〉
	현재 종사직종	연령별		〈표 4-3-8〉
	비임금근로자 현황	-		〈표 4-3-9〉
	비정규직근로자 현황	-		〈표 4-3-10〉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추이	연도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표 4-3-11〉
	노인의 월급여 및 시간당 정액급여 추이	연도별, 정규/비정규직별		〈표 4-3-12〉

영역	지표	집계항목	출처	표번호
주된 일자리 특성	주된 일자리 근속기간	성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표 4-3-13〉
	주된 일자리 이직연령	성별		〈표 4-3-14〉
	주된 일자리 퇴직사유	성별		〈표 4-3-15〉
	최근 일자리와 이직 전 주된일자리의 관련성	성별		〈표 4-3-16〉
구직 특성	지난 1년간 구직경험	성별, 연령별		〈표 4-3-17〉
	구직경로	성별		〈표 4-3-18〉
	미취업자 비구직 사유	연령별		〈표 4-3-19〉
취업욕구	향후 취업의지	성별, 연령별		〈표 4-3-20〉
		취업상태별		〈표 4-3-21〉
희망 직업 특성	직업 선택 기준	성별		〈표 4-3-22〉
	희망 근로형태	성별		〈표 4-3-23〉
	희망 급여	성별		〈표 4-3-24〉

(3) 경제활동 환경

영역	지표	집계항목	출처	표번호
경제활동 환경	55세 이상 고용현황	규모별, 업종별	고령자고용현황	〈표 4-4-1〉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현황	업종별		〈표 4-4-2〉
	정년제 운용현황	-		〈표 4-4-3〉
	단일정년제 채택사업장의 평균정년	규모별, 업종별		〈표 4-4-4〉
	고령자 연장지원금 지급실적 추이	연도별	고용보험통계연보	〈표 4-4-5〉
	노인 취업알선 실적 추이	시 · 도별, 연도별	보건복지통계연보	〈표 4-4-6〉
	고령자 고용인프라 취업알선 실적 추이	연도별	고용노동백서	〈표 4-4-7〉

4) 참고 통계

(1) 고령화 지표

영역	지표	집계항목	출처	표번호
노인인구 현황 및 추이	노인 인구 현황	성별, 연령별	주민등록인구 통계	〈표 5-2-1〉
		시 · 도별		〈표 5-2-2〉
	기초지자체의 65세 이상 인구비율	시 · 도별		〈표 5-2-3〉
		순위별, 연도별		〈표 5-2-4〉
노인인구 추이	65세 이상 인구 추이	연도별, 연령별	장래인구추계	〈표 5-2-5〉
		시 · 도별, 연도별		〈표 5-2-6〉
	65세 이상 노인가구 추이	연도별		〈표 5-2-7〉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추이	연도별		〈표 5-2-8〉
기대수명	기대수명 추이	성별, 연도별		〈표 5-2-9〉
	5세별 기대수명 현황 비교	성별, 연령별	생명표	〈표 5-2-10〉
생산가능인구	생산가능인구 추이	연도별, 연령별	장래인구추계	〈표 5-2-11〉
중위연령	중위연령 추이	성별, 연도별		〈표 5-2-12〉
출산율	한계출산율 및 총출생아수 추이	모 연령별, 연도별		〈표 5-2-13〉
사망원인	사망원인 추이	순위별	사망원인통계	〈표 5-2-14〉

(2) 노인인구 특성

영역	지표	집계항목	출처	표번호
가구형태	가구형태 추이	연도별	노인실태조사	〈표 5-3-1〉
교육수준	교육수준 추이	연도별		〈표 5-3-2〉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추이	연도별		〈표 5-3-3〉
	65세 이상 노인의료비 지출 추이	연도별	건강보험통계연보	〈표 5-3-4〉
생활시간 특성	1일 시간활용 현황	성별, 행동별	생활시간조사	〈표 5-3-5〉

(3) 베이비붐 세대 현황

영역	지표	집계항목	출처	표번호
베이비붐 세대 현황	베이비붐 세대 인구 현황	연령별	장래인구추계	〈표 5-4-1〉
	베이비붐 세대 경제활동 현황 추이	연도별	경제활동 인구조사	〈표 5-4-2〉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 수 현황	종사상지위별, 성별		〈표 5-4-3〉
		산업별, 성별		〈표 5-4-4〉
		직종별, 성별		〈표 5-4-5〉

(4) 고령화관련 국제지표

영역	지표	집계항목	출처	표번호
고령화 지표	인구 고령화 속도	국가별	장래인구추계	〈표 5-5-1〉
	인구구조 및 노인인구 비율 추이	국가별, 연도별	World Populaton Prospects	〈표 5-5-2〉
	2009년 UN 60세 이상 노인 관련 지표	-	Population Ageing and Development	〈표 5-5-3〉
경제활동 현황	2009년 OECD 65세 이상 노인 고용 지표	-	OECD Factbook	〈표 5-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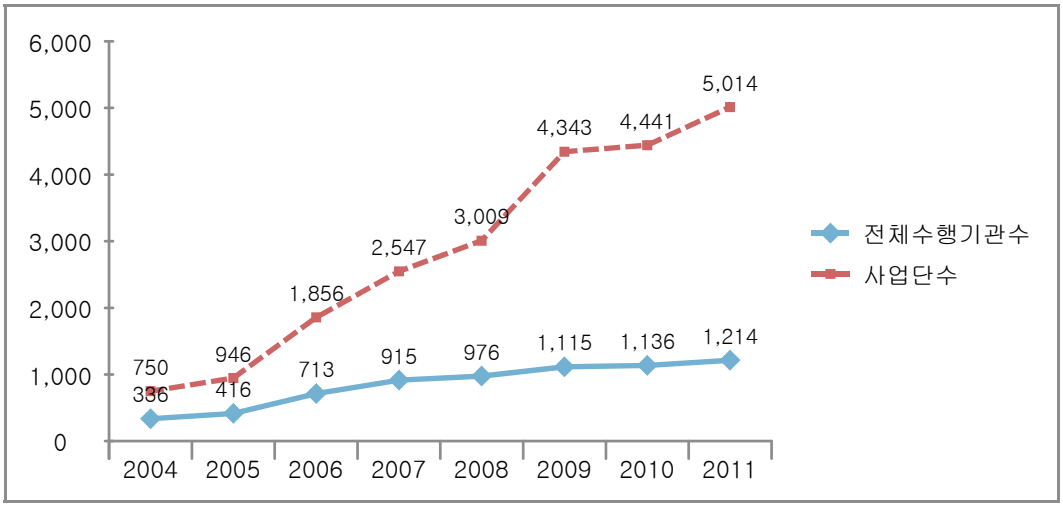
II. 노인일자리사업 통계

II. 노인일자리사업 통계

1. 노인일자리사업 주요통계 그래프

<그림 2-1-1>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및 사업단 수 추이(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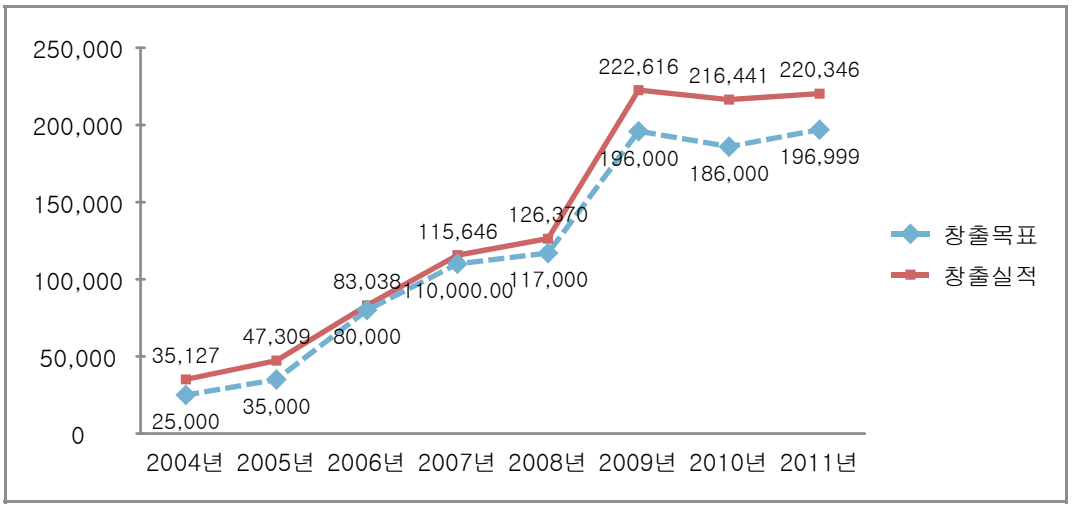
(단위 : 개)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1.

<그림 2-1-2>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 창출목표 및 실적추이(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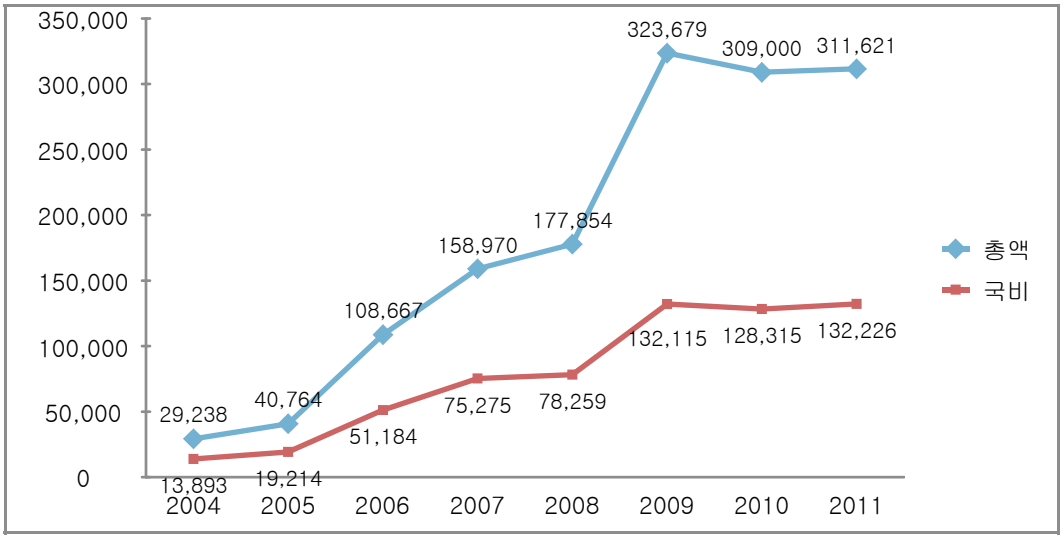
(단위 : 개)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1.

<그림 2-1-3> 노인일자리사업 재정투입 추이(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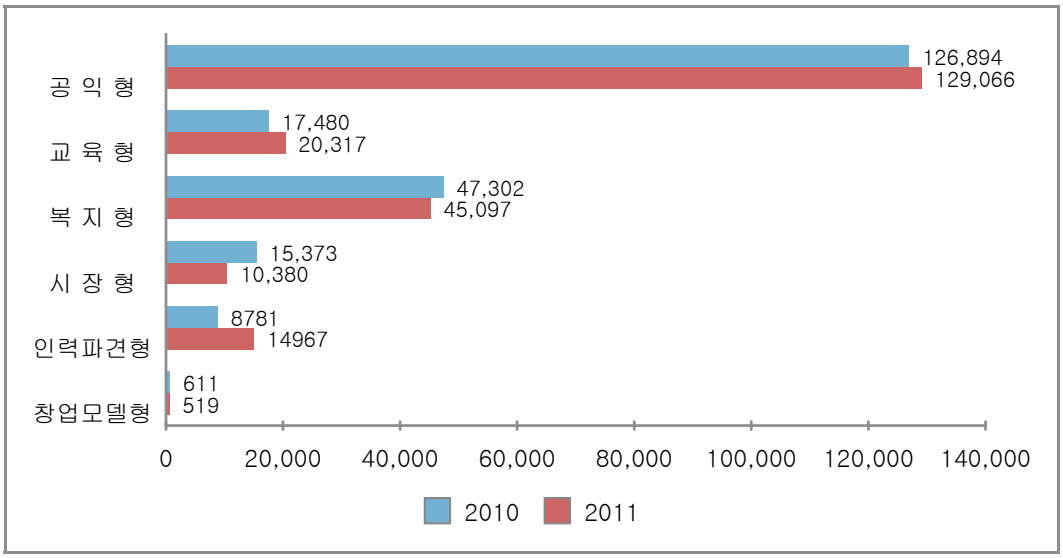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자료 : 2004~2007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제1기(2004~2007)노인일자리사업 백서」, 2008.
2008~2011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1.

<그림 2-1-4> 2011년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 실적(사업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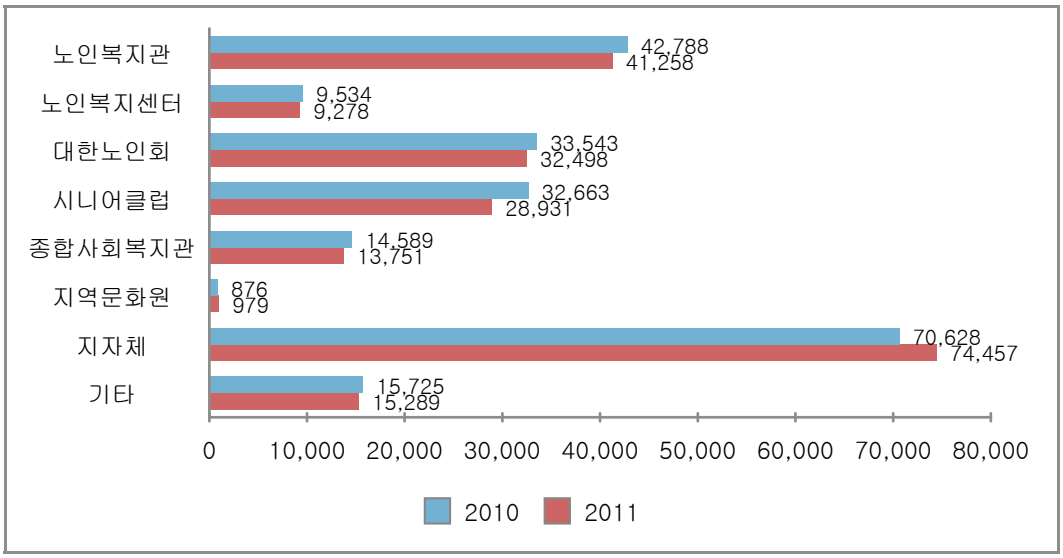
(단위 : 개)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1.

<그림 2-1-5> 2011년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 실적(수행기관 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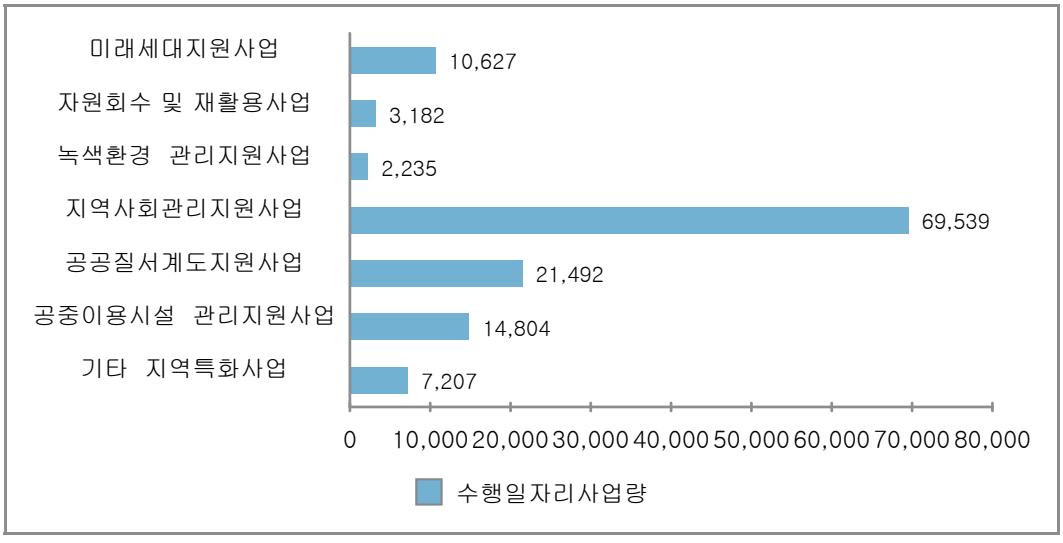
(단위 : 개)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1.

<그림 2-1-6> 공익형 중유형별 일자리 사업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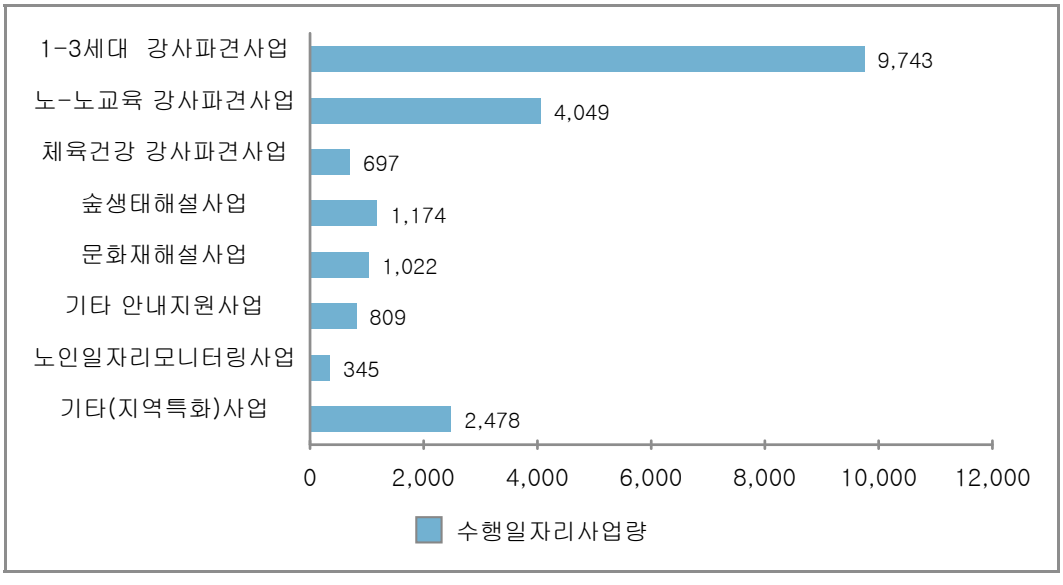
(단위 : 개)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1.

<그림 2-1-7> 교육형 소유형별 일자리 사업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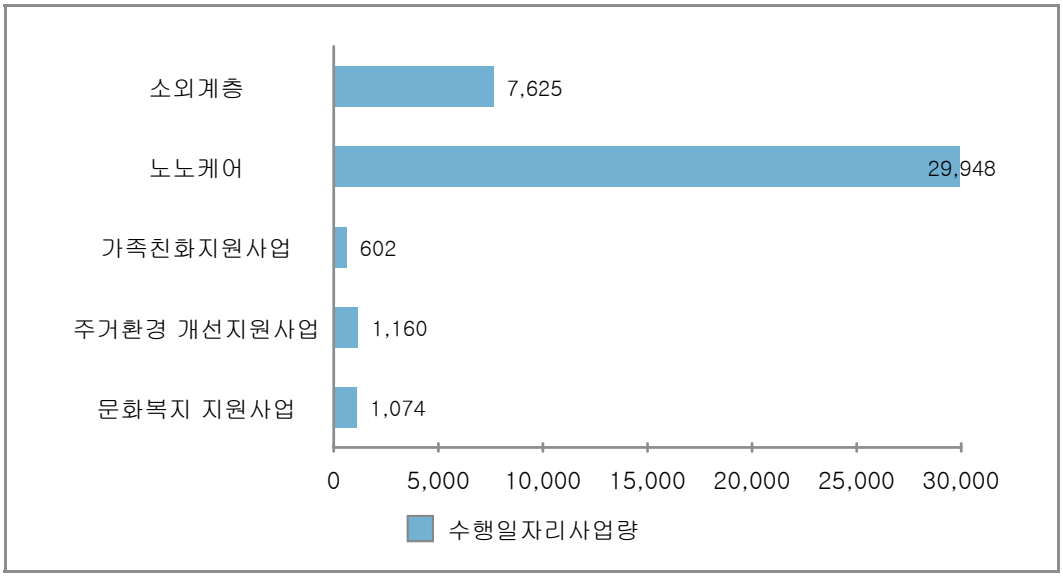
(단위 : 개)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1.

<그림 2-1-8> 복지형 중유형별 일자리 사업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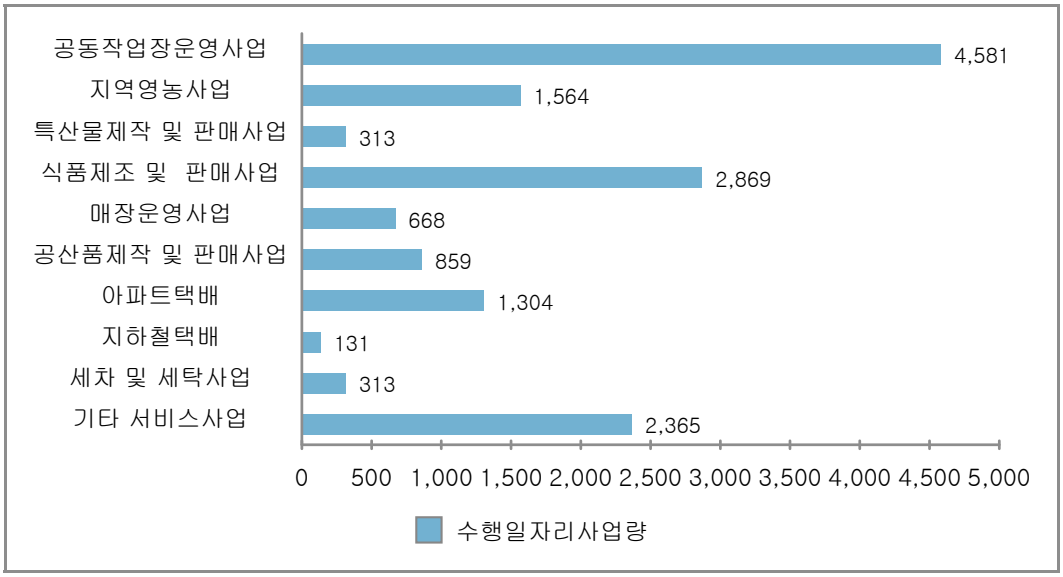
(단위 : 개)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1.

<그림 2-1-9> 시장형 소유형별 일자리 사업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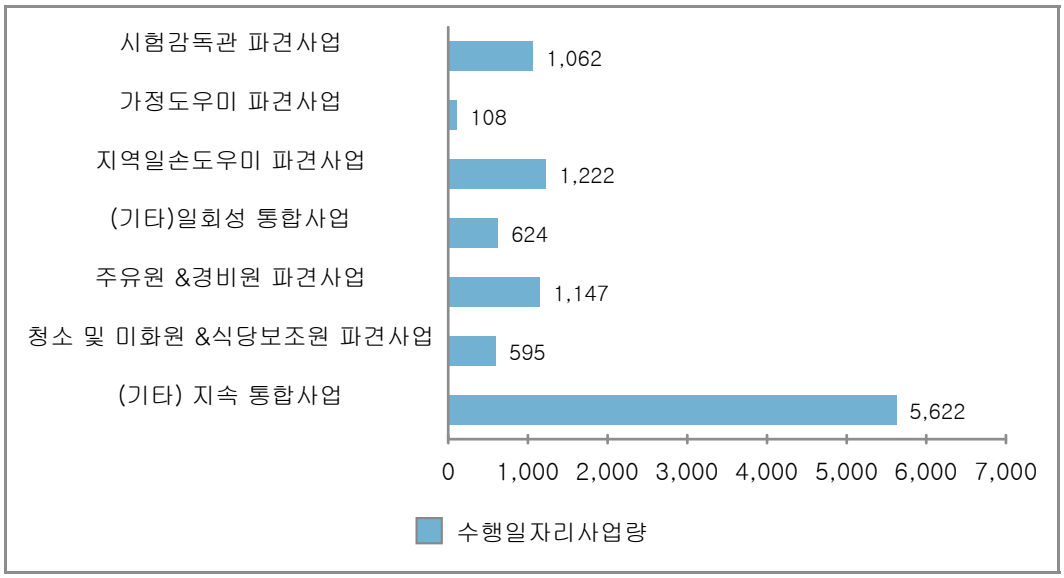
(단위 : 개)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1.

<그림 2-1-10> 인력파견형 소유형별 일자리 사업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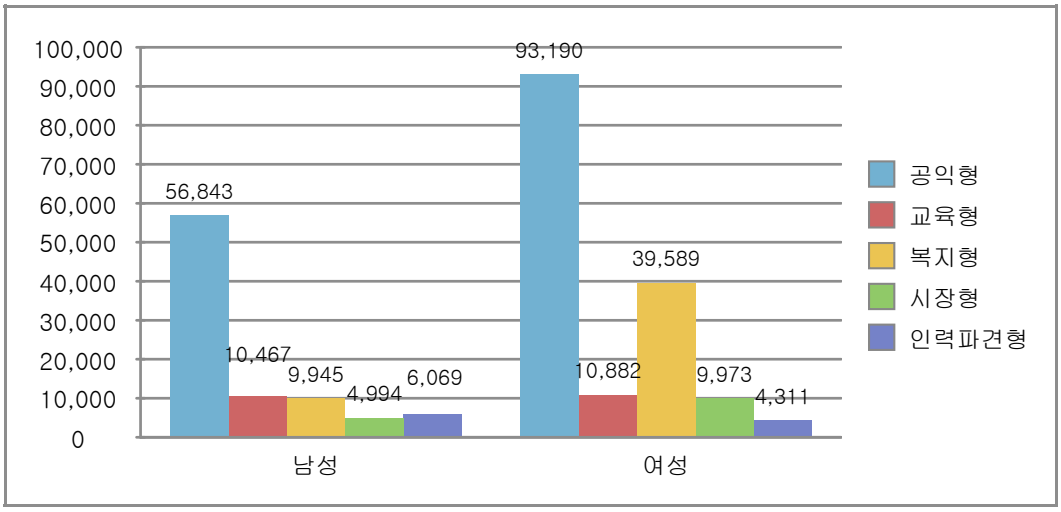
(단위 : 개)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1.

<그림 2-1-11> 2011년 사업유형별 · 성별 참여자 현황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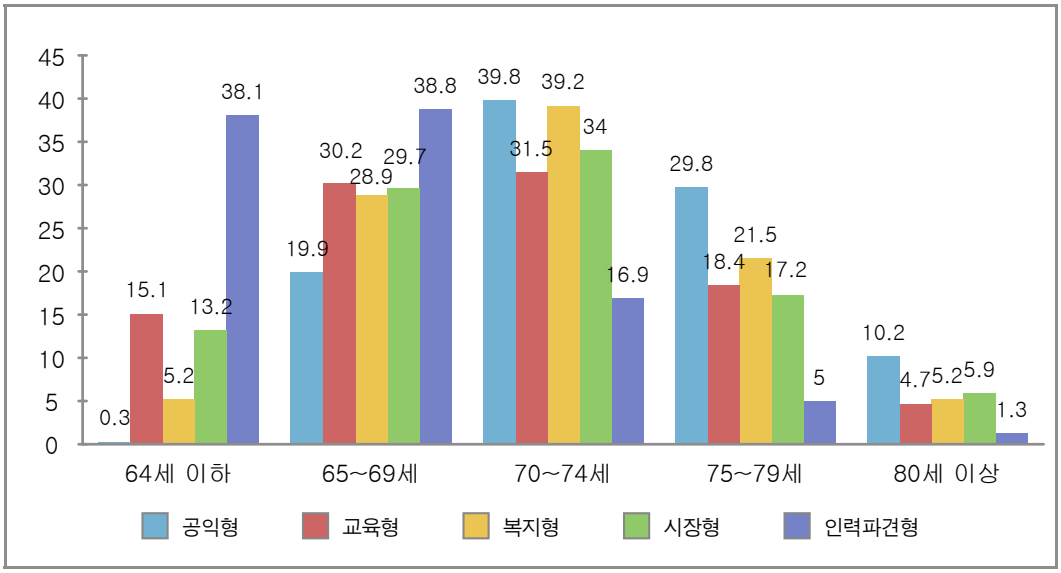
(단위 : 명)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1.
*범주 순으로 그래프가 나열됨.

<그림 2-1-12> 2011년 사업유형별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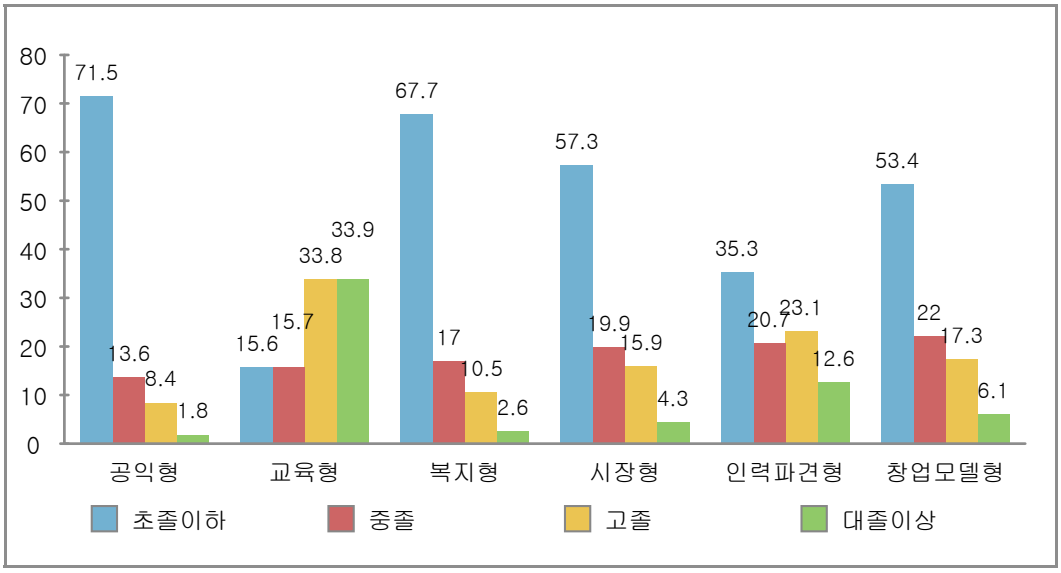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1.
*범주 순으로 그래프가 나열됨.

<그림 2-1-13> 2011년 학력별 참여자 분포(누적)

(단위 : %)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1.
*범주 순으로 그래프가 나열됨.

2. 노인일자리사업 주요조사 결과

1) 2011년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실적

<표 2-2-1> 2011년 노인일자리 창출목표 및 실적추이(사업유형별, 연도별)

(기준 : 2011.12.31, 단위 : 개)

구분		2004년[2]	2005년	2006년	2007년[3]	2008년	2009년 (추경 포함)	2010년	2011년
창출목표		25,000	35,000	80,000	110,000	117,000	196,000	189,183	196,999
창출 실적[1]	전체	35,127	47,309	83,038	115,646	126,370	222,616	216,441	220,346
	공익형	28,373	31,101	47,195	57,015	61,732	134,975	126,894	129,066
	교육형	3,800	7,063	8,708	13,240	14,493	16,523	17,480	20,317
	복지형	-	4,581	17,809	33,160	34,164	44,299	47,302	45,097
	시장형	1,748	3,633	7,459	9,378	11,530	17,141	15,373	10,380
	인력파견형	1,206	931	1,867	2,601	4,451	9,061	8,781	14,967
	창업모델형	-	-	-	252	-	616	611	519

주1) : 창출실적 : 실참여기간을 7개월로 환산하여 추정한 자릿수

주2) : 2004년 '공공참여형'은 '공익형', '공익강사형'은 '교육형', '시장참여형'은 '시장형'으로 분류

주3) : 2007년 '통합형'은 사업성격상 '초기투자비 지원사업'과 '지역혁신사업'으로 분류, '지역혁신사업'은 복지형 성격(노-노케어)로 운영되었으므로 '복지형'으로 분류, 2007년 '초기투자비 시범사업'은 '창업모델형'으로 분류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제1기(2004~2007) 노인일자리사업 백서」, 2008.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1.

○ '04년 2만5천 자리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시작하여 '09년 196,000개까지 노인일자리사업의 창출 목표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함. '10년도에 목표치가 약간 감소하였다가 '11년에 196,999개로 증가함. 일자리 창출실적은 매년 목표치를 초과달성해 왔음

○ 특히 '05~'06년, '08~'09년의 일자리창출 목표치가 전년대비 크게 상승

<표 2-2-2> 2011년 노인일자리 창출목표 및 실적(사업유형별)

(기준 : 2011.12.31, 단위 : 개, %, 명)

구분		확정내시 목표 사업량 (A)	배정 일자리 사업량[1] (%)	수행 일자리[2] 사업량 (B)	사업단 (개)	참여인원(누적)[3]			목표 대비 추진율 (B/A)*100
						전체	남	여	
2010년 전체		189,183	214,630(100.0)	216,441(100)	4,441	249,207	92,163	157,044	114.4
2011년 전체		196,999	218,063(100.0)	220,346(100)	5,014	246,782	88,416	158,366	111.9
공공분야	소계	176,999	195,839(89.8)	194,480(88.3)	3,991	220,916	77,255	143,661	109.8
	공익형	176,999	130,033(59.6)	129,066(58.6)	1,674	150,033	56,843	93,190	109.8
	교육형		20,262(9.3)	20,317(9.2)	959	21,349	10,467	10,882	
	복지형		45,544(20.9)	45,097(20.5)	1,358	49,534	9,945	39,589	
민간분야	소계	20,000	22,224(10.2)	25,866(11.7)	1,023	25,866	11,161	14,705	129.3
	시장형	10,000	11,947(5.5)	14,967(6.8)	682	14,967	4,994	9,973	149.6
	인력파견형	10,000	9,714(4.5)	10,380(4.7)	286	10,380	6,069	4,311	103.8
	창업모델형	-	563(0.2)	519(0.2)	55	519	98	421	-

주1) : 배정일자리 사업량 : 사업계획서상 인건비 총액/140만원, (140만원 = 1인×20만원×7개월)
- 배정일자리 사업량은 승인된 사업의 총량으로, 지자체 자체예산 추진사업분이 포함되어 있어 확정내시 목표사업량과 차이 발생,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매월 변경될 수 있음

주2) : 공공분야 수행일자리 사업량 : 실 참여기간을 7개월로 환산하여 추정한 자리수로 집행된 인건비 총액÷140만원, (140만원 = 1인×20만원×7개월) 민간분야 수행일자리 사업량 - 누적참여자수로 산출

주3) : 누적참여인원 : 참여기간과 상관없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 전체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1.

○ '11년도 목표사업량은 196,999개이며 수행일자리수는 220,346개로 목표대비추진율은 111.9%로 나타남. 사업단수는 5,014개, 참여인원은 246,782명임. 전년도에 비해 일자리 수는 3,905개가 증가, 참여인원은 2,425명 감소함

○ 수행일자리사업량을 기준으로 공공분야일자리가 전체의 88.3%, 민간분야는 11.7%이며 그 중 공익형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58.6%로 비율이 가장 높음

○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목표대비추진율(129.3%)이 공공분야(109.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시장형의 추진율(149.6%)이 가장 높음

<표 2-2-3> 2011년 노인일자리 창출실적(시 · 도별)

(기준 : 2011.12.31, 단위 : 개, %, 명)

구분	창출목표				창출실적					참여노인 수	
	확정내시 목표사업량(A)		배정일자리 사업량(B)		수행일자리 사업량(C)			목표대비 추진율 ((C/A)*100)	전년도 수행 일자리 수	참여 인원 (누적)	2010년 참여 인원 (누적)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비율				
합계	196,999		218,063		220,346		100.0	111.9	216,441	246,782	249,207
	176,999 (89.8)	20,000 (10.2)	195,839 (89.8)	22,224 (10.1)	194,480 (88.3)	25,866 (11.7)					
서울	31,236		33,051		32,262		14.6	103.3	34,067	35,578	38,633
	29,000 (92.8)	2,236 (7.2)	31,171 (94.3)	1,880 (5.7)	30,295 (93.9)	1,967 (6.1)					
부산	13,903		14,151		14,601		6.6	105.0	14,183	15,882	15,424
	12,100 (87.0)	1,803 (13.0)	11,952 (84.5)	2,199 (15.5)	11,876(81.3)	2,725 (18.7)					
대구	10,229		10,957		11,304		5.1	110.5	11,261	12,179	12,096
	9,100 (89.0)	1,129 (11.0)	9,750 (89.0)	1,207 (11.0)	9,821 (86.9)	1,483 (13.1)					
인천	9,587		12,577		13,140		6.0	137.1	12,618	14,100	13,704
	8,150 (85.0)	1,437 (15.0)	10,686 (85.0)	1,891 (15.0)	10,715 (81.5)	2,425 (18.5)					
광주	5,597		5,825		5,968		2.7	106.6	5,824	6,615	6,275
	4,900 (87.5)	697 (12.5)	4,887 (83.9)	938 (16.1)	4,927 (82.6)	1,041 (17.4)					
대전	6,415		7,817		7,886		3.6	122.9	7,144	9,262	9,162
	5,700 (88.9)	715 (11.1)	7,060 (90.3)	757 (9.6)	6,966 (88.3)	920 (11.7)					
울산	3,778		4,251		4,347		2.0	115.1	3,847	4,575	4,335
	3,450 (91.3)	328 (8.7)	3,865 (90.9)	386 (9.1)	3,883 (89.3)	464 (10.7)					
경기	27,793		29,423		29,604		13.4	106.5	27,860	32,762	31,001
	24,200 (87.1)	3,593 (12.9)	25,189 (85.6)	4,234 (14.4)	24,913 (84.2)	4,691 (15.8)					

구분	창출목표				창출실적					참여노인 수	
	확정내시 목표사업량 (A)		배정일자리 사업량(B)		수행일자리 사업량(C)			목표대비 추진율 ((C/A)*100)	전년도 수행 일자리 수	참여 인원 (누적)	2010년 참여 인원 (누적)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비율				
강원	10,043		12,122		12,248		5.6	122.0	12,261	15,127	15,876
	8,900 (88.6)	1,143 (11.4)	10,560 (87.1)	1,562 (12.9)	10,448 (85.3)	1,800 (14.7)					
충북	6,691		8,434		8,481		3.8	126.8	6,718	9,472	7,212
	5,700 (85.1)	991 (14.8)	7,369 (87.4)	1,065 (12.6)	7,192 (84.8)	1,289 (15.2)					
충남	11,521		11,704		11,784		5.3	102.3	12,347	13,119	13,689
	10,500 (91.1)	1,021 (8.9)	10,870 (92.9)	834 (7.1)	10,862 (92.2)	922 (78.2)					
전북	14,019		16,457		16,743		7.6	119.4	16,653	19,300	19,006
	12,900 (92.0)	1,119 (8.0)	15,162 (92.1)	1,295 (7.9)	15,146 (90.5)	1,597 (9.5)					
전남	16,203		17,070		16,914		7.7	104.4	17,214	20,845	22,901
	15,200 (93.8)	1,003 (6.1)	16,062 (94.1)	1,008 (5.9)	15,968 (94.4)	946 (5.6)					
경북	14,230		16,907		17,419		7.9	122.4	16,375	19,007	19,331
	12,700 (89.2)	1,530 (10.8)	15,316 (90.6)	1,591 (9.4)	15,551 (89.3)	1,868 (10.7)					
경남	13,275		14,774		15,091		6.8	113.7	16,005	16,274	18,384
	12,200 (91.9)	1,075 (8.1)	13,577 (91.9)	1,197 (8.1)	13,576 (90.0)	1,515 (10.0)					
제주	2,479		2,543		2,554		1.2	103.0	2,064	2,685	2,178
	2,299 (92.7)	180 (7.3)	2,363 (92.9)	180 (7.1)	2,341 (91.7)	213 (8.3)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1.

○ '11년 노인일자리사업의 수행일자리사업량은 서울, 경기지역이 약 28.0%로 나타나 수도권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인천(137.1%), 충북(126.8%), 대전(122.9%)순으로 목표대비 추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2-4> 2011년 시 · 도별 노인일자리사업 창출실적(사업유형별, 시 · 도별)

(기준 : 2011.12.31, 단위 : 개, %, 명)

구분	소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배정 일자리 사업량	수행 일자리 사업량	참여 인원 (누적)	배정 일자리 사업량	수행 일자리 사업량	참여 인원 (누적)	배정 일자리 사업량	수행 일자리 사업량	참여 인원 (누적)	배정 일자리 사업량	수행 일자리 사업량	참여 인원 (누적)
합계	218,063 (100.0)	220,346 (100.0)	246,782 (100.0)	130,033 (100.0)	129,066 (100.0)	150,033 (100.0)	20,262 (100.0)	20,317 (100.0)	21,349 (100.0)	45,544 (100.0)	45,097 (100.0)	49,534 (100.0)
서울	33,051 (15.2)	32,262 (14.6)	35,578 (14.4)	22,990 (17.7)	22,483 (17.4)	24,811 (16.5)	2,300 (11.4)	2,217 (10.9)	2,353 (11.0)	5,881 (12.9)	5,595 (12.4)	6,447 (13.0)
부산	14,151 (6.5)	14,601 (6.6)	15,882 (6.4)	6,417 (4.9)	6,310 (4.9)	7,130 (4.8)	1,645 (8.1)	1,661 (8.2)	1,728 (8.1)	3,890 (8.5)	3,905 (8.7)	4,299 (8.7)
대구	10,957 (5.0)	11,304 (5.1)	12,179 (4.9)	6,449 (5.0)	6,521 (5.1)	7,205 (4.8)	1,106 (5.5)	1,101 (5.4)	1,146 (5.4)	2,195 (4.8)	2,199 (4.9)	2,345 (4.7)
인천	12,577 (5.8)	13,140 (6.0)	14,100 (5.7)	6,808 (5.2)	6,909 (5.4)	7,689 (5.1)	955 (4.7)	960 (4.7)	973 (4.6)	2,923 (6.4)	2,846 (6.3)	3,013 (6.1)
광주	5,825 (2.7)	5,968 (2.7)	6,615 (2.7)	2,931 (2.3)	2,962 (2.3)	3,450 (2.3)	596 (2.9)	601 (3.0)	641 (3.0)	1,360 (3.0)	1,364 (3.0)	1,483 (3.0)
대전	7,817 (3.6)	7,886 (3.6)	9,262 (3.8)	5,325 (4.1)	5,258 (4.1)	6,511 (4.3)	621 (3.1)	620 (3.1)	649 (3.0)	1,114 (2.4)	1,088 (2.4)	1,182 (2.4)
울산	4,251 (1.9)	4,347 (2.0)	4,575 (1.9)	2,111 (1.6)	2,117 (1.6)	2,318 (1.5)	641 (3.2)	641 (3.2)	644 (3.0)	1,113 (2.4)	1,125 (2.5)	1,149 (2.3)
경기	29,423 (13.5)	29,604 (13.4)	32,762 (13.3)	14,946 (11.5)	14,637 (11.3)	17,097 (11.4)	4,368 (21.6)	4,439 (21.8)	4,527 (21.2)	5,875 (12.9)	5,837 (12.9)	6,447 (13.0)
강원	12,122 (5.6)	12,248 (5.6)	15,127 (6.1)	7,559 (5.8)	7,424 (5.8)	9,976 (6.6)	816 (4.0)	830 (4.1)	872 (4.1)	2,185 (4.8)	2,194 (4.9)	2,479 (5.0)
충북	8,434 (3.9)	8,481 (3.8)	9,472 (3.8)	4,287 (3.3)	4,133 (3.2)	4,667 (3.1)	897 (4.4)	876 (4.3)	965 (4.5)	2,185 (4.8)	2,183 (4.8)	2,551 (5.1)
충남	11,704 (5.4)	11,784 (5.3)	13,119 (5.3)	7,838 (6.0)	7,832 (6.1)	8,553 (5.7)	1,120 (5.5)	1,127 (5.5)	1,403 (6.6)	1,912 (4.2)	1,903 (4.2)	2,241 (4.5)
전북	16,457 (7.5)	16,743 (7.6)	19,300 (7.8)	10,076 (7.7)	10,043 (7.8)	12,298 (8.2)	1,481 (7.3)	1,486 (7.3)	1,530 (7.2)	3,605 (7.9)	3,617 (8.0)	3,875 (7.8)
전남	17,070 (7.8)	16,914 (7.7)	20,845 (8.4)	10,730 (8.3)	10,701 (8.3)	14,178 (9.4)	1,285 (6.3)	1,293 (6.4)	1,363 (6.4)	4,047 (8.9)	3,974 (8.8)	4,358 (8.8)
경북	16,907 (7.8)	17,419 (7.9)	19,007 (7.7)	11,097 (8.5)	11,305 (8.8)	12,561 (8.4)	1,001 (4.9)	1,021 (5.0)	1,068 (5.0)	3,218 (7.1)	3,225 (7.2)	3,510 (7.1)
경남	14,774 (6.8)	15,091 (6.8)	16,274 (6.6)	8,874 (6.8)	8,858 (6.9)	9,936 (6.6)	1,178 (5.8)	1,193 (5.9)	1,224 (5.7)	3,525 (7.7)	3,525 (7.8)	3,599 (7.3)
제주	2,543 (1.2)	2,554 (1.2)	2,685 (1.1)	1,595 (1.2)	1,573 (1.2)	1,653 (1.1)	252 (1.2)	251 (1.2)	263 (1.2)	516 (1.1)	517 (1.1)	556 (1.1)

구분	시장형			인력파견형			창업모델형		
	배정 일자리 사업량	수행 일자리 사업량	참여 인원 (누적)	배정 일자리 사업량	수행 일자리 사업량	참여 인원 (누적)	배정 일자리 사업량	수행 일자리 사업량	참여 인원 (누적)
합계	11,947 (100.0)	14,967 (100.0)	14,967 (100.0)	9,714 (100.0)	10,380 (100.0)	10,380 (100.0)	563 (100.0)	519 (100.0)	519 (100.0)
서울	948 (7.9)	1,172 (7.8)	1,172 (7.8)	920 (9.5)	780 (7.5)	780 (7.5)	12 (2.1)	15 (2.9)	15 (2.9)
부산	1,346 (11.3)	1,719 (11.5)	1,719 (11.5)	800 (8.2)	975 (9.4)	975 (9.4)	53 (9.4)	31 (6.0)	31 (6.0)
대구	653 (5.5)	842 (5.6)	842 (5.6)	476 (4.9)	582 (5.6)	582 (5.6)	78 (13.9)	59 (11.4)	59 (11.4)
인천	875 (7.3)	1,266 (8.5)	1,266 (8.5)	986 (10.2)	1,143 (11.0)	1,143 (11.0)	30 (5.3)	16 (3.1)	16 (3.1)
광주	476 (4.0)	561 (3.7)	561 (3.7)	434 (4.5)	453 (4.4)	453 (4.4)	28 (5.0)	27 (5.2)	27 (5.2)
대전	449 (3.8)	627 (4.2)	627 (4.2)	271 (2.8)	268 (2.6)	268 (2.6)	37 (6.6)	25 (4.8)	25 (4.8)
울산	173 (1.4)	211 (1.4)	211 (1.4)	201 (2.1)	248 (2.4)	248 (2.4)	12 (2.1)	5 (1.0)	5 (1.0)
경기	1,755 (14.7)	2,199 (14.7)	2,199 (14.7)	2,437 (25.1)	2,446 (23.6)	2,446 (23.6)	42 (7.5)	46 (8.9)	46 (8.9)
강원	1,238 (10.4)	1,488 (9.9)	1,488 (9.9)	299 (3.1)	289 (2.8)	289 (2.8)	25 (4.4)	23 (4.4)	23 (4.4)
충북	699 (5.9)	812 (5.4)	812 (5.4)	334 (3.4)	420 (4.0)	420 (4.0)	32 (5.7)	57 (11.0)	57 (11.0)
충남	540 (4.5)	608 (4.1)	608 (4.1)	255 (2.6)	278 (2.7)	278 (2.7)	39 (6.9)	36 (6.9)	36 (6.9)
전북	702 (5.9)	950 (6.3)	950 (6.3)	520 (5.4)	569 (5.5)	569 (5.5)	73 (13.0)	78 (15.0)	78 (15.0)
전남	564 (4.7)	614 (4.1)	614 (4.1)	419 (4.3)	303 (2.9)	303 (2.9)	25 (4.4)	29 (5.6)	29 (5.6)
경북	910 (7.6)	1,149 (7.7)	1,149 (7.7)	645 (6.6)	681 (6.6)	681 (6.6)	36 (6.4)	38 (7.3)	38 (7.3)
경남	519 (4.3)	652 (4.4)	652 (4.4)	637 (6.6)	829 (8.0)	829 (8.0)	41 (7.3)	34 (6.6)	34 (6.6)
제주	100 (0.8)	97 (0.6)	97 (0.6)	80 (0.8)	116 (1.1)	116 (1.1)	0 (0.0)	0 (0.0)	0 (0.0)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1.

○ 서울지역은 공익형 수행일자리수가 전체의 17.4%로 타지역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지역은 인력파견형(23.6%), 교육형(21.8%), 시장형(14.7%)의 경우 수행일자리 사업량 비중이 타지역에 비해 높음

○ 전북지역은 창업모델형 일자리창출실적이 높게 나타남

<표 2-2-5> 2011년 노인일자리 사업창출실적(기관유형별)

(기준 : 2011.12.31, 단위 : 개, %, 명)

구분	기관수(A)		사업단		창출실적		참여인원(누적)		기관 평균 수행 일자리 사업량(C/A)	
	'11년	'10년	'11년	'10년	배정 일자리 사업량(B)	수행 일자리 사업량(C)	'11년	'10년	'11년	'10년
합계	1,214 (100.0)	1,136 (100.0)	5,014 (100.0)	4,441 (100.0)	218,063 (100.0)	220,346 (100.0)	246,782	249,207	182	191
노인복지관	189 (15.6)	178 (15.7)	1,251 (25.0)	1,094 (24.6)	42,624 (19.5)	42,788 (19.4)	46,875	45,258	226	232
노인복지센터	160 (13.2)	153 (13.5)	317 (6.3)	278 (6.3)	9,481 (4.3)	9,534 (4.3)	10,072	10,070	60	61
대한노인회	208 (17.1)	201 (17.7)	818 (16.3)	763 (17.2)	33,430 (15.3)	33,543 (15.2)	36,373	35,333	161	162
시니어클럽	95 (7.8)	89 (7.8)	956 (19.1)	845 (19.0)	30,442 (13.9)	32,663 (14.8)	35,628	31,187	344	325
종합사회복지관	167 (13.8)	158 (13.9)	482 (9.6)	424 (9.5)	14,752 (6.8)	14,589 (6.6)	15,898	15,483	87	87
지역문화원	26 (2.1)	25 (2.2)	42 (0.8)	46 (1.0)	875 (0.4)	876 (0.4)	933	1,108	34	39
지자체	204 (16.8)	177 (15.6)	719 (14.3)	614 (13.8)	71,703 (32.9)	70,628 (32.1)	83,410	93,564	346	421
기타[1)]	165 (13.6)	155 (13.6)	429 (8.6)	377 (8.5)	14,756 (6.8)	15,725 (7.1)	17,593	17,204	95	99

주1) : 기타에는 실버인력뱅크, 지역자활후견기관, 교회 등 다양한 기관 포함, ( ) 비율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1.

○ 2011년에 총 1,214개 수행기관에서 5,014개 사업단 운영, 전년대비 수행기관수는 78개 증가하였으며 사업단수는 573개가 증가함

○ 수행기관수는 대한노인회가 208개(17.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지자체 204개(16.8%), 노인복지관 189개(15.6%), 종합사회복지관 158개(13.8%)순으로 나타남. 사업단수는 노인복지관이 1,251개(25.0%)의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시니어클럽 956개(19.1%), 대한노인회 818개(16.3%), 지자체 719개(14.3%) 순으로 나타나 노인복지관과 시니어클럽이 사업단수에 비해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음

○ 수행기관 당 평균 182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지자체(346개), 시니어클럽(344개), 노인복지관(226개)순으로 사업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2-6>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실적(기관유형별, 사업유형별)

(기준 : 2011.12.31, 단위 : 개, %, 명)

구분	소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배정 일자리 사업량	수행 일자리 사업량	참여 인원 (누적)	배정 일자리 사업량	수행 일자리 사업량	참여 인원 (누적)	배정 일자리 사업량	수행 일자리 사업량	참여 인원 (누적)	배정 일자리 사업량	수행 일자리 사업량	참여 인원 (누적)
2010	-	216,441	249,207	-	126,894	154,294	-	17,480	18,498	-	47,302	51,650
2011	218,063 (100.0)	220,346 (100.0)	246,782 (100.0)	130,033 (100.0)	129,066 (100.0)	150,033 (100.0)	20,262 (100.0)	20,317 (100.0)	21,349 (100.0)	45,544 (100.0)	45,097 (100.0)	49,534 (100.0)
노인복지관	42,624 (19.5)	42,788 (19.4)	46,875 (19.0)	17,887 (13.8)	17,848 (13.8)	20,364 (13.6)	8,883 (43.9)	8,909 (43.8)	9,245 (43.3)	12,419 (27.3)	12,337 (27.4)	13,572 (27.4)
노인 복지센터	9,481 (4.3)	9534 (4.3)	10,072 (4.1)	2,400 (1.8)	2,372 (1.8)	2,550 (1.7)	546 (2.7)	546 (2.7)	572 (2.7)	6,033 (13.2)	6,015 (13.3)	6,349 (12.8)
대한노인회	33,430 (15.3)	33,543 (15.2)	36,373 (14.7)	21,568 (16.6)	21,549 (16.7)	23,757 (15.8)	2,973 (14.7)	2,957 (14.6)	3,325 (15.6)	5,571 (12.2)	5,537 (12.3)	5,791 (11.7)
시니어클럽	30,442 (14.0)	32,663 (14.8)	35,628 (14.4)	10,422 (8.0)	10,458 (8.1)	12,428 (10.3)	3,417 (16.9)	3,450 (17.0)	3,643 (17.1)	5,506 (12.1)	5,526 (12.3)	6,328 (12.8)
종합사회 복지관	14,752 (6.8)	14,589 (6.6)	15,898 (6.4)	6,362 (4.9)	6,322 (4.8)	7,052 (4.7)	1,267 (6.3)	1,259 (6.2)	1,271 (6.0)	6,530 (14.3)	6,414 (14.2)	6,981 (14.1)
지역문화원	875 (0.4)	876 (0.4)	933 (0.4)	207 (0.2)	207 (0.2)	220 (0.1)	436 (2.2)	434 (2.1)	466 (2.2)	202 (0.4)	203 (0.5)	215 (0.4)
지자체	71,703 (32.9)	70,628 (32.0)	83,410 (33.8)	65,209 (50.1)	64,341 (49.9)	76,823 (51.2)	1,004 (5.0)	997 (4.9)	990 (4.6)	5,297 (11.6)	5,097 (11.3)	5,404 (10.9)
기타	14,756 (6.8)	15,725 (7.1)	17,593 (7.1)	5,978 (4.6)	5,969 (4.6)	6,839 (4.6)	1,736 (8.6)	1,765 (8.7)	1837 (8.6)	3,986 (8.8)	3,968 (8.8)	4,894 (9.9)

구분	시장형			인력파견형			창업모델형		
	배정 일자리 사업량	수행 일자리 사업량	참여 인원 (누적)	배정 일자리 사업량	수행 일자리 사업량	참여 인원 (누적)	배정 일자리 사업량	수행 일자리 사업량	참여 인원 (누적)
2010	-	15,373	15,373	-	8,781	8,781	-	611	611
2011	11,947 (100.0)	14,967 (100.0)	14,967 (100.0)	9,714 (100.0)	10,380 (100.0)	10,380 (100.0)	563 (100.0)	519 (100.0)	519 (100.0)
노인복지관	1,380 (11.6)	1,754 (11.7)	1,754 (11.7)	2,001 (20.6)	1,887 (18.2)	1,887 (18.2)	54 (9.5)	53 (10.2)	53 (10.2)
노인 복지센터	293 (2.5)	403 (2.7)	403 (2.7)	204 (2.1)	193 (1.9)	193 (1.9)	5 (0.8)	5 (0.9)	5 (1.0)
대한노인회	2,024 (16.9)	2,311 (15.4)	2,311 (15.4)	1,259 (13.0)	1,155 (11.1)	1,155 (11.1)	35 (6.2)	34 (6.5)	34 (6.6)
시니어클럽	7,076 (59.2)	9,016 (60.2)	9,016 (60.2)	3,575 (36.8)	3,805 (84.8)	3,805 (36.7)	446 (79.2)	408 (78.6)	408 (78.6)
종합사회 복지관	394 (3.3)	450 (3.0)	450 (3.0)	196 (2.0)	141 (1.4)	141 (1.4)	3 (0.5)	3 (0.6)	3 (0.6)
지역문화원	30 (0.3)	32 (0.2)	32 (0.2)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지자체	159 (1.3)	171 (1.1)	171 (1.1)	34 (0.3)	22 (0.2)	22 (0.2)	0 (0.0)	0 (0.0)	0 (0.0)
기타	591 (4.9)	830 (5.5)	830 (5.5)	2,445 (25.2)	3,177 (30.6)	3,177 (30.6)	20 (0.5)	16 (3.1)	16 (3.1)

주1) : 배정일자리 사업량 : 사업계획서상 인건비 총액/140만원, (140만원 = 1인×20만원×7개월)
- 배정일자리 사업량은 승인된 사업의 총량으로, 지자체 자체예산 추진사업분이 포함되어 있어 확정 내시 목표사업량과 차이 발생,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매월 변경될 수 있음

주2) : 공공분야 수행일자리 사업량 : 실 참여기간을 7개월로 환산하여 추정한 자리수로 집행된 인건비 총액 ÷140만원,(140만원 = 1인×20만원×7개월) 민간분야 수행일자리 사업량 - 누적참여자수로 산출

주3) : 누적참여인원 : 참여기간과 상관없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 전체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1.

○ 수행일자리사업량은 지자체가 70,628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노인복지관(42,788개), 대한노인회(36,373개), 시니어클럽(35,628개)의 순으로 나타남. 지자체의 경우 공익형 수행일자리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64,341개), 노인복지센터의 경우는 복지형 수행일자리의 비중이 높고, 시니어클럽과 대한노인회의 경우 시장형 수행일자리의 비중이 높은 편임

2) 사업유형별 실적

(1) 공익형

<표 2-2-7> 2011년 공익형 세부유형별 노인일자리 창출 실적

(기준 : 2011.12.31, 단위 : 개, %, 명)

대유형	중유형	소유형	사업단수		창출실적					참여노인수	
			사업단	비율	배정 일자리 사업량	비율	수행 일자리 사업량[1]	비율	사업단별 평균 일자리수	참여 인원 (누적)	비율
공익형	2010 전체		1,586	100	128,211	100	126,894	100	80.0	154,294	100
	2011 전체		1,674	100	130,033	100	129,066	100	77.1	150,033	100
	미래세대 지원사업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사업	138	8.2	10,761	8.3	10,627	8.2	77.0	11,903	7.9
	자원회수 및 재활용 사업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24	1.4	1,631	1.3	1,493	1.2	62.2	1,742	1.2
		폐의약품 회수사업	42	2.5	1,690	1.3	1,689	1.3	40.2	1,835	1.2
	녹색환경 관리지원 사업	자전거 보관관리 및 수리지원 사업	13	0.8	351	0.3	349	0.3	26.8	386	0.3
		친환경 EM활용사업	28	1.7	1,821	1.4	1,866	1.4	66.6	2,073	1.4
	지역사회 관리지원 사업	지역사회 환경개선 보호사업	493	29.5	67,897	52.2	67,851	52.6	137.6	81,700	54.5
		지역사회 문화재관리 지원사업	47	2.8	1,709	1.3	1,688	1.3	35.9	1,809	1.2
	공공질서 계도지원 사업	주정차질서 계도 지원사업	62	3.7	2,332	1.8	2,344	1.8	37.8	2,754	1.8
		지하철이용 질서 계도사업	38	2.3	1,880	1.4	1,918	1.5	50.5	2,037	1.4
		스쿨존교통 지원사업	284	17.0	17,373	13.4	17,230	13.3	60.7	19,429	12.9

대유형	중유형	소유형	사업단수		창출실적					참여노인수	
			사업단	비율	배정 일자리 사업량	비율	수행 일자리 사업량[1]	비율	사업단별 평균 일자리수	참여 인원 (누적)	비율
공익형	공중이용 시설 관리지원 사업	도서관 관리 지원사업	71	4.2	1,547	1.2	1,529	1.2	21.5	1,700	1.1
		생활근린 시설관리 지원사업	117	7.0	5,698	4.4	5,522	4.3	47.1	6,554	4.4
		공공의료 기관 및 복지시설 관리지원 사업	152	9.1	8,003	6.2	7,753	6.0	51.0	8,226	5.5
	기타 지역특화 사업	묘지조사원	1	0.1	6	0.004	5	0.003	5.0	5	0.0
		기타 (지역특화) 사업	164	9.8	7,334	5.6	7,202	5.6	43.9	7,880	5.3

주1) : 수행일자리사업량 : 집행된 인건비 총액÷140만원 (= 1인×20만원×7개월)
* 민간분야 일자리는 누적참여자수와 동일
누적참여자사업량 : 참여기간과 상관없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 전체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1.

○ '11년 공익형 사업은 전년에 비해 사업단수 88개, 일자리사업량 2,172개 증가 참여인원은 전년도에 비해 4,261명 감소함. 지역사회 환경개선보호사업의 경우 수행일자리사업량, 사업단수, 참여인원을 고려할 때 가장 대표적인 사업임

○ 사업단수는 지역사회 환경개선보호사업이 29.5%로 가장 높은 비중이며, 다음으로는 스쿨존교통지원사업(17.0%), 기타 (지역특화) 사업(9.8%), 공공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관리지원사업(9.1%)로 나타남. 수행일자리사업량의 경우 지역사회 환경개선사업단이 가장 높은 비중 67,851개(52.6%)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스쿨존교통지원사업 17,230개(13.3%),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10,627개(8.2%)로 나타남. 참여자비중 역시 지역사회 환경개선보호사업(54.5%)이 가장 높음

(2) 교육형

<표 2-2-8> 2011년 교육형 세부유형별 노인일자리 창출 실적

(기준 : 2011.12.31, 단위 : 개, %, 명)

대유형	중유형	소유형	사업단수		창출실적					참여노인수	
			사업단	비율	배정 일자리 사업량	비율	수행 일자리 사업량	비율	사업단별 평균 일자리수	참여 인원 (누적)	비율
교육형	2010		668	100	17,498	100	17,480	100	26.2	18,498	100
	2011		959	100	20,262	100	20,317	100	21.2	21,349	100
	학습지도 강사파견 사업	1-3세대 강사파견사업	315	32.8	9,681	47.8	9,743	48.0	30.9	10,041	47.0
		노-노교육 강사파견사업	187	19.5	4,077	20.1	4,049	19.9	21.7	4,196	19.7
		체육건강 강사파견사업	32	3.3	687	3.4	697	3.4	21.8	733	3.4
	전문해설 및 안내지원 사업	숲생태해설사업	50	5.2	1,158	5.7	1,174	5.8	23.5	1,246	5.8
		문화재해설사업	39	4.1	1,025	5.1	1,022	5.0	26.2	1,112	5.2
		기타 안내지원사업	38	4.0	803	4.0	809	4.0	21.3	887	4.2
	기타 지역특화 사업	노인일자리 모니터링사업	139	14.5	358	1.8	345	1.7	2.5	377	1.8
		기타 (지역 특화) 사업	159	16.6	2,473	12.2	2,478	12.2	15.6	2,757	12.9

주1) : 수행일자리사업량 : 집행된 인건비 총액÷140만원 (= 1인×20만원×7개월)

* 민간분야 일자리는 누적참여자수와 동일

누적참여자사업량 : 참여기간과 상관없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 전체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1.

○ '11년 교육형 사업은 전년도 대비 사업단수는 291개 증가, 수행일자리 사업량 2,837개 증가함. 일자리사업량과 참여인원으로 살펴볼 때 1-3세대 강사파견 사업이 교육형의 대표적인 사업임

○ 1-3세대 강사파견사업이 전체 수행일자리사업량의 48.0%를 차지하여 그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노-노교육 강사파견사업이 19.9%를 차지함. 사업단 비율에서도 1-3세대 강사파견사업이 32.8%, 노-노교육 강사파견사업이 19.5%를 차지하고 있음. 참여인원별 비중 역시 1-3세대 강사사업이 47.0%로 가장 높음

(3) 복지형

<표 2-2-9> 2011년 복지형 세부유형별 노인일자리 창출실적

(기준 : 2011.12.31, 단위 : 개, %, 명)

대유형	중유형	소유형		사업단수		창출실적					참여노인수	
				사업단	비율	배정 일자리 사업량	비율	수행 일자리 사업량	비율	사업단별 평균 일자리수	참여 인원 (누적)	비율
복지형	2010 전체			1,239	100	47,277	100	47,302	100	44.5	51,650	100
	2011 전체			1,358	100	45,544	100	45,097	100	40.2	49,534	100
	소외계층 돌봄지원 사업	노-노케어	독거노인 돌봄 지원사업	353	26.0	15,868	34.8	15,693	34.8	35.6	17,055	34.4
			거동불편노인 돌봄 지원사업	283	20.8	11,438	25.1	11,371	25.2	40.2	12,153	24.5
			생활시설 이용자 돌봄 지원사업	81	6.0	2,899	6.4	2,884	6.4	35.6	3,289	6.6
		노인학대예방사업		156	11.5	2,111	4.6	2,053	4.6	13.2	2,297	4.6
		장애인 돌봄지원사업		33	2.4	765	1.7	754	1.7	22.8	914	1.8
		청소년 보호지원사업		39	2.9	1,675	3.7	1,639	3.6	42.0	1,917	3.9
		지역아동센터 연계지원사업		107	7.9	3,193	7.0	3,179	7.0	29.7	3,536	7.1
	가족친화 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20	1.5	437	1.0	419	0.9	21.0	461	0.9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9	0.7	184	0.4	183	0.4	20.3	203	0.4
	주거환경 개선지원 사업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66	4.9	1,162	2.6	1,160	2.6	17.6	1,336	2.7
	문화복지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52	3.8	1,070	2.3	1,074	2.4	20.7	1,157	2.3
	기타사업	기타 (지역특화) 사업		159	11.7	4,742	10.4	4,688	10.4	29.5	5,216	10.5

주1) : 수행일자리사업량 : 집행된 인건비 총액÷140만원 (= 1인×20만원×7개월)

* 민간분야 일자리는 누적참여자수와 동일

누적참여자사업량 : 참여기간과 상관없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 전체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1.

○ '11년 복지형 사업은 전년도 대비 사업단수 119개 증가함. 수행일자리사업량은 2,205개 감소하였으며 참여인원 2,116명 감소함. 노-노케어사업이 수행일자리 사업량 기준으로 전체의 66.4%, 사업단 기준 52.8%, 참여인원 기준 65.5%를 차지하여 가장 대표적인 사업임을 알 수 있음

○ 세부 소유형으로 살펴보면 독거노인 돌봄지원사업의 수행일자리비율이 34.8%, 참여인원비율 3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4) 시장형

<표 2-2-10> 2011년 시장형 세부유형별 노인일자리 창출 실적

(기준 : 2011.12.31, 단위 : 개, %, 명)

대유형	중유형	소유형	사업단수		창출실적					참여노인수	
			사업단	비율	배정 일자리 사업량	비율	수행 일자리 사업량 (=참여인원 누적,A)	비율	사업단별 평균 일자리수	참여 인원 (누적)	비율
시장형	2010 전체		664	100	12,616	100	15,373	100	23.2	15,373	100
	2011 전체		682	100	11,947	100	14,967	100	21.9	14,967	100
	일자리 지속형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148	21.7	3,453	28.9	4,581	30.6	31.0	4,581	30.6
		지역영농사업	64	9.4	1,346	11.3	1,564	10.4	24.4	1,564	10.4
		특산물제작 및 판매사업	28	4.1	295	2.5	313	2.1	11.2	313	2.0
	수익 창출형	식품제조 및 판매사업	154	22.6	2,336	19.6	2,869	19.2	18.6	2,869	19.1
		매장운영사업	53	7.8	536	4.5	668	4.5	12.6	668	4.4
		공산품제작 및 판매사업	63	9.2	720	6.0	859	5.7	13.6	859	5.7
		아파트택배	60	8.8	1,017	8.5	1,304	8.7	21.7	1,304	8.7
		지하철택배	6	0.9	117	1.0	131	0.9	21.8	131	0.8
		세차 및 세탁사업	18	2.6	253	2.1	313	2.1	17.4	313	2.0
		기타 서비스사업	88	12.9	1,874	15.7	2,365	15.8	295.6	2,365	15.8

주1) : 수행일자리사업량 : 집행된 인건비 총액÷140만원 (= 1인×20만원×7개월)
* 민간분야 일자리는 누적참여자수와 동일
누적참여자사업량 : 참여기간과 상관없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 전체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1.

○ '11년 시장형 사업은 전년대비 사업단수 18개 증가, 수행일자리사업량 406개 감소의 실적을 보임. 시장형 사업으로 가장 많이 운영된 사업단은 식품제조 및 판매사업으로 22.6%이며, 다음으로 공동작업장운영사업이 21.7%를 차지함

○ 수행일자리 사업량 기준으로 공공작업장운영사업단이 4,581개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식품제조 및 판매사업이 2,869개로 나타남

<표 2-2-11> 2011년 시장형 세부유형별 참여기간 및 보수수준

(기준 : 2011.12.31, 단위 : 개, 명, 원, 개월)

대유형	중유형	소유형	사업단	수행일자리 사업량 (=참여인원 누적,A)	보수총액(원) (1~12월,B)	총 참여 개월(C)	1인당 월평균 보수(원) (B/C)	1인당 평균참여 기간(개월) (C/A)
시장형	2011 전체		682	14,967	26,891,023,371	108,859	247,026	7.3
	일자리 지속형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148	4,581	7,779,025,888	34,288	226,873	7.5
		지역영농사업	64	1,564	1,957,703,580	10,128	193,296	6.5
		특산물제작 및 판매사업	28	313	487,430,052	2,597	187,690	8.3
	수익 창출형	식품제조 및 판매사업	154	2,869	4,399,817,624	20,818	211,347	7.3
		매장운영사업	53	668	979,677,442	4,584	213,717	6.9
		공산품제작 및 판매사업	63	859	1,195,950,024	6,358	188,102	7.4
		아파트택배	60	1,304	3,001,399,525	9,545	314,447	7.3
		지하철택배	6	131	394,402,100	1,274	309,578	9.7
		세차 및 세탁사업	18	313	736,260,856	2,496	294,976	8.0
		기타 서비스사업	88	2,365	5,959,356,280	16,771	355,337	7.1

*기타서비스사업 : 재활용사업(24개), 청소용역사업(16개), 가사·간병·보육사업(6개), 체험학습장 조성사업(4개) 등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1.

○ 식품제조 및 판매사업의 참여인원수 역시 식품제조 및 판매사업이 2,869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월평균보수는 247천원이며, 기타서비스 사업(355천원)으로 가장 높고 아파트택배(314천원), 지하철택배(309천원)순으로 나타남. 평균 참여기간은 지하철택배 사업이 9.7개월로 가장 김

<표 2-2-12> 2011년 시장형 시·도별 참여기간 및 보수수준

(기준 : 2011.12.31, 단위 : 개, 명, 원, 개월)

구분	사업단 (개)		참여 인원 (누적,A)		보수총액(원) (1~12월,B)		총 참여 개월(C)		1인당 월평균 보수(원) (B/C)		1인당평균 참여기간 (개월) (C/A)	
	'11년	'10년	'11년	'10년	'11년	'10년	'11년	'10년	'11년	'10년	'11년	'10년
합계	682	664	14,967	15,373	26,891,023,371	24,527,655,669	108,859	109,156	247,026	224,703	7.3	7.1
서울	53	55	1,172	1,207	2,481,397,222	2,337,348,965	9,209	8,733	269,453	267,646	7.9	7.2
부산	54	61	1,719	1,786	2,895,268,192	2,654,013,550	11,927	12,210	242,749	217,364	6.9	6.8
대구	36	35	842	1,008	1,987,314,492	1,798,557,846	7,067	7,192	281,210	250,078	8.4	7.1
인천	29	24	1,266	1,186	2,373,717,962	2,322,406,709	9,117	9,200	260,362	252,436	7.2	7.8
광주	24	28	561	653	799,849,128	898,793,653	4,183	4,939	191,214	181,979	7.5	7.6
대전	29	29	627	727	1,469,430,207	1,026,569,857	4,422	3,921	332,300	261,813	7.1	5.4
울산	10	10	211	202	744,760,539	557,850,082	1,735	1,462	429,257	381,566	8.2	7.2
경기	128	116	2,199	2,148	3,523,411,749	3,099,518,634	15,685	15,384	224,636	201,477	7.1	7.2
강원	48	40	1,488	1,087	1,884,382,643	1,495,998,911	9,126	7,928	206,485	188,698	6.1	7.3
충북	40	42	812	1,024	1,687,803,924	1,673,233,991	6,421	7,538	262,857	221,973	7.9	7.4
충남	33	43	608	771	989,685,749	1,176,593,712	4,650	5,713	212,836	205,950	7.6	7.4
전북	48	51	950	1,215	1,511,786,396	1,702,374,731	6,990	8,203	216,278	207,531	7.4	6.8
전남	59	38	614	558	876,091,897	777,346,921	4,496	4,016	194,860	193,562	7.3	7.2
경북	50	49	1,149	1,042	2,167,494,811	1,697,512,635	7,943	6,914	272,881	245,518	6.9	6.6
경남	34	37	652	683	1,341,463,560	1,246,010,322	5,201	5,243	257,924	237,652	8.0	7.7
제주	7	6	97	76	157,164,900	63,525,150	687	560	228,770	113,438	7.1	7.4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1.

○ '11년 시장형사업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사업단수는 경기도가 128개로 가장 많음. 참여인원은 경기(2,199명), 부산(1,719명), 강원(1,488명), 인천(1,266명), 서울(1,172명), 경북(1,149명)순으로 나타남

○ 월평균 보수는 울산이 429천원으로 다른지역에 비해 높음. 총 참여개월은 대구(8.4개월), 울산(8.2개월)로 나타남

<표 2-2-13> 2011년 시장형 기관유형별 참여기간 및 보수수준

(기준 : 2011.12.31, 단위 : 개, 명, 원, 개월)

구분	사업단 (개)	참여 인원 (누적,A)	보수총액(원) (1~12월,B)	총 참여 개월(C)	1인당	
					월평균 보수(원) (B/C)	평균참여 기간(개월) (C/A)
합계	682(100)	14,967	26,891,023,371	108,859	247,026	7.3
노인 복지관	104(15.2)	1,754	3,105,769,585	13,902	223,405	7.9
노인복지 센터	18(2.6)	403	467,442,813	2,484	188,181	6.2
대한 노인회	100(14.6)	2,311	4,003,832,522	17,554	228,087	7.6
시니어 클럽	374(54.3)	9,016	16,990,110,950	64,064	265,205	7.1
종합사회 복지관	33(4.8)	450	762,455,527	3,778	201,815	8.4
지역 문화원	2(0.2)	32	36,888,000	300	122,960	9.4
지자체	19(2.7)	171	201,861,740	1,052	191,884	6.2
기타	32(4.6)	830	1,322,662,234	5,725	231,033	6.9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1.

○ 시니어클럽이 시장형사업단의 54.3%를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노인 1인당 월평균보수도 265천원으로 타유형 수행기관에 비해 높게 나타남. 지역문화원은 참여노인 1인당 월평균보수가 122천원으로 타유형 수행기관보다 낮으나 평균참여 개월은 9.4개월로 가장 김

(5) 인력파견형

<표 2-2-14> 2011년 인력파견형 세부유형별 노인일자리 창출 실적

(기준 : 2011.12.31, 단위 : 개, %, 명)

대유형	중유형	소유형	사업단수		창출실적					참여노인수	
			사업단	비율	배정 일자리 사업량	비율	수행 일자리 사업량	비율	사업 단별 평균 일자 리수	참여 인원 (누적)	비율
인력파견형	2010 전체		223	100	8,383	100	8,781	100	39.4	8,781	100
	2011 전체		286	100	9,714	100	10,380	100	36.3	10,380	100
	일회성 파견사업	시험감독관 파견사업	25	8.7	960	9.9	1,062	10.2	42.9	1,062	10.2
		가정도우미 파견사업	10	3.5	233	2.4	108	1.0	10.8	108	1.0
		지역일손도우미 파견사업	47	16.4	1,226	12.6	1,222	11.8	26	1,222	11.7
		(기타) 일회성 통합사업	27	9.4	602	6.2	624	6.0	23.1	624	6.0
	지속파견 사업	주유원 파견사업	2	0.7	60	0.6	28	0.3	14	28	0.2
		경비원 파견사업	33	11.5	1,120	11.5	1,119	10.8	33.9	1,119	10.7
		청소 및 미화원 파견사업	17	5.9	504	5.2	582	5.6	34.2	582	5.6
		식당보조원 파견사업	1	0.3	16	0.2	13	0.1	13	13	0.1
		(기타) 지속 통합사업	124	43.4	4,993	51.4	5,622	54.2	45.3	5,622	54.1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1.

○ '11년 인력파견형은 전년대비 사업단수 63개 증가, 수행일자리 사업량 1,599개 증가함. 가장 많이 운영된 사업단은 (기타) 지속 통합사업(43.4%)이며 지역일손도우미 파견사업(16.4%), 경비원 파견사업(11.5%)순으로 나타남

○ 수행일자리 사업량은 (기타) 지속 통합사업이 전체의 54.2%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지역일손도우미 파견사업(11.8%), 경비원 파견사업(10.8%), 시험감독관 파견사업(10.2%) 순으로 분석됨. 참여인원 역시 (기타) 지속 통합사업이(54.1%)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지역일손도우미 파견사업(11.7%), 경비원 파견사업(10.7%)임

<표 2-2-15> 2011년 인력파견형 세부유형별 참여기간 및 보수수준

(기준 : 2011.12.31, 단위 : 개, 명, 원, 개월)

구분	사업단 (개)	참여 인원 (누적,A)	보수총액(원) (1~12월,B)	총 참여 개월(C)	1인당	
					월평균 보수(원) (B/C)	월평균참여 기간(개월) (C/A)
합계	286	10,380	35,501,520,658	54,726	648,714	5.3
시험감독관 파견사업	25	1,062	312,645,400	4,172	74,939	3.9
가정도우미 파견사업	10	108	122,083,950	546	223,597	5.1
지역일손도우미 파견사업	47	1,222	2,612,143,556	6,498	401,992	5.3
(기타)일회성 통합사업	27	624	583,053,301	2,604	223,907	4.2
주유원 파견사업	2	28	71,890,000	84	855,833	3.0
경비원 파견사업	33	1,119	5,315,430,236	5,676	936,475	5.1
청소 및 미화원 파견사업	17	582	2,034,052,998	2,654	766,410	4.6
식당보조원 파견사업	1	13	5,740,000	13	441,538	1.0
(기타) 지속 통합사업*	124	5,622	24,444,481,217	32,479	752,624	5.8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1.

○ 47개 사업단에서 지역일손도우미 파견사업을 운영, 1,222명의 노인을 수요처에 파견하였으며, 33개 사업단에서 경비원 파견사업을 통해 1,119명의 노인을 수요처에 파견

○ 시험감독관 파견사업은 타유형에 비해 참여자수는 1,062명으로 많지만 일회성 파견이 많아 1인당 월평균보수는 74,939원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1인당 월평균소득이 높은 사업은 경비원 파견사업(936천원), 주유원 파견사업(855천원), 청소 및 미화원 파견사업(766천원)의 순으로 나타남

<표 2-2-16> 2011년 인력파견형 시·도별 참여기간 및 보수수준

(기준 : 2011.12.31, 단위 : 개, 명, 원, 개월)

구분	사업단(개)		참여인원(누적,A)		보수총액(원)(1~12월,B)		총 참여개월(C)		1인당			
	'11년	'10년	'11년	'10년	'11년	'10년	'11년	'10년	월평균 보수(원)(B/C)	'10년	평균 참여기간(개월)(C/A)	'10년
합계	286	223	10,380	8,781	35,501,520,658	28,567,703,292	54,726	47,469	648,714	601,818	5.3	5.4
서울	31	15	780	638	1,367,635,848	733,716,824	4,503	3,384	303,717	216,819	5.8	5.3
부산	10	9	975	801	4,735,499,188	3,247,321,809	6,799	5,027	696,499	645,976	7.0	6.3
대구	9	9	582	565	2,602,046,002	2,201,679,150	3,195	2,933	814,412	750,658	5.5	5.2
인천	16	13	1,143	875	4,469,487,449	3,602,375,570	6,554	5,209	681,948	691,568	5.7	6.0
광주	7	4	453	342	982,450,567	650,317,383	1,410	879	696,773	739,838	3.1	2.6
대전	5	7	268	598	851,817,950	3,153,217,460	1,134	4,678	751,162	674,052	4.2	7.8
울산	7	8	248	279	1,403,161,430	1,184,250,000	1,536	1,375	913,517	861,273	6.2	4.9
경기	77	70	2,446	2,291	8,373,435,610	7,001,757,359	11,873	12,457	705,250	562,074	4.9	5.4
강원	6	6	289	247	1,157,665,100	908,805,820	1,604	1,266	721,736	717,856	5.6	5.1
충북	11	12	420	287	1,479,458,513	1,091,130,820	1,973	1,518	749,852	718,795	4.7	5.3
충남	14	9	278	168	728,476,320	190,809,800	1,105	431	659,255	442,714	4.0	2.6
전북	32	21	569	483	927,944,027	854,146,236	2,832	1,952	327,664	437,575	5.0	4.0
전남	20	8	303	137	471,751,790	117,440,880	1,822	559	258,920	210,091	6.0	4.1
경북	19	11	681	489	1,936,080,084	1,162,639,010	3,463	2,283	559,076	509,259	5.1	4.7
경남	20	19	829	495	3,375,910,780	2,023,540,171	4,131	2,834	817,214	714,023	5.0	5.7
제주	2	2	116	86	638,700,000	444,555,000	792	684	806,439	649,934	6.8	8.0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1.

○ 시·도별 사업단수는 경기(77개), 전북(32개), 서울(31개), 전남·경남(20개)의 순으로 나타남. 누적참여인원은 경기(2,446명), 인천(1,143명), 부산(975명), 경남(829명), 서울(780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국 월평균보수(648천원)보다 낮은 시·도는 전북(327천원), 서울(303천원), 전남(258천원)이며 울산(913천원)이 평균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1인당 평균 참여개월 수는 5.3개월이며 부산이 7개월로 가장 김

<표 2-2-17> 2011년 인력파견형 기관유형별 참여기간 및 보수수준

(기준 : 2011.12.31, 단위 : 개, 명, 원, 개월)

구분	사업단 (개)	참여 인원 (누적,A)	보수총액(원) (1~12월,B)	총 참여 개월(C)	1인당	
					월평균 보수(원) (B/C)	평균참여 기간(개월) (C/A)
합계	286	10,380	35,501,520,658	54,726	648,714	5.3
노인복지관	68	1,887	5,532,907,240	8,978	616,274	4.8
노인복지센터	13	193	223,916,536	938	238,717	4.9
대한노인회	59	1,155	3,490,808,486	6,245	558,977	5.4
시니어클럽	90	3,805	13,244,545,074	21,169	625,658	5.6
종합사회 복지관	8	141	371,537,900	502	740,115	3.6
지자체	2	22	36,638,400	94	389,770	4.3
기타	46	3,177	12,601,167,022	16,800	750,069	5.3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1.

○ 수행기관별로 시니어클럽(90개), 노인복지관(68개), 대한노인회(59개)순으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니어클럽이 1인당 평균 참여개월 수가 가장 길며 월평균보수는 기타(75만원)와 종합사회복지관(74만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6) 창업모델형

<표 2-2-18> 2011년 창업모델형 세부유형별 노인일자리 창출 실적

(기준 : 2011.12.31, 단위 : 개, 명)

대유형	중유형	소유형	사업단	배정 일자리 사업량	수행 일자리 사업량	참여 인원 (누적)
계	2010 전체		61	645	611	611
창업 모델형	2011 전체		55	563	519	519
	창업모델형	창업모델형(계속사업)	55	563	519	519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1.

○ '11년 창업모델형 사업은 전년도 대비 사업단수 6개 감소, 수행일자리사업량 92개 감소, 참여인원도 92명 감소함

3. 노인일자리사업 운영현황

1) 사업운영현황

(1) 사업운영추이

<표 2-3-1>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및 사업단 수 추이(연도별)

(기준 : 2011.12.31, 단위 : 개, 자리,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수행기관수	915		976		1,115		1,136		1,214	
사업단수	2,547		3,009		4,343		4,441		5,014	
수행기관 평균 사업단수	2.8		3.1		3.9		3.9		4.1	
수행일자리 사업량	115,646		126,370		222,616		216,441		220,346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103,415 (89.4)	12,231 (10.6)	110,389 (87.4)	15,981 (12.6)	195,797 (88.0)	26,818 (12.0)	191,676 (88.6)	24,765 (11.4)	194,480 (88.3)	25,866 (11.7)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07-2011.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및 사업단 수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2007년 915개의 기관에서 2011년 1,214개로, 사업단수 역시 2,547개에서 5,014개로 증가함. 수행기관별 평균사업단수는 2.8개에서 4.1개로 증가함. 수행일자리 사업량 역시 115,646개에서 220,346개로 증가함

(2) 월별운영현황

<표 2-3-2> 2011년 월별 사업단 운영비율(사업유형별)

(기준 : 2011.12.31, 단위 : %)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0년 전체		25.5	87.1	95.8	97.0	97.8	98.1	98.2	96.8	86.6	66.2	48.8
2011년 전체		88.8	96.8	97.7	98.4	98.8	99.1	99.2	99.6	100	99.9	100
공공	공익	93.2	97.1	98.1	98.6	98.9	99.2	99.3	99.6	100.0	99.9	100.0
	교육	84.7	97.2	98.3	99.4	99.9	99.9	100.0	100.0	100.0	100.0	100.0
	복지	94.9	97.9	98.0	98.0	98.2	98.4	98.5	99.3	100.2	100.0	100.0
민간	시장	71.3	93.1	95.3	96.9	97.9	99.0	99.3	99.4	99.3	99.4	100.0
	인력파견	87.9	98.6	99.3	100.7	100.7	101.4	101.8	102.5	102.1	102.1	102.1
	창업	103.6	103.6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07-2011.

○ '11년 노인일자리사업은 2월부터 시작되고 3월부터 주요사업이 96.8%정도 운용되며 12월까지 지속되는 경향을 보임.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 창업형은 1월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전년도의 경우 3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어 10월까지 지속된 것에 비해 '11년도는 사업시작기간이 좀 더 빠르고 지속기간도 긴 것으로 나타남

<표 2-3-3> 2011년 월별 참여노인참여비율

(기준 : 2011.12.31, 단위 : %)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0년 전체		11.8	67.6	78.4	79.9	80.7	76.4	54.9	77.1	58.3	33.1	15.9
2011년 전체		3.9	63.4	79.1	79.6	80.4	77.9	52.9	80.0	66.2	35.7	16.4
공공	공익	2.5	66.1	81.2	81.3	81.9	77.7	48.1	80.7	67.0	33.5	10.5
	교육	0.5	62.2	88.0	89.4	90.3	90.2	58.9	90.7	74.9	37.3	12.2
	복지	2.8	66.8	83.0	84.1	84.8	84.1	64.0	84.7	63.0	30.4	14.2
민간	시장	18.6	53.6	65.3	66.5	68.1	68.4	65.4	69.1	68.6	65.3	62.2
	인력파견	12.0	25.1	31.4	34.7	35.8	40.2	38.8	42.2	51.3	46.6	52.4
	창업	51.6	58.4	62.6	61.7	62.2	57.4	51.4	53.8	46.2	50.7	49.7

기타 : 실버인력뱅크(경기, 17개),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경남 · 북, 6개), 노인개발센터(인천,4개), 노인보호전문기관(14개), 자활센터(10개), 보건소(6개), 관리공단(4개), 기타 복지단체 등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1.

○ '11년 사업유형별 노인 참여비율을 살펴보면 2월에는 3.9%로서 저조하나 3월부터 63.4%의 높은 참여비율을 보임. 특히 4~7월, 9월의 참여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11월 이후는 참여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3) 시 · 도별 사업 운영현황

<표 2-3-4>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 시 · 도별 수행기관별 현황

(기준 : 2011.12.31, 단위 : 개, ( ) : 비율)

시 · 도	합계	지자체	시니어 클럽	대한 노인회	노인 복지관	종합사회 복지관	노인 복지센터	지역 문화원	기타*
2010년 전체	1,136	177	89	201	178	158	153	25	155
2011년 합계	1,214	204	95	208	189	167	160	26	165
서울	172 (14.2)	18 (10.5)	4 (2.3)	24 (14.0)	33 (19.2)	48 (27.9)	21 (12.2)	1 (0.6)	23 (13.4)
부산	99 (8.2)	13 (13.1)	6 (6.1)	16 (16.2)	15 (15.2)	36 (36.4)	5 (5.1)	0 (0.0)	8 (8.1)
대구	45 (3.7)	8 (17.8)	7 (15.6)	3 (6.7)	6 (13.3)	4 (8.9)	15 (33.3)	0 (0.0)	2 (4.4)
인천	46 (3.8)	10 (21.7)	2 (4.3)	3 (6.5)	10 (21.7)	3 (6.5)	9 (19.6)	1 (2.2)	8 (17.4)
광주	37 (3.0)	0 (0.0)	4 (10.8)	4 (10.8)	6 (16.2)	4 (10.8)	9 (24.3)	1 (2.7)	9 (24.3)
대전	37 (3.0)	5 (13.5)	5 (13.5)	6 (16.2)	6 (16.2)	6 (16.2)	1 (2.7)	5 (13.5)	3 (8.1)
울산	24 (2.0)	5 (20.8)	2 (8.3)	5 (20.8)	8 (33.3)	3 (12.5)	0 (0.0)	0 (0.0)	1 (4.2)
경기	179 (14.8)	30 (16.8)	17 (9.5)	40 (22.3)	39 (21.8)	17 (9.5)	3 (1.7)	2 (1.1)	31 (17.3)
강원	69 (5.7)	16 (23.2)	7 (10.1)	16 (23.2)	5 (7.2)	5 (7.2)	9 (13.0)	2 (2.9)	9 (13.0)
충북	50 (4.1)	10 (20.0)	8 (16.0)	10 (20.0)	14 (28.0)	2 (4.0)	1 (2.0)	1 (2.0)	4 (8.0)
충남	66 (5.4)	14 (21.2)	3 (4.5)	16 (24.2)	9 (13.6)	4 (6.1)	6 (9.1)	1 (1.5)	13 (19.7)
전북	112 (9.2)	14 (12.5)	11 (9.8)	14 (12.5)	14 (12.5)	9 (8.0)	32 (28.6)	4 (3.6)	14 (12.5)

시 · 도	합계	지자체	시니어 클럽	대한 노인회	노인 복지관	종합사회 복지관	노인 복지센터	지역 문화원	기타*
전남	106 (8.7)	22 (20.8)	3 (2.8)	19 (17.9)	13 (12.3)	9 (8.5)	20 (18.9)	5 (4.7)	15 (14.2)
경북	73 (6.0)	18 (24.7)	9 (12.3)	14 (19.2)	4 (5.5)	9 (12.3)	6 (8.2)	1 (1.4)	12 (16.4)
경남	91 (7.5)	18 (19.8)	5 (5.5)	18 (19.8)	6 (6.6)	8 (8.8)	22 (24.2)	2 (2.2)	12 (13.2)
제주	8 (0.7)	3 (37.5)	2 (25.0)	0 (0.0)	1 (12.5)	0 (0.0)	1 (12.5)	0 (0.0)	1 (12.5)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1.

○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임. 서울, 부산 등 광역시의 경우에는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의 비중이 높음. 제주, 경북, 강원지역에서는 지자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4) 수행기관

<표 2-3-5> 2011년 기관유형별, 사업유형별 인원

(기준 : 2011.12.31, 단위 : 자리, ( ) : 비율)

기관유형	참여인원 (누적)	공익형 참여인원	교육형 참여인원	복지형 참여인원	시장형 참여인원	인력파견형 참여인원	창업모델형 참여인원
합계	246,782 (100.0)	150,033 (100.0)	21,349 (100.0)	49,534 (100.0)	14,967 (100.0)	10,380 (100.0)	519 (100.0)
노인복지관	46,875 (19.0)	20,364 (13.6)	9,245 (43.3)	13,572 (27.4)	1,754 (11.7)	1,887 (18.2)	53 (10.2)
노인복지센터	10,072 (4.1)	2,550 (1.7)	572 (2.7)	6,349 (12.8)	403 (2.7)	193 (1.9)	5 (1.0)
대한노인회	36,373 (14.7)	23,757 (15.8)	3,325 (15.6)	5,791 (11.7)	2,311 (15.4)	1,155 (11.1)	34 (6.6)
시니어클럽	35,628 (14.4)	12,428 (8.3)	3,643 (17.1)	6,328 (12.8)	9,016 (60.2)	3,805 (36.7)	408 (78.6)
종합사회 복지관	15,898 (6.4)	7,052 (4.7)	1,271 (6.0)	6,981 (14.1)	450 (3.0)	141 (1.4)	3 (0.6)
지역문화원	933 (0.4)	220 (0.1)	466 (2.2)	215 (0.4)	32 (0.2)	0 (0.0)	0 (0.0)
지자체	83,410 (33.8)	76,823 (51.2)	990 (4.6)	5,404 (10.9)	171 (1.1)	22 (0.2)	0 (0.0)
기타	17,593 (7.1)	6,839 (4.6)	1,837 (8.6)	4,894 (9.9)	830 (5.5)	3,177 (30.6)	16 (3.1)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1.

○ '11년 수행기관별 참여인원은 지자체가 83,410명으로 전체의 3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노인복지관이 전체의 19%임. 공익형의 경우 지자체가 51.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교육형은 노인복지관의 비율이 43.3%로 가장 높음. 파견형은 시니어클럽이 36.7%로 가장 높음. 대한노인회의 경우는 각 유형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며 시니어클럽의 경우 파견형 참여인원이 36.7%, 시장형 60.2%, 창업모델형 78.6%로 가장 높음

(5) 신규·계속사업 현황

<표 2-3-6> 사업유형별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현황

(기준 : 2011.5.31, 단위 : 개, %)

사업유형	전체사업수	계속사업수	비율	신규사업수	비율
합계	4,932	3,587	72.7	1,345	27.3
공익형	1,650	1,248	75.6	402	24.4
교육형	953	613	64.3	340	35.7
복지형	1,331	973	73.1	358	26.9
시장형	661	498	75.3	163	24.7
인력파견형	282	200	70.9	82	29.1
창업모델형	55	55	100.0	0	0.0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1.

○ 전체 노인일자리사업 중 '11년 신규로 운영된 사업 비중은 27.3%이며 계속 사업단 수의 비율은 72.7%로 나타남. 교육형사업의 신규사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3-7> 기관유형별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현황

(기준 : 2011.5.31, 단위 : 개, %)

기관유형	전체사업수	계속사업수	비율	신규사업수	비율
합계	4,932	3,587	72.7	1,345	27.3
노인복지관	1,240	937	75.6	303	24.4
노인복지센터	316	223	70.6	93	29.4
대한노인회	810	597	73.7	213	26.3
시니어클럽	934	683	73.1	251	26.9
종합사회복지관	478	367	76.8	111	23.2
지역문화원	41	36	87.8	5	12.2
지자체	695	456	65.6	239	34.4
기타	418	288	68.9	130	31.1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1.

○ '11년 수행기관별 신규사업단 비율은 지자체가 34.4%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6) 전담인력현황

<표 2-3-8> 전담인력 추이

(기준 : 2011.10.31, 단위 : 개, 명)

연도	수행기관수	전담인력수[1)]
2007	915	733
2008	976	976
2009	1,115	1634
2010	1,136	1,654
2011	1,214	1,933

주1) : 2011년 전담인력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Database를 바탕으로 2011년 10월 기준으로 산정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운영실태조사, 2011.

○ 노인일자리사업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인 전담인력은 '07년 733명에서 '11년 현재 1,93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전담인력을 운영하는 수행기관수도 915개에서 1,214개로 증가함

<표 2-3-9> 시 · 도별 전담인력 현황

(기준 : 2011.10.31, 단위 : 명, 천원, %)

구분	확정내시 채용인원	확정내시목표예산(A)		총집행 예산(B)	목표대비 집행율 (B/A)*100	누적 채용인원		평균 참여기간
		국비	지방비			'11년	'10년	
총계	1,600	12,960,000		10,466,434	1,321.8	1,933	1,654	7.2
		6,063,660	6,896,340					
서울	257	2,081,700		1,734,670	83.3	313	275	7.1
		624,510	1,457,190					
부산	114	923,400		869,188	94.1	180	146	6.2
		461,700	461,700					
대구	83	672,300		541,856	80.6	106	94	7.3
		336,150	336,150					
인천	78	631,800		538,404	85.2	110	88	7
		315,900	315,900					
광주	45	364,500		362,173	99.4	56	53	7.2
		182,250	182,250					
대전	51	413,100		373,619	90.4	61	57	7.5
		206,550	206,550					
울산	29	234,900		205,075	87.3	40	28	7.1
		117,450	117,450					
경기	226	1,830,600		1,189,542	65.0	227	223	7.2
		915,300	915,300					
강원	81	656,100		582,893	88.8	105	89	7.6
		328,050	328,050					
충북	53	429,300		316,146	73.6	64	53	7.2
		214,650	214,650					
충남	93	753,300		666,893	88.5	115	115	7.2
		376,650	376,650					

구분	확정내시 채용인원	확정내시목표예산 (A)		총집행 예산(B)	목표대비 집행율 (B/A)*100	누적 채용인원		평균 참여기간
		국비	지방비			'11년	'10년	
전북	114	923,400		818,278	88.6	160	109	8
		461,700	461,700					
전남	132	1,069,200		782,704	73.2	138	104	7.8
		534,600	534,600					
경북	116	939,600		699,522	74.4	132	118	7.2
		469,800	469,800					
경남	109	882,900		672,804	76.2	105	84	7.8
		441,450	441,450					
제주	19	153,900		112,666	73.2	21	18	6.1
		76,950	76,950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운영실태조사, 2011.

○ '11년 10월 기준으로 총 1,933명의 전담인력 채용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279명 증가함

○ 확정내시 채용인원 대비 누적채용인원 20.8% 증가함. 확정내시 목표예산 대비 집행율이 높은 시·도는 광주(99.4%), 부산(94.1%)으로 나타남. 평균 근무기간은 7.2개월로 분석됨

<표 2-3-10> 기관유형별 전담인력 현황

(기준 : 2011.10.31, 단위 : 명)

기관유형	2010년		2011년	
	누적인원	당월인원	누적인원	당월인원
지자체	320	249	334	265
시니어클럽	289	210	417	289
대한노인회	242	182	270	219
노인복지관	407	312	449	327
종합사회복지관	146	106	158	119
노인복지센터	79	64	136	87
지역문화원	6	6	7	6
기타	167	113	162	123
합계	1656	1242	1933	1435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운영실태조사, 2011.

○ 수행기관별로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노인복지관(449명), 시니어클럽(417명), 지자체(334명) 순임

<표 2-3-11> 전담인력 인원수

(기준 : 2011.10.31, 단위 : 명, %)

전담인력 인원수	기관수	비율
1	259	39.4
2	119	18.1
3	38	5.8
4	28	4.3
5	18	2.7
있음	462	70.3
없음	195	29.7
합계	657	100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운영실태조사, 2011.

○ 운영실태에서 분석된 총 657개 기관중 전담인력을 1명을 고용한 기관이 39.4%로 나타남. 전담인력 비운영기관은 29.7%로 나타남

<표 2-3-12> 전담인력 현황-교육수준별, 성별

(기준 : 2011.10.31, 단위 : 명, %)

구분		인원	비율
성별	여성	625	74.1
	남성	218	25.9
학력수준	중졸	22	2.6
	고졸	226	26.8
	대졸	540	64.1
	석사이상	55	6.5
전공분야	사회복지학	454	53.9
	비 사회복지학	389	46.1
합계		843	100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운영실태조사, 2011.

○ 전담인력의 성별 구성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3배정도 높은 74.1%로 나타남. 학력별로는 대졸이 64.1%로 가장 높으며 석사이상도 6.5%로 나타남. 사회복지학 전공율이 53.9%로 나타남

2) 재정투입현황

<표 2-3-13>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집행 현황(사업유형별, 예산주체별)

(기준 : 2011.10.31, 단위 : 원, ( ) : %)

구분	총액	국비	시 · 도비	시 · 군 · 구비	민간부담
2010[1)]	309,800,641 (100.0)	128,315,375 (41.1)	85,204,168 (27.5)	95,882,319 (30.9)	398,779 (0.1)
2011	311,621,426,105 (100.0)	132,226,512,473 (42.4)	88,642,594,388 (28.4)	89,724,910,997 (28.7)	1,027,408,247 (0.3)
공익형	194,921,519,718	79,991,696,911	54,528,311,252	59,932,062,475	469,449,080
교육형	31,236,977,415	14,246,531,128	9,216,236,907	7,694,662,991	79,546,389
복지형	68,685,895,925	30,728,360,963	20,135,397,567	17,779,509,486	42,627,909
시장형	15,437,226,398	6,681,370,695	4,382,354,030	4,026,434,340	347,067,333
창업모델	88,717,536	0	0	0	88,717,536
인력파견형	1,251,089,113	578,552,776	380,294,632	292,241,705	0

주1) : 2010년 자료는 천원을 기준으로 함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1.

○ ’11년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은 약 3,116억원으로 ‘10년 약 3,098억원에 비해 18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 중 국비가 약 1,322억원 가량으로 약 42.4%를 차지하였으며, 민간부담액은 약 0.3%를 차지함

○ 사업유형별로는 공익형에 투입된 예산액이 가장 많으며, 창업모델형은 100% 민간부담액으로 진행됨

<표 2-3-14>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집행 현황(시 · 도별, 예산주체별)

(기준 : 2011.10.31, 단위 : 원)

구분	총액	국비	시 · 도비	시 · 군 · 구비	민간부담
2010[1)]	309,800,641	128,315,375	5,204,168	95,882,319	398,779
2011	311,615,426,105	132,223,512,473	88,639,594,388	89,724,910,997	1,027,408,247
서울	46,414,003,973	13,260,414,884	16,350,339,331	16,790,549,528	12,700,230
부산	19,786,467,191	9,805,293,367	9,759,466,897	171,242,257	50,464,670
대구	15,622,684,649	7,350,998,292	7,350,998,248	892,655,114	28,032,995
인천	19,663,715,719	6,404,245,946	6,404,245,386	6,787,787,847	67,436,540
광주	8,200,579,381	4,003,398,291	4,195,398,236	0	1,782,854
대전	11,980,036,269	4,741,354,925	7,195,848,593	21,590,291	21,242,460
울산	6,103,217,753	2,859,942,837	2,859,942,816	381,452,954	1,879,146
경기	39,700,760,236	19,179,351,740	9,622,286,927	10,741,968,148	157,153,421
강원	17,339,319,212	7,373,890,677	1,700,507,375	8,222,522,050	42,399,110
충북	11,694,360,648	4,887,106,056	652,668,175	6,146,484,582	8,101,835
충남	16,978,220,304	8,309,307,353	2,582,610,807	6,084,061,413	2,240,731
전북	23,914,804,614	10,270,594,910	4,175,770,372	9,463,196,362	5,242,970
전남	25,000,124,984	11,857,619,465	5,926,760,968	6,748,772,216	466,972,335
경북	24,606,982,378	10,462,271,394	3,229,033,037	10,756,285,351	159,392,596
경남	20,964,502,194	9,648,009,641	4,824,004,524	6,490,121,675	2,366,354
제주	3,645,646,600	1,809,712,695	1,809,712,696	26,221,209	0

주1) : 2010년 자료는 천원을 기준 단위로 함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1.

○ '11년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집행 총액은 시·도별로 서울, 경기 등이 많았으며, 전남은 민간부담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3-15>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집행 현황-공공분야(세부사업별, 예산주체별)

(기준 : 2011.12.31, 단위 : 원)

구분	소유형	총액	국비	시 · 도	시 · 군 · 구	민간
공익형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사업	15,881,767,150	5,807,982,593	5,197,412,511	4,876,362,046	10,000
	폐현수막재활용사업	2,344,585,380	1,059,891,172	710,503,725	574,190,483	0
	폐의약품회수사업	2,532,553,825	1,233,523,676	584,398,489	714,631,660	0
	자전거 보관관리 및 수리지원사업	529,326,126	227,295,223	189,316,511	112,714,392	0
	친환경 EM활용사업	2,741,848,191	1,205,780,918	666,861,485	869,205,788	0
	지역사회 환경개선 보호사업	102,531,103,993	43,279,257,670	26,481,024,647	32,304,190,236	466,631,440
	지역사회 문화재 관리 지원사업	2,555,579,599	1,195,402,322	471,890,313	886,322,964	1,964,000
	주정차질서계도 지원사업	3,493,234,607	1,533,710,701	1,192,415,783	766,458,123	650,000
	지하철이용질서 계도사업	2,821,025,415	1,221,705,196	1,367,391,055	1,367,391,055	0
	스쿨존교통 지원사업	25,850,703,540	11,285,873,276	7,152,038,402	7,412,785,762	6,100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2,339,616,500	1,074,459,532	672,957,326	592,199,642	0
	생활근린시설 관리지원사업	8,274,063,212	3,522,738,573	2,263,902,129	2,487,422,510	0
	공공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관리지원사업	11,501,113,704	3,609,774,078	3,865,195,472	4,025,956,614	187,540
	묘지조사원	8,879,430	2,663,829	3,107,797	3,107,804	0
	기타(지역특화)사업	11,516,119,046	3,731,638,152	3,709,895,607	4,074,585,287	0
교육형	1-3세대 강사파견사업	14,785,466,516	6,796,751,856	4,493,939,296	3,450,841,632	43,933,732
	노-노교육 강사파견사업	6,121,400,027	2,725,899,695	1,546,271,792	1,847,706,973	1,521,567
	체육건강 강사파견사업	1,040,596,794	500,001,086	251,292,263	289,298,025	5,420

구분	소유형	총액	국비	시·도	시·군·구	민간
교육형	숲생태해설사업	1,777,283,948	791,299,236	551,119,935	408,360,717	26,504,060
	문화재해설사업	1,547,447,939	734,208,672	459,041,371	354,197,896	0
	기타 안내지원사업	1,241,367,631	584,195,914	475,352,935	181,818,782	0
	노인일자리 모니터링사업	903,730,276	382,727,176	324,514,288	196,354,812	134,000
	기타(지역특화)사업	3,810,489,174	1,726,849,938	1,113,785,516	962,406,110	7,447,610
복지형	독거노인 돌봄 지원사업(노노케어)	23,860,064,071	10,662,775,261	7,172,145,122	5,990,006,933	35,136,755
	거동불편노인 돌봄 지원사업(노노케어)	17,281,439,411	7,804,243,943	4,878,317,453	4,595,604,411	3,273,604
	생활시설이용자 돌봄 지원사업(노노케어)	4,348,139,090	1,825,400,291	1,247,257,727	1,275,381,072	100,000
	노인학대예방사업	3,136,831,595	1,452,527,940	845,555,748	838,739,077	8,830
	장애인 돌봄지원사업	1,146,690,115	489,395,484	344,688,035	312,606,596	0
	청소년 보호지원사업	2,477,316,681	1,049,001,359	741,460,521	686,854,801	0
	지역아동센터 연계지원사업	4,805,074,185	2,199,990,035	1,368,661,238	1,236,422,912	0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642,203,362	239,409,135	189,721,972	213,072,255	0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282,617,090	137,052,546	69,944,243	75,620,301	0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1,907,057,250	858,227,972	521,211,927	527,617,351	0
	문화복지 지원사업	1,624,155,840	756,152,638	455,885,875	412,117,327	0
	기타(지역특화)사업	7,174,307,235	3,254,184,359	2,300,547,706	1,615,466,450	4,108,720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 공공분야 중 공익형의 지역사회환경개선보호사업의 예산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밖에 교육형에서는 1-3세대 강사파견사업, 복지형의 경우 독거노인 돌봄지원사업이 예산투입액이 많은 사업인 것으로 확인됨

<표 2-3-16>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집행 현황-민간분야(세부사업별, 예산주체별)

(기준 : 2011.12.31, 단위 : 원)

구분	소유형	총액	국비	시·도	시·군·구	민간
시장형	공동작업장운영사업	4,329,235,734	1,916,558,777	1,332,721,497	1,060,943,635	19,011,825
	지역영농사업	1,805,369,638	566,134,951	408,130,720	829,724,875	1,379,092
	특산물제작 및 판매사업	377,507,388	178,847,446	103,913,944	94,345,998	400,000
	식품제조 및 판매사업	3,199,021,592	1,404,867,613	695,080,981	858,168,237	240,904,761
	매장운영사업	698,804,609	321,095,122	174,330,834	166,693,764	36,684,889
	공산품제작 및 판매사업	924,913,467	414,875,322	246,501,514	248,992,284	14,544,347
	아파트택배	1,242,235,056	566,053,244	477,282,303	195,548,429	3,351,080
	지하철택배	151,695,200	57,468,560	47,113,309	47,113,331	0
	세차 및 세탁사업	326,115,989	161,882,997	116,973,517	44,909,475	2,350,000
	기타 서비스사업	2,382,327,725	1,093,586,663	780,305,411	479,994,312	28,441,339
인력파견형	시험감독관 파견사업	95,809,613	43,236,563	29,978,496	22,594,554	0
	가정도우미 파견사업	33,088,112	12,994,057	8,809,514	11,284,541	0
	지역일손도우미 파견사업	143,538,080	70,194,042	30,333,602	43,010,436	0
	(기타)일회성 통합사업	73,678,979	33,032,451	17,179,272	23,467,256	0
	주유원 파견사업	6,065,610	3,032,805	909,840	2,122,965	0
	경비원 파견사업	148,368,225	71,631,098	52,308,163	24,428,964	0
	청소 및 미화원 파견사업	61,081,091	26,474,647	17,256,079	17,350,365	0
	식당보조원 파견사업	1,577,750	788,875	394,437	394,438	0
	(기타) 지속 통합사업	687,881,653	317,168,238	223,125,229	147,588,186	0
창업모델형	-	88,717,536	0	0	0	88,717,536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1.

○ 민간분야 중 시장형은 공동작업장 운영사업과 식품제조 및 판매사업의 예산투입액이 많으며 인력파견형의 경우는 (기타) 지속 통합사업의 예산투입액이 많음

3) 공공분야 일자리 탄력적용사업 현황

<표 2-3-17> 2011년 세부유형별 탄력적용사업* 운영현황

(기준 : 2011.12.31, 단위 : 자리, 명, 원)

구분	사업명	사업단수	배정일자리 사업량	수행일자리 사업량	참여인원 (누적)	1인당 월평균 보수
합계		193	4,251	4,312	4,500	321,566
공익형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2	107	99	111	314,228
	지역사회 환경개선보호사업	17	2,236	2,282	2,672	276,493
	스쿨존교통지원사업	1	64	58	67	213,745
	생활근린시설 관리지원사업	1	11	9	17	618,549
	기타(지역특화)사업	5	310	424	376	557,803
교육형	1-3세대 강사파견사업	1	51	50	46	247,311
	노인일자리모니터링사업	137	352	338	371	338,108
	기타(지역특화)사업	5	75	71	62	238,908
복지형	독거노인 돌봄지원사업 (노노케어)	9	390	363	268	225,565
	거동불편노인 돌봄지원사업 (노노케어)	8	505	478	367	216,072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6	68	62	75	316,663
	기타(지역특화)사업	1	82	78	68	295,341

*탄력적용사업 :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사업들 중에서 야간 및 휴일근무 일자리, 노동 강도가 높은 일자리, 기타 지역특화사업 등에 근무시간 탄력적용 및 보수차등지급 시범사업을 실시.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1.

○ 탄력적용사업에 총 193개의 사업단이 참여, 4,312개의 일자리를 창출, 참여인원수는 4,500명임. 참여노인 1인당 보수는 321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생활근린시설 관리지원사업, 기타사업에서 보수가 높음

<표 2-3-18> 2011년 시·도별 탄력적용사업* 운영현황

(기준 : 2011.12.31, 단위 : 자리, 명)

시·도	사업단(개)				배정일자리 사업량	수행일자리 사업량	참여인원 (누적)
	소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총계	193(100)	26(13.4)	143(72.9)	24(12.4)	4,251	4,312	4,500
서울	2	1	1		96	91	84
부산	1		1		30	30	31
대구	8		8		16	16	16
인천	43	14	10	19	3,306	3,286	3,455
광주	1		1		20	21	25
대전	18	10	5	3	366	468	491
울산	5		5		8	8	14
경기	17		17		87	83	74
강원	16	1	15		74	71	55
충북	9		8	1	37	35	39
충남	13		13		24	21	27
전북	15		14	1	47	47	53
전남	22		22		43	40	44
경북	12		12		24	23	24
경남	9		9		18	18	18
제주	2		2		55	54	50

*탄력적용사업 :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사업들 중에서 야간 및 휴일근무 일자리, 노동 강도가 높은 일자리, 기타 지역특화사업 등에 근무시간 탄력적용 및 보수차등지급 시범사업을 실시.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1.

○ 인천지역이 탄력적용사업단이 43개로 가장 많았으며 전국적으로는 교육형이 143개로 가장 많음

4) 사고발생 현황

<표 2-3-19> 2011년 사고유형 및 산재보험 수혜 현황(누적)

(기준 : 2011.12.31, 단위 : 개)

사고유형		빈도	산재보험 수혜여부	
			급여	비급여
총계		97	81	16
공익형	골절	33	33	-
	염좌	3	2	1
	찰과상	4	4	-
	타박상	4	3	1
	기타(병충해 감염, 교통사고, 화상, 절상, 등)	24	17	7
교육형	골절	1	-	1
	기타(병충해 감염, 교통사고, 화상, 절상, 등)	1	-	1
복지형	골절	14	12	2
	염좌	2	2	-
	찰과상	2	2	-
	타박상	1	-	1
	기타(병충해 감염, 교통사고, 화상, 절상, 등)	2	1	1
시장형	염좌	2	2	-
	타박상	1	-	1
	기타(병충해 감염, 교통사고, 화상, 절상, 등)	3	3	-

주 : 산재보험 신청중인 사례도 산재보험을 수혜받은 것으로 산정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1.

○ 2011년도에도 총 97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공익형(68건), 복지형(21건), 시장형(6건), 교육형(2건)의 순으로 나타남. 공익형사업의 사고건수가 가장 많으며 이는 공익형사업이 타유형에 비해 참여인원 및 실외활동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적인 안전교육 등이 필요함

○ 주요 사고유형으로 골절(49.5%), 기타(30.9%)의 순으로 나타남. 사고발생자 중 83.5%(81명)가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받음.

* 기타 : 병충해 감염, 교통사고, 화상, 절상, 심장마비, 뇌출혈 등

<표 2-3-20> 연도별, 월별 사고발생빈도

(기준 : 2011.12.31, 단위 : 회)

구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계		445	29	85	56	56	85	97
공익형	2월	2	-	-	-	1	1	-
	3월	23	2	2	4	7	8	13
	4월	34	-	6	11	8	9	11
	5월	17	1	6	2	5	3	10
	6월	24	-	5	6	3	10	10
	7월	31	4	13	5	2	7	8
	8월	19	9	3	2	4	1	6
	9월	22	1	9	2	3	7	5
	10월	18	2	3	2	4	7	3
	11월	7	-	1	4	2	-	2
	소계	284	19	48	38	39	53	68
교육형	2월	-	-	-	-	-	-	-
	3월	1	-	1	-	-	-	-
	4월	4	-	-	1	-	3	-
	5월	2	-	-	1	1	-	-
	6월	4	1	1	-	2	-	-
	7월	2	-	2	-	-	-	-
	8월	-	-	-	-	-	-	-
	9월	1	1	-	-	-	-	2
	10월	2	-	1	-	1	-	-
	11월	-	-	-	-	-	-	-
	소계	18	2	5	2	4	3	2
복지형	2월	-	-	-	-	-	-	-
	3월	4	-	1	1	1	1	3
	4월	12	1	5	2	1	3	2
	5월	10	-	3	2	1	4	2
	6월	11	-	3	5	-	3	3
	7월	15	2	6	1	2	4	6
	8월	9	1	5	-	1	2	1
	9월	2	-	1	-	-	1	1
	10월	5	1	1	-	-	3	3
	11월	4	-	-	-	2	2	-
	소계	111	25	11	8	23	23	21

구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시장형	2월	1	-	1	-	-	-	-
	3월	4	1	-	-	2	1	2
	4월	1	-	1	-	-	-	-
	5월	3	-	2	1	-	-	-
	6월	5	2	1	-	1	1	-
	7월	4	-	-	1	2	1	1
	8월	-	-	-	-	-	-	1
	9월	3	-	2	-	-	1	1
	10월	3	-	-	2	-	1	1
	11월	1	-	-	1	-	-	-
	소계	31	3	7	4	5	6	6
인력파견형	2월	-	-	-	-	-	-	-
	3월	-	-	-	-	-	-	-
	4월	-	-	-	-	-	-	-
	5월	-	-	-	-	-	-	-
	6월	-	-	-	-	-	-	-
	7월	-	-	-	-	-	-	-
	8월	-	-	-	-	-	-	-
	9월	-	-	-	-	-	-	-
	10월	1	-	-	1	-	-	-
	11월	-	-	-	-	-	-	-
	소계	1	-	-	1	-	-	-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1.

○ 2006~2011년 기간 동안 공익형사업에서 사고발생빈도(265건)가 가장 많고, 복지형(111건), 시장형(31건), 교육형(18건), 인력파견형(1건)의 순으로 나타남. 월별로는 공익형은 4~7월에 사고발생빈도가 많고, 교육형은 4~6월, 복지형은 4~7월, 시장형은 6~7월에 사고가 주로 발생

4. 참여노인

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분포

(1) 참여자 성별 현황

<표 2-4-1> 2011년 사업유형별·성별 참여자 현황(누적)

(기준 : 2011.12.31, 단위 : 명, %, ( ) : 비율)

구분	합계	공공분야			민간분야		
	총인원수 (비율)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 파견형	창업 모델형
합계	246,782 (100.0)	150,033 (60.8)	21,349 (8.7)	49,534 (20.1)	14,967 (6.1)	10,380 (4.2)	519 (0.1)
남성	88,416 (35.8)	56,843 (37.9)	10,467 (49.0)	9,945 (20.1)	4,994 (33.4)	6,069 (58.5)	98 (18.9)
여성	158,366 (64.2)	93,190 (62.1)	10,882 (50.9)	39,589 (79.9)	9,973 (66.6)	4,311 (41.5)	421 (81.1)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1.

○ 공익형 참여자비율이 전체의 60.8%로 대다수를 차지함

○ 남성(35.8%)보다 여성노인(64.2%)의 참여비중이 높음. 사업유형별로 보면 여성은 인력파견형(41.5%)을 제외하고 전 유형에서 남성보다 참여비중이 높음

○ 남성은 인력파견형(58.5%), 여성은 창업모델형(81.1%) 참여비중이 높음

<표 2-4-2> 2011년 세부사업별 참여자 성별현황(누적)

(기준 : 2011.12.31, 단위 : 명, ( ) : 비율)

유형	세부사업명	계	누적참여자(남)	누적참여자(여)
합계		246,782	88,416	158,366
공익형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11,903	1,194(10.0)	10,709(90.0)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1,742	628(36.1)	1,114(63.9)
	폐의약품 회수사업	1,835	834(45.4)	1,001(54.6)
	자전거 보관관리 및 수리지원사업	386	275(71.2)	111(28.8)
	친환경 EM활용사업	2,073	720(34.7)	1,353(65.3)
	지역사회 환경개선보호사업	81,700	29,823(36.5)	51,877(63.5)
	지역사회 문화재관리지원사업	1,809	872(48.2)	937(51.8)
	주정차질서 계도지원사업	2,754	1,769(64.2)	985(3.6)
	지하철이용질서 계도사업	2,037	1,329(65.2)	708(34.8)
	스쿨존교통지원사업	19,429	10,743(55.3)	8,686(44.7)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1,700	819(48.2)	881(51.8)
	생활근린시설 관리지원사업	6,554	2,799(42.7)	3,755(57.3)
	공공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관리지원사업	8,226	1,432(17.4)	6,794(82.6)
	묘지조사원	5	5(100.0)	0(0.0)
	기타(지역특화)사업	7,880	3,601(45.7)	4,279(54.3)
교육형	1-3세대 강사파견사업	10,041	4,295(42.8)	5,746(57.2)
	노-노교육 강사파견사업	4,196	2,314(55.1)	1,882(44.9)
	체육건강 강사파견사업	733	383(52.3)	350(47.7)
	숲생태해설사업	1,246	854(68.5)	392(31.5)
	문화재해설사업	1,112	865(77.8)	247(22.2)
	기타 안내지원사업	887	523(59.0)	364(41.0)
	노인일자리모니터링사업	377	310(82.2)	67(17.8)
	기타(지역특화)사업	2,757	923(33.5)	1,834(66.5)

유형	세부사업명	계	누적참여자(남)	누적참여자(여)
복지형	독거노인 돌봄지원사업(노노케어)	17,055	2,672(15.7)	14,383(84.3)
	거동불편노인 돌봄지원사업(노노케어)	12,153	1,696(14.0)	10,457(86.0)
	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사업(노노케어)	3,289	498(15.1)	2,791(84.9)
	노인학대예방사업	2,297	1,213(52.8)	1,084(47.2)
	장애인 돌봄지원사업	914	238(26.0)	676(74.0)
	청소년 보호지원사업	1,917	845(44.1)	1,072(55.9)
	지역아동센터 연계지원사업	3,536	349(9.9)	3,187(90.1)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461	15(3.3)	446(96.7)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203	24(0.2)	179(1.5)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1,336	934(69.9)	402(30.1)
	문화복지 지원사업	1,157	457(39.5)	700(60.5)
	기타(지역특화)사업	5,216	1,004(19.2)	4,212(80.8)
시장형	공동작업장운영사업	4,581	1,010(22.0)	3,571(78.0)
	지역영농사업	1,564	713(45.6)	851(54.4)
	특산물제작 및 판매사업	313	99(31.6)	214(68.4)
	식품제조 및 판매사업	2,869	516(18.0)	2,353(82.0)
	매장운영사업	668	74(11.1)	594(88.9)
	공산품제작 및 판매사업	859	179(20.8)	680(79.2)
	아파트택배	1,304	1,037(79.5)	267(20.5)
	지하철택배	131	108(82.4)	23(17.6)
	세차 및 세탁사업	313	149(47.6)	164(52.4)
	기타 서비스사업	2,365	1,109(46.9)	1,256(53.1)

유형	세부사업명	계	누적참여자(남)	누적참여자(여)
인력파견형	시험감독관 파견사업	1,062	908(85.5)	154(14.5)
	가정도우미 파견사업	108	2(1.9)	106(98.1)
	지역일손도우미 파견사업	1,222	279(22.8)	943(77.2)
	(기타)일회성 통합사업	624	318(51.0)	306(49.0)
	주유원 파견사업	28	25(89.3)	3(10.7)
	경비원 파견사업	1,119	929(83.0)	190(17.0)
	청소 및 미화원 파견사업	582	203(34.9)	379(65.1)
	식당보조원 파견사업	13	0(0.0)	13(100.0)
	(기타) 지속 통합사업	5,622	3,405(60.6)	2,217(39.4)
창업모델형	창업모델형(계속사업)	519	98(18.9)	421(81.1)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1.

○ 55개 세부사업 중 17개만이 남성참여자 비율이 높았으며, 택배사업과 질서계도분야에서 남성참여자의 비중이 높았으며 이는 외부근무, 장시간 근로 등 남성 참여자의 욕구 특성과 부합되는 것으로 분석됨

(2) 참여노인 연령별 현황

<표 2-4-3>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연령별추이

(기준 : 2011.12.31, 단위 : 명, %)

구분	'07년		'08년[1]		'09년		'10년		'11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합계	130,071	100.0	151,008	100.0	271,793	100.0	249,207	100.0	246,782	100.0
평균연령	70.8		71.0		71.2		71.6		72.4	
64세 이하	11,679	9.0	12,602	8.3	23,434	8.6	18,745	7.5	12,465	5.1
65~69세	43,445	33.4	49,037	32.5	83,186	30.6	69,928	28.1	59,201	24.0
70~74세	46,278	35.6	54,309	36.0	98,202	36.1	91,112	36.6	92,878	37.6
75~79세	21,852	16.8	26,776	17.7	51,275	18.9	53,121	21.3	62,344	25.3
80세 이상	6,817	5.2	8,284	5.5	15,696	5.8	16,301	6.5	19,894	8.1

주1) : 전체 참여자 중 데이터가 유효한 참여자수 분석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1.

○ '11년 기준으로 연령별로는 70~74세(37.6%)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65~69세(24%) 75~79세(25.3%)가 유사한 참여율을 보임. 또한 80세 이상도 8.1%로 참여비율이 높은 편임

○ '07~'11년 동안 64세이하의 참여율은 감소(9%→5.1%)하였으며, 80세 이상의 참여율은 증가(5.2%→8.1%)함. 75~79세의 연령대의 참여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함(16.8%→25.3%)

○ 연도별 참여자 연령대별 추이를 살펴보면, 60대 참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70대 이상 참여자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참여자 평균 연령대가 높아지는 추세임. 고령노인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표 2-4-4> 사업유형별 연령별 현황[1)]

(기준 : 2011.12.31, 단위 : 명, ( ) : 비율)

구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		창업모델형	
	'11년	'10년	'11년	'10년	'11년	'10년	'11년	'10년	'11년	'10년	'11년	'10년
합계	150,033 (100.0)	154,294 (100.0)	21,349 (100.0)	18,498 (100.0)	49,534 (100.0)	51,650 (100.0)	10,380 (100.0)	8,781 (100.0)	14,967 (100.0)	15,373 (100.0)	519 (100.0)	611 (100.0)
64세 이하	545 (0.3)	4,302 (2.8)	3,233 (15.1)	2,987 (16.1)	2,596 (5.2)	5,331 (10.3)	3,952 (38.1)	3,738 (42.6)	1,982 (13.2)	2,200 (14.3)	157 (30.3)	187 (30.6)
65~69세	29,804 (19.9)	38,946 (25.2)	6,458 (30.2)	5,947 (32.1)	14,293 (28.9)	16,665 (32.3)	4,025 (38.8)	3,299 (37.6)	4,442 (29.7)	4,822 (31.5)	179 (34.5)	249 (40.8)
70~74세	59,750 (39.8)	60,551 (39.2)	6,720 (31.5)	5,654 (30.6)	19,429 (39.2)	18,440 (35.7)	1,755 (16.9)	1,299 (14.8)	5,092 (34.0)	5,038 (32.8)	132 (25.4)	130 (21.3)
75~79세	44,645 (29.8)	38,152 (24.7)	3,928 (18.4)	3,099 (16.8)	10,638 (21.5)	9,011 (17.4)	514 (5.0)	361 (4.1)	2,574 (17.2)	2,461 (16.0)	45 (8.7)	37 (6.1)
80세 이상	15,289 (10.2)	12,343 (8.0)	1,010 (4.7)	811 (4.4)	2,578 (5.2)	2,203 (4.2)	134 (1.3)	84 (1.0)	877 (5.9)	852 (5.5)	6 (1.2)	8 (1.3)

주1) : 전체 참여자 중 데이터가 유효한 참여자수 분석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1.

○ '11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연령별, 사업유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공익형은 70~79세(69.6%), 교육형은 65~74세(61.7%), 복지형은 65~74세 (68.1%), 시장형은 65~74세(63.7%)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공익형은 상대적으로 고령참여자의 비율이 높으며 인력파견형 및 창업모델형의 경우 비교적 나이가 적은 60~69세가 다수 참여(60~69세 비중 : 인력파견형 76.8%, 창업모델형 64.7%)하고 있음

<표 2-4-5> 2011년 사업유형별·성별·연령별 참여자 현황(누적)

(기준 : 2011.12.31, 단위 : 명, %, ( ) : 비율)

구분	합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창업모델형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합계	246,782		150,033		21,349		49,534		14,967		10,380		519	
	88,416	158,366	56,843	93,190	10,467	10,882	9,945	39,589	4,994	9,973	6,069	4,311	98	421
	(35.82)	(64.2)	(37.9)	(62.1)	(49.0)	(51.0)	(20.1)	(79.9)	(33.4)	(66.6)	(58.5)	(41.5)	(18.9)	(81.1)
60~64세	12,465		545		3,233		2,596		1,982		3,952		157	
	3,700	8,765	125	420	752	2,481	137	2,459	322	1,660	2,350	1,602	14	143
	(4.2)	(5.5)	(0.2)	(0.5)	(7.2)	(22.8)	(1.4)	(6.2)	(6.4)	(16.6)	(38.7)	(37.2)	(14.3)	(34.0)
65~69세	59,201		29,804		6,458		14,293		4,442		4,025		179	
	16,300	42,901	8,246	21,558	2,575	3,883	1,738	12,555	1,272	3,170	2,435	1,590	34	145
	(18.4)	(27.1)	(14.5)	(23.1)	(24.6)	(35.7)	(17.5)	(31.7)	(25.5)	(31.8)	(40.1)	(36.9)	(34.7)	(34.4)
70~74세	92,878		59,750		6,720		19,429		5,092		1,755		132	
	33,094	59,784	22,300	37,450	3,747	2,973	4,044	15,385	1,995	3,097	973	782	35	97
	(37.4)	(37.8)	(39.2)	(40.2)	(35.8)	(27.3)	(40.7)	(38.9)	(39.9)	(31.1)	(16.0)	(18.1)	(35.7)	(23.0)
75~79세	62,344		44,645		3,928		10,638		2,574		514		45	
	26,446	35,898	19,254	25,391	2,639	1,289	3,178	7,460	1,102	1,472	260	254	13	32
	(29.9)	(22.7)	(33.9)	(27.2)	(25.2)	(11.8)	(32.0)	(18.8)	(22.1)	(14.8)	(4.3)	(5.9)	(13.3)	(7.6)
80~84세	17,042		13,034		881		2,272		739		111		5	
	7,407	9,635	5,738	7,296	645	236	721	1,551	260	479	41	70	2	3
	(8.4)	(6.1)	(10.1)	(7.8)	(6.2)	(2.2)	(7.2)	(3.9)	(5.2)	(4.8)	(0.7)	(1.6)	(2.0)	(0.7)
85~89세	2,565		2,019		121		281		121		22		1	
	1,323	1,242	1,053	966	102	19	118	163	40	81	10	12	0	1
	(1.5)	(0.8)	(1.9)	(1.0)	(1.0)	(0.2)	(1.2)	(0.4)	(0.8)	(0.8)	(0.2)	(0.3)	(0.0)	(0.2)
90세 이상	287		236		8		25		17		1		0	
	146	141	127	109	7	1	9	16	3	14	0	1	0	0
	(0.2)	(0.1)	(0.2)	(0.1)	(0.1)	(0)	(0.1)	(0.0)	(0.1)	(0.1)	(0.0)	(0.0)	(0.0)	(0.0)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1.

○ 공익형은 여성(62.1%)이 남성(37.9%)에 비해 참여비율이 높고, 70~74세(40.2%)의 여성이 가장 활발하게 참여함. 교육형은 남성(49.0)과 여성(51.0)이 유사한 참여율을 보임. 복지형은 여성참여자의 비율이 79.9%로 높으며 70~74세의 참여율이 높은편임. 시장형은 여성참여자의 비율(66.6%)이 높으며 참여자의 연령대는 65세에서 74세 이하에 집중됨. 인력파견형은 참여자의 대부분이 60~69세에 사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3) 참여자 학력별 현황

<표 2-4-6> 참여자 학력별 추이('08~'11년)

(기준 : 2011.12.31, 단위 : 명, %)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참여인원	비율	참여인원	비율	참여인원	비율	참여인원	비율
합계	150,186	100.0	271,287	100.0	239,923	100.0	246,782	100.0
무학	36,087	24.0	64,006	23.6	54,744	22.8	55,329	22.4
초졸	67,026	44.6	118,710	43.8	102,485	42.7	101,279	41.0
중졸	20,513	13.7	41,819	15.4	38,139	15.9	37,434	15.2
고졸	17,375	11.6	32,341	11.9	30,778	12.8	29,975	12.1
전문대졸	1,861	1.2	2,959	1.1	2,768	1.2	2,744	1.1
대졸이상	7,324	4.9	11,452	4.2	11,009	4.6	10,422	4.2
알수 없음	-	-	-	-	-	-	9,599	3.9

* 전체 참여자 중 데이터가 유효한 참여자 수만 분석에 포함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1.

○ 2011년에도 여전히 초졸이하 학력자가 66.0%로 대다수이나,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며, 중졸 이상 학력자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2-4-7> 2011년 사업유형별 · 성별 · 학력별 참여자 현황(누적)

(기준 : 2011.12.31, 단위 : 명, ( ) : 비율)

구분	합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창업모델형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합계	246,782		150,033		21,349		49,534		14,967		10,380		519	
	88,416	158,366	56,843	93,190	10,467	10,882	9,945	39,589	4,994	9,973	6,069	4,311	98	421
무학	55,329(22.4)		41,567(75.1)		722(1.3)		10,059(18.1)		2,133(3.8)		793(1.4)		55(0.09)	
	7,729	47,600	6,586	34,981	85	637	644	9,415	285	1,848	127	666	2	53
초졸	101,279(41.0)		65,647(64.8)		2,609(2.5)		23,489(23.1)		6,446(6.3)		2,866(2.8)		222(0.2)	
	30,183	71,096	23,667	41,980	684	1,925	3,319	20,170	1,556	4,890	940	1,926	17	205
중졸	37,434(15.2)		20,444(54.6)		3,356(8.9)		8,398(22.4)		2,973(7.9)		2,149(5.7)		114(0.3)	
	18,894	18,540	12,582	7,862	1,078	2,278	2,524	5,874	1,311	1,662	1,377	772	22)	92
고졸	29,975(12.1)		12,708(42.3)		7,206(24.0)		5,192(17.3)		2,380(7.9)		2,399(8.0)		90(0.3)	
	18,619	11,356	9,485	3,223	3,417	3,789	2,407	2,785	1,282	1,098	1,991	408	37	53
전문대졸	2,744(1.1)		714(26.0)		1,291(47.0)		377(13.7)		185(6.7)		171(6.2)		6(0.2)	
	1,574	1,170	516	198	634	657	182	195	99	86	140	31	3	3
대졸 이상	10,422(4.2)		1,935(18.5)		5,952(57.1)		910(8.7)		459(4.4)		1,140(10.9)		26(0.2)	
	8,126	2,296	1,667	268	4,461	1,491	676	234	334	125	972	168	16	10
알수 없음	9,599(3.9)		7,018(73.1)		213(2.2)		1,109(11.5)		391(4.0)		862(8.9)		6(0.06)	
	3,291	6,308	2,340	4,678	108	105	193	916	127	264	522	340	1	5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1

○ 초등학교 졸업 이하 참여자가 63.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참여자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41.0%), 무학(22.4%), 중학교 졸업(15.2%), 고등학교 졸업(12.1%) 순이며 전반적으로 저학력 참여자의 비중이 높음

○ 교육형은 타유형에 비해 참여자들의 학력수준이 높은 편(대졸 이상 28.2%)이며 이는 1-3세대 강사파견사업, 노-노교육 강사파견사업 등 사업특성상 참여자 선발 시 외부강사 유경험자, 교원 등 자격증소지자를 우선 선발하였기 때문임

(4) 참여동기

<표 2-4-8> 2011년 참여동기별 참여자 현황(누적)

(기준 : 2011.12.31, 단위 : %, 명)

구분	합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 파견형	창업 모델형
합계	246,782 (100.0)	150,033 (100.0)	21,349 (100.0)	49,534 (100.0)	14,967 (100.0)	10,380 (100.0)	519 (100.0)
경제적도움	209,523 (84.9)	137,314 (91.5)	9,281 (43.5)	42,483 (85.8)	11,730 (78.4)	8,320 (80.2)	395 (76.1)
자기발전	9,448 (3.8)	2,155 (1.4)	4,089 (19.2)	1,718 (3.5)	818 (5.5)	624 (6.0)	44 (8.5)
사회참여	12,649 (5.1)	3,490 (2.3)	5,161 (24.2)	2,521 (5.1)	865 (5.8)	584 (5.6)	28 (5.4)
시간활용	4,902 (2.0)	1,740 (1.2)	982 (4.6)	1,015 (2.0)	848 (5.7)	287 (2.8)	30 (5.8)
건강증진	3,375 (1.4)	1,548 (1.0)	637 (3.0)	699 (1.4)	388 (2.6)	93 (0.9)	10 (1.9)
자원봉사	1,317 (0.5)	298 (0.2)	614 (2.9)	326 (0.7)	44 (0.3)	34 (0.3)	1 (0.2)
기타	1,959 (0.8)	879 (0.6)	478 (2.2)	373 (0.8)	150 (1.0)	72 (0.7)	7 (1.3)
알수없음	3,609 (1.5)	2,609 (1.7)	107 (0.5)	399 (0.8)	124 (0.8)	366 (3.5)	4 (0.8)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1.

○ 참여노인의 대부분이 경제적 도움(84.9%)을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일부 노인들은 사회참여(5.1%) 및 자기발전(3.8%)을 위해 참여함

○ 유형별로 공익형사업 참여노인은 경제적 도움(91.5%)이 가장 큰 동기이며 교육형의 경우 타유형에 비해 '경제적 도움' 비중이 낮고(43.5%), '사회참여'(24.2%) 및 '자기발전'(19.2%)을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다는 비중이 높은편임

○ 공익형과 교육형 참여자의 경우 일자리사업 참여동기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참여동기를 바탕으로 일자리사업 유형별 목표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노인일자리사업 중도 포기자 분포

<표 2-4-9> 2011년 사업유형별 중도포기 사유 현황

(기준 : 2011.12.31, 단위 : 개, ( ) : 비율)

시 · 도	중도 포기 (계)	전출	사망	수행 기관 참여 제한	적성 / 근무 조건 불일치	높은 노동 강도	희망 근로 사업 참여	노인 일자 리사 업 이중 참여	취업 /기타 일자 리사 업 참여	동료 관계	수요 처 / 수혜 자관 계	가족 반대	건강 악화	기타
합계	25,078	799	410	180	988	95	215	209	2,524	183	427	287	7,784	10,947
공익형	15,244 (60.8)	513	281	92	356	38	154	102	1,276	90	287	151	5,172	6,706
교육형	1,348 (5.4)	42	36	9	92	0	1	12	176	6	21	8	370	575
복지형	4,687 (18.7)	125	67	59	209	15	43	51	492	41	64	58	1,562	1,897
시장형	2,981 (11.9)	108	23	18	259	21	13	38	474	36	28	64	623	1,277
인력 파견형	684 (2.7)	2	2	2	61	21	3	4	96	6	27	4	42	413
창업 모델형	134 (0.5)	9	1	0	11	0	1	2	10	4	0	2	15	79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1.

○ 2011년 중도포기건은 총25,078건이며, 공익형(60.8%), 복지형(18.7%)의 순임. 중도 포기 사유는 모든 유형에서 기타, 건강악화, 취업/다른 일자리사업 참여 순임

<표 2-4-10> 2011년 시·도별 중도포기 사유 현황

(기준 : 2011.12.31, ( ) 비율)

시도	중도 포기 (계)	전출	사망	수행기관 참여제한	적성/근무 조건 불일치	높은 노동 강도	희망근로 사업참여	노인 일자리 사업 이중참여	취업/기타 일자리사업 참여	동료 관계	수요처/ 수혜자 관계	가족 반대	건강 악화	기타
합계	25,078	799 (3.2)	410 (1.6)	180 (0.7)	988 (3.9)	95 (0.4)	215 (0.9)	209 (0.8)	2,523 (10.1)	183 (0.7)	427 (1.7)	287 (1.1)	7,784 (31.0)	10,978 (43.8)
서울	4,129 (16.5)	188	56	23	218	9	42	51	427	50	35	30	1,268	1,732
부산	2,087 (8.3)	74	25	2	112	16	6	17	198	15	18	27	680	897
대구	1,089 (4.3)	23	21	9	16	5	1	7	105	7	9	7	352	527
인천	1,858 (7.4)	34	20	2	45	2	11	35	153	16	233	9	390	908
광주	539 (2.1)	16	5	6	15	0	1	0	46	1	6	9	239	195
대전	1,063 (4.2)	27	14	2	52	5	3	9	116	5	16	12	279	523
울산	442 (1.8)	15	10	2	10	0	1	2	57	2	3	3	169	168
경기	3,433 (13.7)	206	53	42	163	32	40	30	409	41	45	69	1,052	1,251
강원	1,758 (7.0)	22	21	10	35	4	14	10	127	2	8	7	410	1,088
충북	791 (3.2)	18	19	0	49	4	26	4	83	9	5	18	320	236
충남	1,253 (5.0)	31	30	1	44	2	11	6	121	6	7	21	413	560
전북	1,444 (5.8)	43	29	28	47	2	4	5	186	12	14	37	507	530
전남	1,687 (6.7)	10	34	48	28	0	6	7	81	2	0	11	415	1,045
경북	1,638 (6.5)	33	38	3	104	5	27	5	218	6	19	15	558	607
경남	1,622 (6.5)	55	29	2	48	9	9	18	163	8	9	10	642	620
제주	245 (1.0)	4	6	0	2	0	13	3	33	1	0	2	90	91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 Database, 2011.

○ 25,078건의 중도포기 발생, 서울·경기의 중도포기 비율(30.2%)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III. 정책효과평가결과

III. 정책효과평가결과

1. 정책효과평가 참여노인 특성

<표 3-1-1> 사업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기준 : 2011.12.31, 단위 : %, ( ) : 명)

구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계	
						비율	인원
전체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인원	(350)	(221)	(261)	(168)		
성별							
남		39.3	28.9	14.7	17.1	100.0	(387)
여		32.3	17.8	33.3	16.6	100.0	(613)
연령							
60-69세		22.1	28.9	27.6	21.4	100.0	(402)
70-74세		42.5	16.9	27.8	12.8	100.0	(367)
75세 이상		45.5	18.6	20.8	15.2	100.0	(231)
교육수준							
중졸이하		40.4	12.8	28.9	17.9	100.0	(716)
고졸		19.7	42.2	19.7	18.4	100.0	(147)
대학 이상		12.0	72.3	6.0	9.6	100.0	(83)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 정책효과평가, 2011.

○ 사업유형별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는 공익형(39.3%), 교육형(28.9%) 시장형(17.1%), 복지형(14.7%)의 순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자는 복지형(33.3%), 공익형(32.3%), 교육형(17.8%), 시장형(16.6%)의 순인 것으로 나타나 남녀간의 참여유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연령별로 살펴보면, 70~74세와 75세 이상의 참여노인의 경우는 공익형이 각각 42.5%, 45.5%를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사업에 비하여 공익형에 편중

○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중졸이하는 공익형(40.4%)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고졸이나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참여노인들은 교육형 사업에 각각 42.2%, 72.3%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2> 노인일자리사업 인지경로

(기준 : 2011.12.31, 단위 : %, ( ) : 명)

구분		가족, 친구지인	매체	지차체	경로당	노인 복지관	종합사회 복지관	기타	계	
									비율	인원
전체	비율	44.3	5.4	12.8	5.7	20.3	9.4	2.2	100.0	(1,000)
	인원	(443)	(54)	(128)	(57)	(203)	(94)	(22)		
사업유형별										
공익형		46.3	5.4	18.3	6.9	14.9	7.1	1.1	100.0	(350)
교육형		35.3	6.8	11.8	2.7	31.2	9.0	3.2	100.0	(221)
복지형		44.4	4.6	8.8	5.4	21.1	14.6	1.1	100.0	(261)
시장형		51.8	4.8	8.9	7.7	16.1	6.5	4.2	100.0	(168)
참여자 특성별										
교육 수준										
중졸 이하		48.5	4.1	12.8	6.1	17.2	9.5	1.8	100.0	(716)
고졸		38.1	6.8	15.0	4.1	26.5	7.5	2.0	100.0	(147)
대학 이상		27.7	12.0	7.2	1.2	37.3	9.6	4.8	100.0	(83)
성별										
남		38.8	7.0	15.8	6.7	20.7	8.3	2.8	100.0	(387)
여		47.8	4.4	10.9	5.1	20.1	10.1	1.6	100.0	(613)
연령별										
60~69세		43.8	7.2	13.4	3.0	20.6	8.5	3.5	100.0	(402)
70~74세		47.1	5.4	10.9	4.9	20.2	10.4	1.1	100.0	(367)
75세 이상		40.7	2.2	14.7	11.7	19.9	9.5	1.3	100.0	(231)

구분	가족, 친구지인	매체	지차체	경로당	노인 복지관	종합사회 복지관	기타	계	
								비율	인원
거주 지역									
대도시	42.0	7.0	13.3	4.8	19.1	10.8	3.0	100.0	(398)
중소도시	45.4	6.2	9.5	4.5	24.4	8.0	2.0	100.0	(401)
농어촌	46.8	0.5	18.4	10.0	14.4	9.5	0.5	100.0	(201)
가구 형태									
독거	47.0	3.0	14.2	6.3	19.8	7.8	1.9	100.0	(268)
노인부부	41.4	6.2	12.4	6.2	20.6	10.4	2.7	100.0	(403)
자녀동거	45.9	6.6	12.4	4.5	20.0	9.0	1.6	100.0	(290)
기타	43.6	5.1	10.3	5.1	23.1	12.8	-	100.0	(39)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 정책효과평가, 2011.

○ 참여노인들은 전 연령대에서 가족, 친구, 지인을 통해서 사업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음. 특히 사업유형별로는 시장형의 경우, 거주지역이 농어촌일 경우, 가구형태가 독거노인일 경우,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가족, 친구, 지인을 통해서 인지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남. 한편, 대학 이상의 경우 매체, 노인복지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3-1-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이유

(기준 : 2011.12.31, 단위 : %, ( ) : 명)

구분		생계비 마련	건강증진 유지	용돈 마련	소외감 해소	여가 활동	사회 참여	자아실현 자기발전	봉사	계	
										비율	인원
전체	비율	47.6	6.1	31.6	0.6	7.4	4.9	1.7	0.1	100.0	(1,000)
	인원	(476)	(61)	(316)	(6)	(74)	(49)	(17)	(1)		
사업 유형별											
공익형		60.9	4.0	29.4	0.9	2.9	1.4	0.6	-	100.0	(350)
교육형		22.2	8.1	29.4	0.9	18.6	15.4	5.0	0.5	100.0	(221)
복지형		52.9	5.0	32.6	-	6.1	2.3	1.1	-	100.0	(261)
시장형		45.2	9.5	37.5	0.6	4.2	2.4	0.6	-	100.0	(168)
참여자 특성별											
교육수준											
중졸이하		53.5	4.5	34.2	0.6	4.3	2.1	0.8	-	100.0	(716)
고졸		32.7	6.8	34.0	-	13.6	9.5	3.4	-	100.0	(147)
대학 이상		19.3	12.0	15.7	1.2	24.1	20.5	6.0	1.2	100.0	(83)
성별											
남		40.8	8.5	31.8	0.8	8.8	6.2	2.8	0.3	100.0	(387)
여		51.9	4.6	31.5	0.5	6.5	4.1	1.0	-	100.0	(613)
연령별											
60~69세		44.5	6.2	32.3	0.2	9.7	5.0	1.7	0.2	100.0	(402)
70~74세		50.4	5.7	29.7	0.8	7.4	3.8	2.2	-	100.0	(367)
75세 이상		48.5	6.5	33.3	0.9	3.5	6.5	.9	-	100.0	(231)

구분	생계비 마련	건강증진 유지	용돈 마련	소외감 해소	여가 활동	사회 참여	자아실현 자기발전	봉사	계	
									비율	인원
거주 지역										
대도시	52.5	4.8	29.6	0.3	7.5	3.8	1.5	-	100.0	(398)
중소도시	46.1	5.7	29.7	1.0	7.7	7.5	2.2	-	100.0	(401)
농어촌	40.8	9.5	39.3	0.5	6.5	2.0	1.0	0.5	100.0	(201)
가구 형태										
독거	69.8	3.0	20.1	0.4	5.2	1.1	0.4	-	100.0	(268)
노인부부	41.7	6.9	30.8	0.7	9.7	7.2	2.7	0.2	100.0	(403)
자녀동거	36.2	7.6	42.4	0.7	6.2	5.2	1.7	-	100.0	(290)
기타	41.0	7.7	38.5	-	7.7	5.1	-	-	100.0	(39)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 정책효과평가, 2011.

○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이유를 살펴보면 생계비 마련, 용돈마련 등의 경제적 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사업유형별 중에서 교육형은 여가활동, 사회참여, 건강유지 등의 이유가 타 사업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교육수준별 참여이유를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적 이유보다는 타 이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학력이 높은 집단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경제 상태가 좋다는 응답이 증가하기 때문이라 여겨짐

○ 남성, 여성, 모든 연령대에서 생계비와 용돈마련과 같은 경제적인 이유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함

○ 거주지역 유형별로 살펴보면,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로 갈수록 생계비마련이 타 이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큼

○ 독거가구형태의 경우 생계비 마련의 욕구가 가장 큼

<표 3-1-4> 노인일자리사업 현재 활동 선택이유

(기준 : 2011.12.31, 단위 : 명, %)

구분	인원	비율
담당자의 권유로	327	46.7
능력과 적성에 맞아서	171	24.4
하던 일과 관련이 높아서	25	3.6
활동처가 가까워서	57	8.1
급여가 높아서	6	0.9
근무조건이 맞아서	70	10.0
덜 힘들어서	38	5.4
지인의 권유	2	0.3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서	1	0.1
이 일자리 밖에 없어서	3	0.4
합계	700	100.0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 정책효과평가, 2011.

○ 노인일자리사업에서 현재 활동을 선택한 이유는 담당자의 권유로 선택했다는 응답이 46.7%로 가장 높은 비중이며 능력적성이 맞아서 24.4%, 근무조건이 맞아서 10.0%, 활동처가 가까워서 8.1%, 덜 힘들어서 5.4%, 하던 일과 관련이 높아서 3.6%의 순으로 나타남

<표 3-1-5>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활동별 선택이유

(기준 : 2011.12.31, 단위 : %, ( ) : 명)

구분		담당자 권유	능력 적성 맞음	하던 일과 관련	활동처 근접함	높은 급여	근무 조건 맞음	덜힘듬	지인 권유	어떤일 있는지 모름	이 일자리 밖에 없음	계	
												비율	인원
전체	비율	46.7	24.4	3.6	8.1	0.9	10.0	5.4	0.3	0.1	0.4	100.0	(700)
	인원	(327)	(171)	(25)	(57)	(6)	(70)	(38)	(2)	(1)	(3)		
환경개선사업		61.3	10.2	0.7	12.4	-	10.9	3.6	-	0.7	-	100.0	(137)
교통질서 확립		61.4	7.0	-	12.3	-	8.8	8.8	-	-	1.8	100.0	(57)
공공기관 · 시설지원		29.7	16.2	2.7	16.2	-	24.3	10.8	-	-	-	100.0	(37)
복지보육 시설지원		35.6	28.9	4.4	13.3	-	8.9	8.9	-	-	-	100.0	(45)
교육활동		30.5	51.9	7.8	1.3	-	6.5	0.6	1.3	-	-	100.0	(154)
소외계층 노인지원		52.2	19.4	1.5	6.7	0.7	8.2	10.4	-	-	0.7	100.0	(134)
가족친화지원		33.3	33.3	-	-	-	33.3	-	-	-	-	100.0	(3)
기타 노인 일자리사업		54.5	18.2	-	-	9.1	18.2	-	-	-	-	100.0	(11)
창업형산업		45.6	21.1	6.1	8.8	1.8	11.4	4.4	-	-	0.9	100.0	(114)
파견사업		62.5	12.5	-	-	25.0	-	-	-	-	-	100.0	(8)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 정책효과평가, 2011.

○ 노인일자리사업의 수행 활동별 선택 이유를 보면, 교육활동과 가족친화지원을 제외한 모든 활동의 가장 큰 선택이유가 담당자의 권유인 것으로 나타남. 교육활동의 경우는 능력과 적성에 맞아서인 경우가 51.9%로 대부분을 차지, 가족친화지원의 경우는 담당자의 권유, 능력과 적성에 맞음, 근무조건이 맞음이 각각 33.3%인 것으로 나타남

<표 3-1-6> 기간에 따른 숙련도, 지식 축적 활동 정도

(기준 : 2011.12.31, 단위 : %, ( )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러한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비율	인원
비율	6.0	24.7	40.4	28.1	0.7	100.0	(700)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 정책효과평가, 2011.

○ 현재 참여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숙련도가 높아지고, 지식이 축척되는 활동인가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40.4%로 가장 높음

<표 3-1-7> 노인일자리사업 변경이나 중단 희망 이유

(기준 : 2011.12.31, 단위 : %, ( ) : 명)

변경이나 중단 희망 이유		근로조건 맞지 않음	먼거리	동료와의 관계	기술, 능력 부족	건강	재미 없음	다른 일구함	기타	계	
										비율	인원
전체	비율	49.0	9.8	3.9	2.0	17.6	9.8	2.0	5.9	100.0	(51)
	명	(25)	(5)	(2)	(1)	(9)	(5)	(1)	(3)		
사업 유형별											
공익형		52.6	15.8	-	-	15.8	15.8	-	-	100.0	(19)
교육형		40.0	-	-	20.0	-	-	20.0	20.0	100.0	(5)
복지형		35.7	-	14.3	-	35.7	14.3	-	-	100.0	(14)
시장형		61.5	15.4	-	-	7.7	-	-	15.4	100.0	(13)
참여자특성별											
교육 수준											
중졸이하		51.4	13.5	5.4	-	21.6	8.1	-	-	100.0	(37)
고졸		50.0	-	-	-	25.0	-	25.0	-	100.0	(4)
대학 이상		25.0	-	-	12.5	-	25.0	-	37.5	100.0	(8)
성별											
남		37.5	-	-	-	25.0	18.8	-	18.8	100.0	(16)
여		54.3	14.3	5.7	2.9	14.3	5.7	2.9	-	100.0	(35)
연령별											
60-69세		52.6	15.8	-	5.3	10.5	5.3	5.3	5.3	100.0	(19)
70-74세		54.2	8.3	8.3	-	16.7	8.3	-	4.2	100.0	(24)
75세 이상		25.0	-	-	-	37.5	25.0	-	12.5	100.0	(8)

변경이나 중단 희망 이유	근로조건 맞지 않음	먼거리	동료와의 관계	기술, 능력 부족	건강	재미없음	다른 일구함	기타	계	
									비율	인원
거주 지역										
대도시	55.0	10.0	5.0	5.0	20.0	-	5.0	-	100.0	(20)
중소도시	46.2	11.5	3.8	-	15.4	11.5	-	11.5	100.0	(26)
농어촌	40.0	-	-	-	20.0	40.0	-	-	100.0	(5)
가구 형태										
독거	73.7	10.5	5.3	-	5.3	-	-	5.3	100.0	(19)
노인부부	27.3	9.1	9.1	9.1	18.2	18.2	9.1	-	100.0	(11)
자녀동거	35.0	10.0	-	-	30.0	15.0	-	10.0	100.0	(20)
기타	100/0	-	-	-	-	-	-	-	100.0	(1)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 정책효과평가, 2011.

○ 다른 일을 희망하거나 그만 두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근로조건이 맞지 않다(49%)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그 외에로는 건강, 먼거리, 재미없음의 순으로 나타남

<표 3-1-8> 유형별 경제상태

(기준 : 2011.12.31, 단위 : %, ( ):명)

구분		경제상태						
		상	상중	중	중하	하	계	
							비율	인원
전체	비율	0.8	3.4	45.9	32.5	17.4	100.0	(961)
	명	(8)	(33)	(441)	(312)	(167)		
사업 유형별								
공익형		0.3	1.2	37.7	37.7	23.2	100.0	(332)
교육형		1.4	6.9	58.8	23.6	9.3	100.0	(216)
복지형		-	3.2	42.1	35.6	19.0	100.0	(247)
시장형		2.4	3.6	51.2	28.9	13.9	100.0	(166)
교육수준								
중졸이하		0.6	2.7	43.1	34.8	18.8	100.0	(701)
고졸		1.4	4.1	47.9	29.5	17.1	100.0	(146)
대학 이상		1.2	6.1	62.2	24.4	6.1	100.0	(82)
거주지 유형								
대도시		0.8	2.9	39.5	36.3	20.5	100.0	(380)
중소도시		1.0	3.9	46.0	31.9	17.1	100.0	(385)
농어촌		0.5	3.6	58.2	26.0	11.7	100.0	(196)
가구 형태								
독거		1.2	2.0	37.9	37.5	21.5	100.0	(256)
노인부부		0.5	5.2	50.5	28.5	15.3	100.0	(386)
자녀동거		0.7	2.8	46.1	33.7	16.7	100.0	(282)
기타		2.7	-	51.4	29.7	16.2	100.0	(37)

주 : 무응답 39명 제외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 정책효과평가, 2011.

○ 사업유형별에서 교육형 참여자의 주관적 경제상태가 가장 높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경제상태가 좋음

○ 거주지 유형에 따라서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노인부부가구 경우, 주관적 경제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9> 사업유형별 현시점에서의 심리적 특성의 차이

(기준 : 2011.12.31)

구분		자아효능감	우울	삶의 만족도	삶의 질
공익형	244	15.65	20.37	52.65	2.68
교육형	154	17.92	17.40	64.09	3.45
복지형	182	16.16	18.93	55.21	2.75
시장형	120	15.78	19.60	54.81	2.79
ss(df) F		540.92(3) 20.48***	868.80(3) 8.53***	13079.53(3) 34.68***	64.67(3) 32.66***

*** p 〈 .001, ** p 〈. .01, * p 〈 .05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 정책효과평가, 2011.

○ 사업유형에 따라 자아효능감, 우울, 삶의 만족도, 삶의 질 지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자아효능감을 살펴보면 교육형 참여노인의 자아효능감이 가장 높고, 공익형 참여노인의 자아효능감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우울정도는 공익형 참여노인과 시장형 참여노인인 경우가 복지형 참여노인과 교육형 참여노인보다 유의미하게 높음

○ 교육형 참여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나머지 세 유형의 참여노인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반면 공익형 참여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다른 세 유형의 참여노인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교육형 참여노인의 삶의 질이 다른 세 유형의 참여노인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10> 참여노인의 건강상태

(기준 : 2011.12.31, 빈도, 비율 : %)

구분			주관적건강		만성질환 보유여부		일상적활동량		전체
			건강함	그렇지 않음	있음	없음	많음	그렇지 않음	
성별	남성	인원	171	87	149	109	151	107	258
		비율	66.3	33.7	57.8	42.2	58.5	41.5	100.0
	여성	인원	206	236	313	129	212	230	442
		비율	46.6	53.4	70.8	29.2	48.0	52.0	100.0
연령대	60-69세	인원	108	159	148	119	151	116	267
		비율	40.4	59.6	55.4	44.6	56.6	43.4	100.0
	70-74세	인원	135	131	195	71	132	134	266
		비율	50.8	49.2	73.3	26.7	49.6	50.4	100.0
	75세 이상	인원	80	87	119	48	80	87	167
		비율	47.9	52.1	71.3	28.7	47.9	52.1	100.0
거주 지역	대도시	인원	145	134	171	108	159	120	279
		비율	52.0	48.0	61.3	38.7	57.0	43.0	100.0
	중소도시	인원	160	122	203	79	134	148	282
		비율	56.7	43.3	72.0	28.0	47.5	52.5	100.0
	농어촌	인원	72	67	88	51	70	69	139
		비율	51.8	48.2	63.3	36.7	50.4	49.6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인원	241	253	348	146	241	253	494
		비율	48.8	51.2	70.4	29.6	48.8	51.2	100.0
	고졸	인원	77	28	58	47	68	37	105
		비율	73.3	26.7	55.2	44.8	64.8	35.2	100.0
	대학 이상	인원	43	16	27	32	38	21	59
		비율	72.9	27.1	45.8	54.2	64.4	35.6	100.0

구분			주관적건강		만성질환 보유여부		일상적활동량		전체
			건강함	그렇지 않음	있음	없음	많음	그렇지 않음	
가구 형태	노인 독거	인원	88	107	144	51	96	99	195
		비율	45.1	54.9	73.8	26.2	49.2	50.8	100.0
	노인 부부	인원	169	105	161	113	154	120	274
		비율	61.7	38.3	58.8	41.2	56.2	43.8	100.0
	자녀 동거	인원	102	102	139	65	96	108	204
		비율	50.0	50.0	68.1	31.9	47.1	52.9	100.0
	기타	인원	18	9	18	9	17	10	27
		비율	66.7	33.3	66.7	33.3	63.0	37.0	100.0
계			377	323	462	238	363	337	700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 정책효과평가, 2011.

○ 성별에서는 사업참여 노인 중 남성이 여성에 비해 동년배에 비해 건강하며, 활동량이 많고, 만성질환도 덜 보유하는 특성을 보임

○ 거주지역에서는 대도시 노인이 중소도시나 농어촌 거주 노인에 비해 일상적 활동량이 많다고 응답하는 경향을 보임

○ 만성질환 보유의 측면에서는 60대 노인에 비해 70대 이상 노인에게서 만성질환 보유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중소도시 거주 노인의 만성질환 보유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교육수준에서는 고졸 이상 학력의 노인과 고졸이하 학력의 노인의 건강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졸 이상 학력의 노인의 경우 일상적인 활동량도 많은 것으로 확인됨

○ 가구형태에서는 노인독거가구의 노인이 노인부부가구나 자녀동거가구에 비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표 3-1-11> 사업유형별 참여노인의 건강상태

(기준 : 2011.12.31, 단위 : %)

구분	주관적 건강				만성질환 보유여부				일상적활동량				합계	
	동년배에 비해 건강함		건강하지 않음		있음		없음		동년배에 비해 많음		동년배에 비해 적음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공익형	123	50.4	121	49.6	179	73.4	65	26.6	102	41.8	142	58.2	244	100.0
교육형	109	70.8	45	29.2	74	48.1	80	51.9	108	70.1	46	29.9	154	100.0
복지형	95	52.2	87	47.8	128	70.3	54	29.7	91	50.0	91	50.0	182	100.0
시장형	50	41.7	70	58.3	81	67.5	39	32.5	62	51.7	58	48.3	120	100.0
전체	377	53.9	323	46.1	462	66.0	238	34.0	363	51.9	337	48.1	700	100.0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 정책효과평가, 2011.

○ 사업참여 노인의 참여사업 유형별 건강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특히 교육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와 만성질환 보유여부로 측정한 건강수준 지표에서 다른 유형 참여노인에 비해 건강한 것으로 확인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정도는 공익형 일자리 참여노인이 73.4%로 가장 높고 교육형 일자리 참여노인이 48.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2.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만족도

<표 3-2-1> 사업유형별 만족도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급여 만족도	공익형	244	6.32	1.33	4.02**
	교육형	154	6.29	1.53	
	복지형	182	6.18	1.34	
	시장형	120	5.80	1.39	
직무내용 만족도	공익형	244	11.66	1.46	11.98***
	교육형	154	12.30	1.63	
	복지형	182	11.63	1.53	
	시장형	120	11.18	1.74	
근로환경 만족도	공익형	244	15.33	2.56	3.08*
	교육형	154	15.67	2.64	
	복지형	182	14.87	2.58	
	시장형	120	15.04	2.27	
서비스환경 만족도	공익형	244	19.69	2.22	4.61**
	교육형	154	20.13	2.35	
	복지형	182	19.79	2.25	
	시장형	120	19.13	2.13	
전반적 만족도	공익형	244	3.88	0.49	7.90***
	교육형	154	3.98	0.53	
	복지형	182	3.88	0.48	
	시장형	120	3.68	0.55	

*** p 〈 .001, ** p 〈. .01, * p 〈 .05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 정책효과평가, 2011.

○ 전반적인 만족도에서는 교육형이 3.98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지형, 공익형, 시장형순임. 급여 만족도는 공익형이 6.32로 가장 높고, 직무 내용 만족도는 교육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근로 환경 만족도와 서비스 환경 만족도는 교육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3-2-2> 수행기관별 만족도

(기준 : 2011.12.31)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급여만족도	지자체	122	6.32	1.31	2.22*
	노인복지관	173	6.25	1.41	
	노인복지센터	42	6.31	1.16	
	대한노인회	121	6.34	1.54	
	시니어클럽	146	5.88	1.30	
	지역문화원	3	6.33	0.58	
	사회복지관	63	5.92	1.41	
	기타	30	6.60	1.67	
직무내용 만족도	지자체	122	11.73	1.52	3.35**
	노인복지관	173	12.02	1.52	
	노인복지센터	42	11.50	1.42	
	대한노인회	121	11.55	1.73	
	시니어클럽	146	11.44	1.64	
	지역문화원	3	12.67	1.15	
	사회복지관	63	11.46	1.53	
	기타	30	12.53	1.74	
근로환경 만족도	지자체	122	15.30	2.66	0.96
	노인복지관	173	15.16	2.74	
	노인복지센터	42	15.29	1.95	
	대한노인회	121	15.62	2.63	
	시니어클럽	146	15.17	2.36	
	지역문화원	3	15.67	0.58	
	사회복지관	63	14.63	2.38	
	기타	30	15.30	2.59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서비스환경 만족도	지자체	122	19.62	2.11	3.85***
	노인복지관	173	20.21	2.22	
	노인복지센터	42	19.69	2.32	
	대한노인회	121	19.63	2.69	
	시니어클럽	146	19.29	2.17	
	지역문화원	3	20.67	1.15	
	사회복지관	63	19.13	1.44	
	기타	30	20.83	2.26	
전반적 만족도	지자체	122	3.93	0.50	2.33*
	노인복지관	173	3.94	0.45	
	노인복지센터	42	3.86	0.52	
	대한노인회	121	3.78	0.57	
	시니어클럽	146	3.79	0.55	
	지역문화원	3	4.00	0.00	
	사회복지관	63	3.81	0.50	
	기타	30	4.03	0.41	

*** p 〈 .001, ** p 〈. .01, * p 〈 .05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 정책효과평가, 2011.

○ 전반적인 만족도를 보면 기타기관이 4.03(sd=0.41)으로 가장 높고 대한노인회가 3.78(sd=0.5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표 3-2-3> 거주지역별 만족도

(기준 : 2011.12.31)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df	F
급여만족도	대도시	279	7.71	5.13	2	.89
	중소도시	282	7.53	5.11		
	농어촌	139	7.01	4.79		
직무내용 만족도	대도시	279	11.65	1.71	2	.83
	중소도시	282	11.80	1.62		
	농어촌	139	11.65	1.32		
근로환경 만족도	대도시	279	16.53	3.00	2	3.04*
	중소도시	282	16.90	2.97		
	농어촌	139	16.20	2.02		
서비스환경 만족도	대도시	279	19.31	2.24	2	11.90***
	중소도시	282	20.21	2.41		
	농어촌	139	19.53	1.74		
전반적 만족도	대도시	279	3.81	0.53	2	3.27*
	중소도시	282	3.90	0.53		
	농어촌	139	3.91	0.43		

*** p 〈 .001, ** p 〈. .01, * p 〈 .05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 정책효과평가, 2011.

○ 전반적인 만족도를 보면 농어촌이 3.91(sd=0.43)로 대도시 3.81(sd=0.53)나 중소도시 3.90(sd=0.53)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 환경의 만족도를 보면 중소도시가 20.21(sd=2.41)로 대도시 19.31 (sd=2.24)나 농어촌 19.53(sd=1.74)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근로환경 만족도 역시 중소도시가 16.90(sd=2.97)으로 대도시 16.53(sd=3.00)나 농어촌 16.20(sd=2.02)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4> 유형별 희망 월급여

(기준 : 2011.12.31, 단위 : %)

희망 월급여	50만원 미만	50~99만원	100만원 이상	계	
				비율	인원
대상별					
참여노인	28.2	49.1	22.6	100.0	(287)
비참여노인	24.5	51.0	24.5	100.0	(143)
사업유형별					
공익형	26.7	56.3	17.0	100.0	(176)
교육형	21.9	34.2	43.8	100.0	(73)
복지형	30.0	51.8	18.2	100.0	(110)
시장형	28.2	46.5	25.4	100.0	(71)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 정책효과평가, 2011.

○ 유형별 희망 월급여를 살펴보면, 참여노인과 비참여노인 모두 50~99만원, 5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의 순으로 희망함. 사업별 유형을 살펴보면 공익형, 복지형, 시장형이 50~99만원, 5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의 순인데 반하여 교육형은 100만원 이상이 43.8%를 차지하고 있어서 가장 높음

<표 3-2-5> 노인일자리 사업 차년도 참여 희망여부

(기준 : 2011.12.31, 단위 : %, ( ) : 명)

구분		현재일 희망	다른일희망	그만두길희망	계	
					비율	인원
전체	비율	92.7	5.4	1.9	100.0	(700)
	인원	(649)	(38)	(13)		
사업유형별						
공익형		92.2	7.0	0.8	100.0	(244)
교육형		96.8	1.9	1.3	100.0	(154)
복지형		92.3	4.9	2.7	100.0	(182)
시장형		89.2	7.5	3.3	100.0	(120)
참여자특성별						
교육수준						
중졸이하		92.5	5.5	2.0	100.0	(494)
고졸		96.2	1.9	1.9	100.0	(105)
대학 이상		86.4	11.9	1.7	100.0	(59)
성별						
남		93.8	5.4	0.8	100.0	(258)
여		92.1	5.4	2.5	100.0	(442)
연령별		248	14	5		
60-69세		92.9	5.2	1.9	100.0	(267)
70-74세		91.0	7.5	1.5	100.0	(266)
75세 이상		95.2	2.4	2.4	100.0	(167)
거주지역						
대도시		92.8	5.7	1.4	100.0	(279)
중소도시		90.8	6.4	2.8	100.0	(282)
농어촌		96.4	2.9	0.7	100.0	(139)

구분	현재일 희망	다른일희망	그만두길희망	계	
				비율	인원
가구형태					
독거	90.3	7.2	2.6	100.0	(195)
노인부부	96.0	3.3	0.7	100.0	(274)
자녀동거	90.2	6.9	2.9	100.0	(204)
기타	96.3	3.7	-	100.0	(27)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 정책효과평가, 2011.

○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향후 참여 계획에 대하여 전체 중 92.7%의 응답자가 현재 일을 희망하고 있으며, 모든 유형에서 현재 일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업유형별에서는 교육형이 가장 현재 일을 희망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으며, 교육수준에서는 고졸학력이 현재 일을 희망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음. 성별에서는 남자의 비율이 여자보다 높았으며, 연령에서는 75세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거주지역에서는 농어촌이, 가구형태에서는 기타가 현재 일을 희망하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구형태별로는 기타를 제외하고 노인부부가구가 현재 일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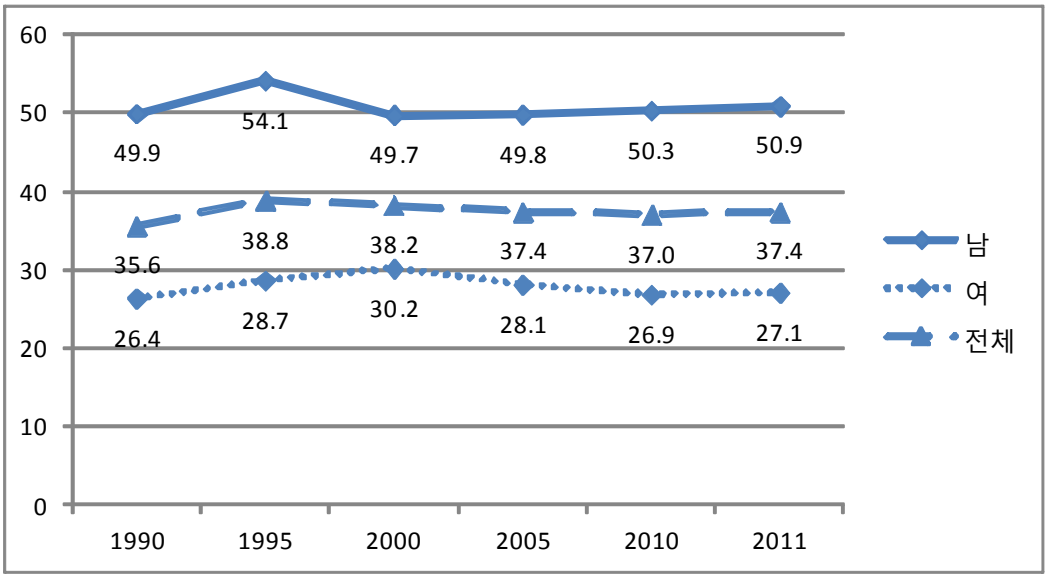
IV. 노인의 경제활동 관련통계

IV. 노인의 경제활동 관련통계

1. "그림으로 보는" 노인의 경제활동 관련통계

<그림 4-1-1> 60세 이상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성별, 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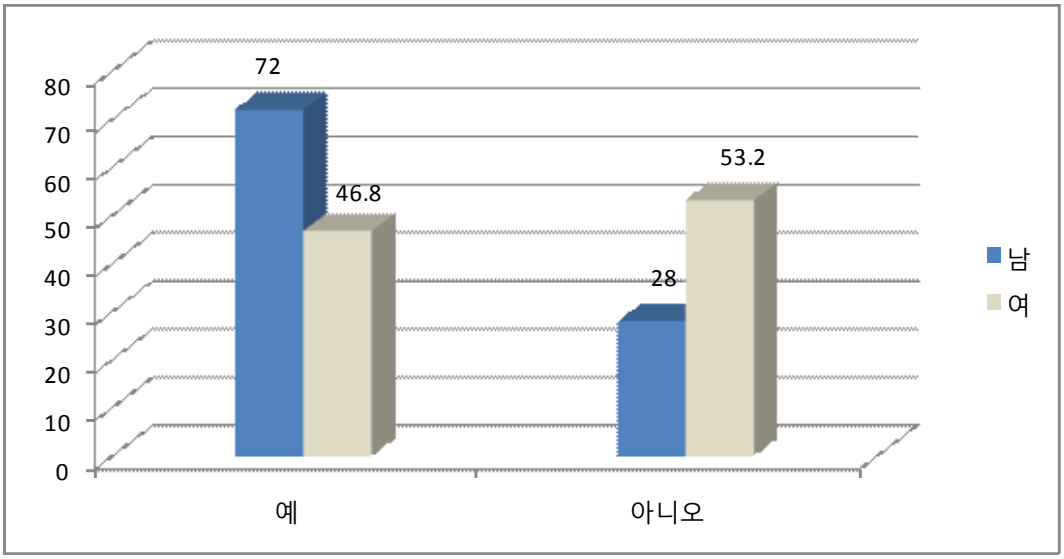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 2011.

<그림 4-1-2> 55~79세 노인의 향후 취업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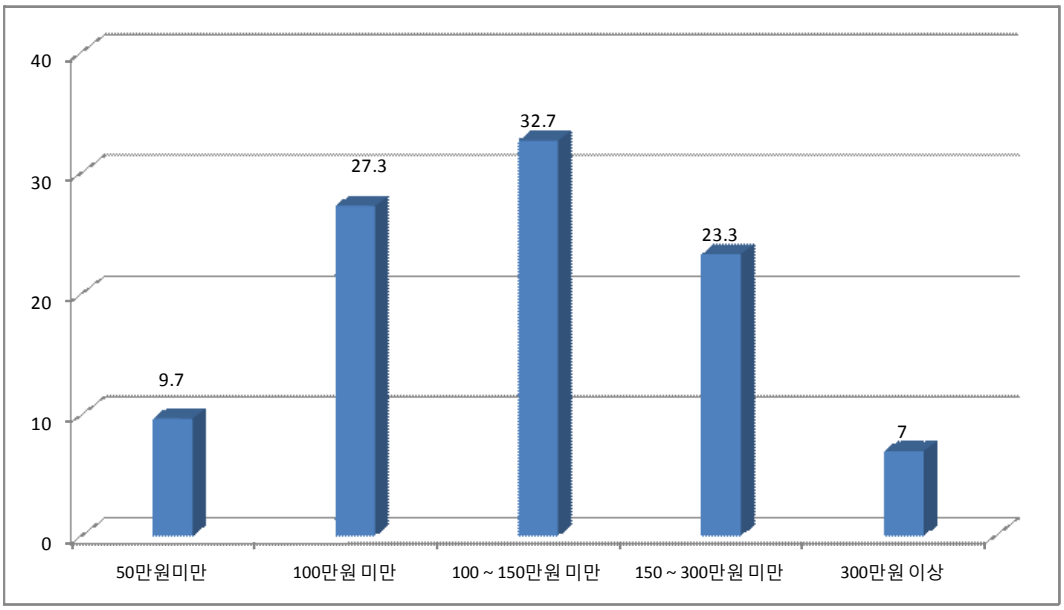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 2011

<그림 4-1-3> 55~79세 노인의 희망급여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 2011.

2. 경제상태

1) 빈곤수준

<표 4-2-1>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추이(연도별)

(단위 : %)

구분	2004	2005	2006	2006[2)]	2007	2007[2)]	2008	2008[2)]	2009	2009[2)]	2010	2010[2)]
중위소득 50% 미만 (상대빈곤)	33.5	34.8	37.0	43.8	37.8	44.6	37.2	44.8	37.0	46.4	38.3	47.1
최저생계비 미만 (절대빈곤)	21.6	23.4	26.7	29.2	26.2	29.0	27.1	30.1	28.8	33.6	27.0	32.5

주1) : 가처분소득 기준(가처분소득 = 경상소득-조세-사회보장분담금), 전가구 기준임
주2) : 연도에 2)가 기입된 것은 1인가구포함 수치를, 기입되지 않은 것은 1인가구 제외 수치를 의미
주3) : 모든 연도에 농어가가구 제외됨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빈곤통계연보」, 2011.

○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최저생계비 미만의 절대빈곤 기준으로는 30% 내외로, 중위소득 50% 미만의 상대빈곤 기준으로는 40% 내외로 나타났으며, 빈곤율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1인가구를 포함하였을 경우 빈곤율이 더욱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2) 기초생활보장 수급현황

<표 4-2-2> 기초생활보장 수급현황 추이(연도별)

(단위 : 명, %)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65세 이상 전체	3,712,626	3,904,984	4,124,946	4,324,524	4,556,733	4,861,476	5,069,273	5,267,708	5,506,352
65세 이상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현황	329,251	340,527	352,348	367,658	373,595	386,157	382,050	387,847	391,214
비율	8.9	8.7	8.5	8.5	8.2	7.9	7.5	7.4	7.1
(전체인구 중 수급자 비율)	2.8	2.8	3.0	3.1	3.2	3.2	3.2	3.0	2.9

주1) : 일반수급자 대상(시설수급자 및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자 제외)

주2) : 인구수는 주민등록인구를, 수급자수는 보건복지부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타자료의 비율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각년도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 각년도

○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0년 기준 391,214명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노인 전체 중 약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미미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인구 중 수급자 비중에 비하면 여전히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3) 기초노령연금 수급현황

<표 4-2-3>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 및 지급실적(시 · 도별, 2010년 기준)

(단위 : 명, %, 백만원)

구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지급실적		
	전체노인	수급자수	수급률	계	국비	지방비
전체	5,506,352	3,727,940	67.7	3,654,367	2,679,251	975,116
서울	1,002,770	514,416	51.3	505,985	335,232	170,753
부산	401,784	289,153	72.0	284,380	202,869	81,511
대구	252,084	176,656	70.1	173,281	122,118	51,163
인천	237,805	167,730	70.5	164,094	117,026	47,068
광주	130,457	90,709	69.5	88,704	62,093	26,611
대전	130,245	86,382	66.3	84,476	59,133	25,343
울산	76,800	53,500	69.7	52,723	36,906	15817
경기	1,022,456	599,538	58.6	586,960	367,574	219,386
강원	226,505	164,065	72.4	160,236	120,624	39,612
충북	204,470	151,535	74.1	147,795	118,181	29,614
충남	308,556	223,711	72.5	217,932	174,618	43,314
전북	284,373	225,409	79.3	220,719	176,312	44,407
전남	350,900	300,127	85.5	293,913	246,556	47,357
경북	418,858	336,724	80.4	330,250	270,815	59,435
경남	388,648	302,314	77.8	297,955	237,714	60,241
제주	69,641	45,971	66.0	44,964	31,480	13,484

자료 : 보건복지부, 「2010 보건복지통계연보」, 2011

○ 기초노령연금은 '10년 기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7.7%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시·도별로 전남(85.5%), 경북(80.4%), 전북(79.3%)의 수급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지급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수급자수가 가장 많은 경기지역으로 나타남

4) 국민연금 수급현황

<표 4-2-4>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및 지급액(급여종류별, 성별, 2010년 기준)

(단위 : 명, %, 천원)

구분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수							연간 평균 지급액
	전체	노령 연금	장애 연금	장애일시 보상금	유족 연금	반환 일시금	사망 일시금	
2008년 전체	2,128,705	1,881,600	17,456	248	167,867	59,333	2,201	2,340
	100.0	88.4	0.8	0.0	7.9	2.8	0.1	
2009년 전체	2,359,568	2,065,029	18,861	175	195,926	77,090	2,487	2,596
	100.0	87.5	0.8	0.0	8.3	3.3	0.1	
2010년 전체	2,579,516	2,235,663	20,346	96	226,519	94,161	2,731	2,579
	100	86.7	0.8	0.0	8.8	3.7	0.1	
남	1,629,269	1,548,684	16,656	75	21,078	41,366	1,410	3,270
	100	95.1	1.0	0.0	1.3	2.5	0.1	
여	950,247	686,979	3,690	21	205,441	52,795	1,321	2,037
	100	72.3	0.4	0.0	21.6	5.6	0.1	

주1) : 노령연금 :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여 소득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연금급여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60세에 도달시 지급. 가입기간, 청구 연령 등의 조건에 따라 완전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으로 구분

장애연금 :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정도(1-3급)에 따라 연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장애일시보상금 :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완치 후에도 장애가(4급) 남았을 때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유족연금 : 가입하고 있던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반환일시금 : 60세 도달·사망·국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거나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

사망일시금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의 수급대상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생계유지를 하고 있던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주2) : 연간 평균 지급액 = 연간 국민연금 지급액 / 수급자수

자료 : 국민연금, 「국민연금통계연보 각년도」, 각년도

○ '10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2,579,516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평균 지급액은 약 2,816천원으로 전년 대비 220천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남성노인의 국민연금 수급자수가 여성노인에 비해 약 2.2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3. 경제활동

1) 경제활동 현황 및 추이

<표 4-3-1> 2011년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 현황(성별)

(단위 : 천명, %)

구분		전체인구수	경제활동인구수	경제활동참가율
15세 이상 전체	2009 전체	40,092	24,394	60.8
	2010 전체	40,590	24,748	61.0
	2011 전체	41,502	25,099	61.1
	남	20,076	14,683	73.1
	여	20,976	10,416	49.7
65세 이상	2009 전체	5,204	1,564	30.1
	2010 전체	5,399	1,588	29.4
	2011 전체	5,624	1,661	29.5
	남	2,314	938	40.6
	여	3,310	722	21.8
60세 이상	2009 전체	7,330	2,734	37.3
	2010 전체	7,610	2,816	37.0
	2011 전체	7,913	2,963	37.4
	남	3,434	1,748	50.9
	여	4,479	1,215	27.1

주1) : 경제활동인구 : 해당 연령급간 전체 인구 중 취업자 + 실업자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 해당 연령급간 전체 인구 × 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11년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61.1%로 나타났고, 60세 이상은 37.4%, 65세 이상은 29.5%로 나타나 전년보다 소폭 상승함

○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60세 이상 기준)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9%로, 여성의 27.1%에 비하여 23.8%p 높게 나타남

<표 4-3-2> 2011년 노인 고용률 현황(성별)

(단위 : 천명, %)

구분		전체인구수	취업자수	고용률
15세 이상 전체	2009 전체	40,092	23,506	58.6
	2010 전체	40,590	23,829	58.7
	2011 전체	41,052	24,244	59.1
	남	20,076	14,153	70.5
	여	20,976	10,091	48.1
65세 이상	2009 전체	5,204	1,546	29.7
	2010 전체	5,399	1,550	28.7
	2011 전체	5,624	1,624	28.9
	남	2,314	915	39.6
	여	3,310	708	21.4
60세 이상	2009 전체	7,330	2,690	36.7
	2010 전체	7,610	2,737	36.0
	2011 전체	7,913	2,886	36.5
	남	3,434	1,695	49.3
	여	4,479	1,191	26.6

주1) : 취업자수 : 다음 인구수의 합. ①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②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운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무급가족종사자) ③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고용률 : 해당 연령급간 취업자 / 해당 연령급간 전체 인구 × 100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11

○ 실업자수를 제외한 취업자수만으로 계산되는 고용률은 '11년 현재 전체 인구 기준 59.1%로 나타남. 노인 고용률은 60세 이상 기준 36.5%, 65세 이상 기준 28.9%로 전년에 비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 참가율과 마찬가지로 성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3> 2011년 노인 실업률 현황(성별)

(단위 : 천명, %)

구분		경제활동인구수	실업자수	실업률
15세 이상 전체	2009 전체	24,394	889	3.6
	2010 전체	24,748	920	3.7
	2011 전체	25,099	855	3.4
	남	14,683	530	3.6
	여	10,416	325	3.1
65세 이상	2009 전체	1,564	19	1.2
	2010 전체	1,588	39	2.4
	2011 전체	1,661	37	2.2
	남	938	23	2.5
	여	722	14	2.0
60세 이상	2009 전체	2,734	45	1.6
	2010 전체	2,816	80	2.8
	2011 전체	2,963	77	2.6
	남	1,748	53	3.0
	여	1,215	24	2.0

주1) : 실업자수 :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의 수
실업률 : 해당 연령급간 실업자 / 해당 연령급간 전체 경제활동인구 × 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1.

○ 실업률은 '11년 현재 15세 이상 인구 기준 3.4%로 나타남. 전체 인구에 비해 노인은 더 이상 일자리를 찾지 않는 은퇴자,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노인의 실업률은 60세 이상 2.6%, 65세 이상 2.2%로 낮게 나타났으나, 전년에 비해 소폭 하락함

2) 경제활동 추이

<표 4-3-4>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성별, 연도별)

(단위 :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15세 이상 전체	전체	60.0	61.9	61.2	62.0	61.0	61.1
	남	74.0	76.4	74.4	74.6	73.0	73.1
	여	47.0	48.4	48.8	50.1	49.4	49.7
65세 이상	전체	26.1	27.9	29.6	30.0	29.4	29.5
	남	39.3	40.8	40.7	41.2	40.6	40.6
	여	18.4	20.2	22.8	22.4	21.7	21.8
60세 이상	전체	35.6	38.8	38.2	37.4	37.0	37.4
	남	49.9	54.1	49.7	49.8	50.3	50.9
	여	26.4	28.7	30.2	28.1	26.9	27.1

주1) : 경제활동참가율 : 해당 연령급간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해당 연령급간 전체 인구 × 100

주2) : 2000년 이후 실업자의 구직기간이 1주에서 4주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며, 2000년 이전 자료는 구직기간 1주를 기준으로 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 노인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는 '90년부터 지속적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65세 이상은 '00년(29.6%), '05년(30.0%), '11년(29.5%)에는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경향을 보임

3) 직업특성

<표 4-3-5> 현재 취업상태 및 과거 취업경험(성별, 연령별)

(단위 : 천명, %)

구분		55~79세 인구		취업자		미취업자		취업경험 있으나 현재 미취업		생애동안 취업경험 전혀 없음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09년 전체		9,111	100.0	4,457	48.9	4,654	51.1	4,180	45.9	474	5.2
2010년 전체		9,481	100.0	4,780	50.4	4,701	49.6	4,219	44.5	482	5.1
2011년 전체		9,953	100.0	5,052	50.8	4,901	49.2	4,399	44.2	502	5.0
성	남	4,625	100.0	2,966	64.1	1,659	35.9	1,638	35.4	21	0.5
	여	5,328	100.0	2,086	39.2	3,242	60.8	2,761	51.8	481	9.0
연령	55~64세	5,300	100.0	3,390	64.0	1,910	36.0	조사안함			
	65~79세	4,652	100.0	1,661	35.7	2,991	64.3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2011.

○ '11년 5월 고령층(55~79세)의 취업자 비중은 50.8%(5,052천명)로 전년대비 0.4%p 상승함. 미취업자 비중은 49.2%, 취업경험 있으나 현재 미취업비중은 44.2%, 생애동안 취업경험이 없던 자의 비중은 5.0%로 나타남

<표 4-3-6> 지난 1년간 취업경험(성별, 연령별)

(단위 : 천명, %)

구분	55~79세 인구		지난 1년간 취업경험 있음								지난 1년간 취업경험 없음	
			전체		한번		두번		세번 이상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09년 전체	9,111	100.0	5,121	56.2	4,376	48.0	401	4.4	344	3.8	3,990	43.8
2010년 전체	9,481	100.0	5,704	60.2	4,793	50.6	559	5.9	351	3.7	3,777	39.8
2011년 전체	9,953	100.0	5,895	59.2	4,940	49.6	590	5.9	365	3.7	4,058	40.8
남	4,625	100.0	3,337	72.2	2,842	61.4	282	6.1	214	4.6	1,288	27.8
여	5,328	100.0	2,558	48.0	2,099	39.4	309	5.8	151	2.8	2,770	52.0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2011

○ 55~79세 인구 중 지난 1년간 취업경험 비중은 59.2%로 전년에 비해 1.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 1년간 취업경험 횟수는 「한번」인 경우가 49.6%로 가장 많았고, 취업경험은 남자(72.2%)가 여자(48.0%) 보다 24.2%p 높게 나타나 전년보다 격차가 더 커졌음

4) 현재 종사직업 특성

<표 4-3-7> 현재 종사산업(연령별)

(단위 : 천명, %)

구분		55~79세 취업자	농림어업	광공업	제조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2009년 전체	인원	4,457	1,222	383	378	2,851	252	895	1,368	336
	비율	100.0	27.4	8.6	8.5	64.0	5.6	20.1	30.7	7.5
2010년 전체	인원	4,780	1,168	439	436	3,172	323	905	1,544	401
	비율	100.0	24.4	9.2	9.1	66.4	6.8	18.9	32.3	8.4
2011년 전체	인원	5,052	1,185	462	460	3,404	349	992	1,586	477
	비율	100.0	23.5	9.2	9.1	67.4	6.9	19.6	31.4	9.4
55~64세	인원	3,390	469	374	372	2,546	307	732	1,112	396
	비율	100.0	13.8	11.0	11.0	75.1	9.1	21.6	32.8	11.7
65~79세	인원	1,661	716	88	88	857	41	261	474	81
	비율	100.0	43.1	5.3	5.3	51.6	2.5	15.7	28.5	4.9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2011.

○ 55~79세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31.4%(1,586천명), 농림어업 23.5%(1,185천명) 순으로 나타남. 특히 65-79세 연령의 경우 농림어업 종사비율이 43.1%로 연소노인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4-3-8> 현재 종사직종(연령별)

(단위 : 천명, %)

구분		55~79세 취업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등	사무 종사자	서비스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기계 조작·단순 노무종사자
2009년 전체	인원	4,457	378	158	842	1,125	1,954
	비율	100.0	8.5	3.5	18.9	25.2	43.8
2010년 전체	인원	4,780	409	159	866	1,075	2,271
	비율	100.0	8.6	3.3	18.1	22.5	47.5
2011년 전체	인원	5,052	465	180	984	1,090	2,333
	비율	100.0	9.2	3.6	19.5	21.6	46.2
55~64세	인원	3,390	374	155	787	439	1,634
	비율	100.0	11.0	4.6	23.2	13.0	48.2
65~79세	인원	1,661	90	24	197	651	699
	비율	100.0	5.4	1.5	11.8	39.2	42.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2011.

○ 55~79세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단순노무종사자 46.2%(2,333천명),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1.6%(1,090천명) 순으로 나타남. 55~64세의 경우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및 서비스 판매종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65~79세는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표 4-3-9> 비임금근로자 현황

(단위 : 천명, %)

구분		취업자	비임금근로자				
			전체 인원	비율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2009년	전체	23,506	7,141	100.0	1,494	4,266	1,361
	60세 이상	2,690	1,640	23.0	110	1,181	349
2010년	전체	23,829	6,958	100.0	1,477	4,150	1,331
	60세 이상	2,737	1,622	23.3	101	1,183	339
2011년	전체	24,244	6,985	100.0	1,491	4,189	1,305
	60세 이상	2,886	1,716	24.6	122	1,241	352

주1) : 연령은 60세 이상 기준이며, 구성비는 전체 인원 중 60세 이상의 구성비를 의미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근로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 2011.

○ 11년 60세 이상 취업자는 2,886천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비임금 근로자는 1,716천 명으로 전체 비임금 근로자 규모의 24.6%를 차지함.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수가 1,241천 명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노인계층의 특징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음

<표 4-3-10> 비정규직근로자 현황

(단위 : 천명, %)

구분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전체	비율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2009년	전체	16,479	5,754	100.0	3,507	1,426	2,283
	60세 이상	1,205	876	15.2	600	279	380
2010년	전체	17,048	5,685	100.0	3,281	1,620	2,289
	60세 이상	1,272	885	15.6	551	361	420
2011년	전체	1,7510	5,995	100.0	3,442	1,702	2,427
	60세 이상	1,360	959	16.0	579	389	487

주1) : 한시적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근로자)를 포함

시간제근로자 :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

비전형근로자 :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재택, 가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

주2) : 연령은 60세 이상 기준이며, 구성비는 전체 인원 중 60세 이상의 구성비를 의미

주3) : 임금근로자 조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결과를 사용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근로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 201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1.

○ '11년 60세 이상 비정규직은 959천명으로 60세 이상 임금근로자 규모의 70.5%, 전체 비정규직의 규모의 16.0%를 차지함. 이는 전년도에 비해 소폭(0.4%) 상승한 것임

<표 4-3-11>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추이(연도별)

(단위 : 일, 시간)

구분			2007	2008	2009	2010
근로일수 (월간)	전연령	전체근로자	22.3	21.7	22.5	22.2
		정규직	22.7	22.2	23.1	22.9
		비정규직	20.8	19.9	20.4	20.0
	60+	전체근로자	21.2	20.8	21.2	21.0
		정규직	22.5	22.0	22.7	22.7
		비정규직	19.3	19.1	19.3	19.2
총 근로시간 (월간)	전연령	전체근로자	188.8	184.5	189.0	187.0
		정규직	193.2	189.6	195.7	194.4
		비정규직	171.4	165.7	167.4	164.2
	60+	전체근로자	210.2	203.1	196.2	192.8
		정규직	210.0	204.0	201.1	201.3
		비정규직	210.5	201.9	190.4	183.2

주1) : 자영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외
주2) : 근로일수(월간) = 소정실근로일수 + 휴일실근로일수
근로시간(월간) = 소정근로시간 + 초과근로시간
자료 : 노동부,「2007~2010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 2008~2011.

○ 60세 이상 노인은 '10년 월평균 21.0일, 192.8시간을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남(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외). 근로시간에 있어서는 전연령에 비하여 5.8시간 더 많이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07년부터 '10년까지 60세 이상의 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12> 노인의 월급여 및 시간당 정액급여 추이(연도별, 정규/비정규직별)

(단위 : 천원, 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월급여 (천원)	전연령	전체근로자	1,847	1,945	1,960	2,023
		정규직	2,027	2,151	2,199	2,285
		비정규직	1,145	1,189	1,202	1,219
	60+	전체근로자	1,460	1,551	1,524	1,550
		정규직	1,755	1,858	1,867	1,896
		비정규직	998	1,101	1,114	1,163
시간당 정액급여 (원)	전연령	전체근로자	10,275	10,996	10,591	11,155
		정규직	11,026	11,883	11,537	12,160
		비정규직	7,359	7,747	7,586	8,067
	60+	전체근로자	8,017	8,569	8,316	8,628
		정규직	9,378	10,056	9,824	10,023
		비정규직	5,877	6,381	6,516	7,066

주1) : 자영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외
주2) : 월급여(천원) = 정액급여 + 초과급여. 각 년도 6월 기준
시간당 정액급여(원) = 통상임금과 그 밖에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수당
자료 : 노동부, 「2007~2010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 2008~2011.

○ 60세 이상 노인은 '10년 기준 월 1,550천원의 급여(시간당 8.628원)를 받고 있었으며, 이는 전연령의 급여인 2,023천원보다는 473천원 적은 것으로 나타남(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외). 급여의 격차는 전년에 비해 증가함. 또한 60세 이상 비정규직의 급여가 정규직의 급여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나타남

5) 주된 일자리 특성

<표 4-3-13> 주된 일자리 근속기간(성별)

(단위 : 천명, %)

구분		계	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50년 미만	50년 이상	평균 근속기간
2009년 전체	인원	8,636	1,105	1,152	2,112	1,787	2,146	334	20년 3개월
	비율	100.0	12.8	13.3	24.5	20.7	24.8	3.9	
2010년 전체	인원	8,999	1,222	1,257	2,244	1,785	2,189	302	19년 8개월
	비율	100.0	13.6	14.0	24.9	19.8	24.3	3.4	
2011년 전체	인원	9,450	1,265	1,271	2,363	1,975	2,241	336	19년 9개월
	비율	100.0	13.4	13.4	25.0	20.9	23.7	3.6	
남	인원	4,603	258	345	1,197	1,291	1,377	136	22년 10개월
	비율	100.0	5.6	7.5	26.0	28.0	29.9	2.9	
여	인원	4,847	1,007	926	1,166	684	864	200	16년 9개월
	비율	100.0	20.8	19.1	24.1	14.1	17.8	4.1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2011.

○ 생애동안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근속기간은 19년 9개월로 나타났음. 성별로는 남자(22년 10개월)의 평균근속기간이 여자(16년 9개월)보다 6년 1개월 더 긴 것으로 나타났음

<표 4-3-14> 주된 일자리 이직연령(성별)

(단위 : 천명, %)

구분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이직자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평균 이직연령
2009년 전체	인원	6,221	324	296	1,079	2,721	1,494	306	만53세
	비율	100.0	5.2	4.8	17.3	43.7	24.0	4.9	
2010년 전체	인원	6,562	365	336	1,146	2,831	1,553	330	만53세
	비율	100.0	5.6	5.1	17.5	43.1	23.7	5.0	
2011년 전체	인원	6,763	381	364	1,164	2,911	1,620	324	만53세
	비율	100.0	5.6	5.4	17.2	43.0	24.0	4.8	
남	인원	3,065	22	120	514	1,436	853	121	만55세
	비율	100.0	0.7	3.9	16.8	46.8	27.8	3.9	
여	인원	3,697	359	244	650	1,475	767	203	만51세
	비율	100.0	9.7	6.6	17.6	39.9	20.8	5.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2011.

○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연령을 살펴보면, 50대에 그만둔 경우가 43.0%로 가장 많았고, 평균 이직 연령은 만 53세로 나타났음. 성별로 보면, 남자는 50대에 이직한 비율이 46.8%, 여자는 39.9%로 나타났으며, 평균 이직연령은 남자 만 55세, 여자 만 51세로 나타났음

<표 4-3-15> 주된 일자리 퇴직사유(성별)

(단위 : 천명, %)

구분		가장오래 근무한 일자리 이직자	정년퇴직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업,폐업	가족을 돌보기 위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을 그만 둘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그 외
2009년 전체	인원	6,221	688	511	1,657	897	1,632	423	413
	비율	100.0	11.1	8.2	26.6	14.4	26.2	6.8	6.6
2010년 전체	인원	6,562	736	526	1,756	960	1,692	418	473
	비율	100.0	11.2	8.0	26.8	14.6	25.8	6.4	7.2
2011년 전체	인원	6,763	740	503	1,740	966	1,762	436	615
	비율	100.0	10.9	7.4	25.7	14.3	26.1	6.5	9.1
남	인원	3,065	653	389	921	46	586	206	265
	비율	100.0	21.3	12.7	30.0	1.5	19.1	6.7	8.7
여	인원	3,697	87	114	820	920	1,176	230	350
	비율	100.0	2.4	3.1	22.2	24.9	31.8	6.2	9.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2011.

○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26.1%, 「사업부진, 조업중단, 직장휴업·폐업」 25.7% 순으로 나타나 전년과 순위가 바뀌었음. 남자는 「사업부진, 조업중단, 직장휴업·폐업」, 「정년퇴직」 으로 그만둔 경우가, 여자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가족을 돌보기 위해」 그만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음

<표 4-3-16> 최근 일자리와 이직 전 주된 일자리의 관련성(성별)

(단위 : 천명, %)

구분		지난 1년간 취업경험자	전혀 관련 없음	별로 관련 없음	약간 관련 있음	매우 관련 있음
2009년 전체	인원	5,121	899	547	495	3,180
	비율	100.0	17.6	10.7	9.7	62.1
2010년 전체	인원	5,704	1,139	626	602	3,337
	비율	100.0	20.0	11.0	10.6	58.5
2011년 전체	인원	5,895	1,165	563	596	3,571
	비율	100.0	19.8	9.6	10.1	60.6
남	인원	3,337	663	305	336	2,032
	비율	100.0	19.9	9.2	10.1	60.9
여	인원	2,558	502	258	260	1,539
	비율	100.0	19.6	10.1	10.2	60.2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2011.

○ 지난 1년간 경험한 일자리가 생애 주된 일자리와「매우 관련 있음」은 60.6%로 전년에 비해 2.1%p 늘어났으며, 전혀 관련 없는 경우는 19.8%로 전년대비 0.2% 줄어들어 생애 주된 일자리와 관련성이 높은 일자리를 찾는 비율이 더욱 높아졌음

6) 구직 특성

<표 4-3-17> 지난 1년간 구직경험(성별, 연령별)

(단위 : 천명, %)

구분		55~79세 인구		지난 1년간 구직경험 있음		지난 1년간 구직경험 없음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09년 전체		9,111	100.0	1,155	12.7	7,956	87.3
2010년 전체		9,481	100.0	1,505	15.9	7,976	84.1
2011년 전체		9,953	100.0	1,560	15.7	8,392	84.3
성	남	4,625	100.0	829	17.9	3,796	82.1
	여	5,328	100.0	732	13.7	4,596	86.3
취업 유무	취업자	5,052	100.0	1,014	20.1	4,037	79.9
	미취업자	4,901	100.0	546	11.1	4,355	88.9

주1) : 미취업자는 생애 취업 무경험자도 포함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2011.

○ 55~79세 중「지난 1년간 구직경험 있음」비중은 15.7%로 전년보다 0.2%p 하락함. 성별로 보면, 남자가 17.9%, 여자는 13.7%가 지난 1년간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취업자는 20.1%, 미취업자는 11.1%로 나타남

<표 4-3-18> 구직경로(성별)

(단위 : 천명, %)

구분		구직 경험자	고용 노동부 및 기타공공 직업알선 기관	민간직업 알선기관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사업체 문의, 방문	친구, 친지 소개 부탁	자영업 준비, 기타
2009년 전체	인원	1,155	244	95	115	120	518	62
	비율	100.0	21.2	8.3	9.9	10.4	44.8	5.4
2010년 전체	인원	1,505	488	111	121	164	523	98
	비율	100.0	32.4	7.4	8.0	10.9	34.8	6.5
2011년 전체	인원	1,560	448	116	123	157	610	107
	비율	100.0	28.7	7.4	7.9	10.1	39.1	6.9
남	인원	829	196	62	74	99	327	71
	비율	100.0	23.7	7.5	8.9	11.9	39.4	8.5
여	인원	732	252	53	49	58	284	37
	비율	100.0	34.4	7.3	6.6	8.0	38.8	5.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2011.

○ 지난 1년간 구직경험자의 주된 구직경로를 보면, 「친구, 친지의 소개 부탁(39.1%)」 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노동부 및 기타 공공 직업알선기관(28.7%)」, 「사업체문의, 방문(10.1%)」 순으로 나타났음. 전년에 비해 노동부 및 기타 공공 직업알선기관을 통하여 구직이 이루어진 비율이 3.7%p 감소하였고, 지인에 의한 비율이 4.3%p 증가한 특징을 보임

<표 4-3-19> 미취업자 비구직 사유(연령별)

(단위 : 천명, %)

구분		비구직 미취업자	적당한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가사로 ·가족 반대로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나이가 많아서	기타
2009년 전체	인원	4,231	308	732	1,628	200	1,259	105
	비율	100.0	7.3	17.3	38.5	4.7	29.8	2.5
2010년 전체	인원	4,164	315	749	1,635	211	1,171	83
	비율	100.0	7.6	18.0	39.3	5.1	28.1	2.0
2011년 전체	인원	4,355	314	738	1,771	230	1,178	124
	비율	100.0	7.2	16.9	40.7	5.3	27.1	2.8
남	인원	1,596	172	438	630	131	148	78
	비율	100.0	10.8	27.4	39.5	8.2	9.3	4.9
여	인원	2,760	142	300	1,141	100	1,030	46
	비율	100.0	5.2	10.9	41.3	3.6	37.3	1.7

주1) : 비구직 미취업자에는 생애 취업 무경험자도 포함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2011.

○ 지난 1년간 구직활동 경험이 없는 미취업자의 비구직 사유를 살펴보면, 전년과 마찬가지로 「건강상의 이유로(40.7%)」 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나이가 많아서(27.1%)」,「가사로, 가족반대로(16.9%)」 순임. 특히「건강상의 이유로」는 남·여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가사로, 가족반대로」의 경우 남자는 27.4%, 여자는 10.9%,「나이가 많아서」는 남자는 9.3%, 여자는 37.3%로 나타났음

7) 취업 욕구

<표 4-3-20> 55~79세 향후 취업의지(성별, 연령별)

(단위 : 천명, %)

구분		55~79세 인구	장래근로 원함	일하는 즐거움	생활비 보탬	사회가 필요로 함	건강 유지	무료 해서	기타	장래근로 원하지 않음
2009년 전체	인원	9,111	5,251	1,763	2,974	102	137	265	10	3,860
	비율	100.0	57.6	19.3	32.6	1.1	1.5	2.9	0.1	42.4
2010년 전체	인원	9,481	5,697	1,907	3,235	134	124	279	17	3,784
	비율	100.0	60.1	20.1	34.1	1.4	1.3	2.9	0.2	39.9
2011년 전체	인원	9,953	5,819	2,068	3,192	137	131	277	15	4,134
	비율	100.0	58.5	20.8	32.1	1.4	1.3	2.8	0.1	41.5
남	인원	4,626	3,328	1,319	1,678	113	76	137	4	1,297
	비율	100.0	72.0	28.5	36.3	2.4	1.6	3.0	0.1	26.0
여	인원	5,328	2,491	748	1,514	24	55	139	11	2,837
	비율	100.0	46.8	14.0	28.4	0.5	1.0	2.6	0.2	53.2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2011.

○ 55~79세 인구 중에서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는 58.5%로 전년대비 1.6%p 하락함. 취업동기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돈이 필요해서)」가 32.1%로 가장 많았고,「일하는 즐거움 때문에(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는 20.8%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72.0%)이 여성(46.8%)보다 장래 근로희망 비중이 높았으며, 취업동기는 남·여 모두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돈이 필요해서)」가 가장 많음

<표 4-3-21> 55~79세 향후 취업의지(취업상태별)

(단위 : 천명, %)

구분			55~79세 인구	장래근로 원함	일하는 즐거움	생활비 보탬	사회가 필요로 함	건강 유지	무료 해서	기타	장래근로 원하지 않음
2009년 전체		인원	9,111	5,251	1,763	2,974	102	137	265	10	3,860
		비율	100.0	57.6	19.3	32.6	1.1	1.5	2.9	0.1	42.4
2010년 전체		인원	9,481	5,697	1,907	3,235	134	124	279	17	3,784
		비율	100.0	60.1	20.1	34.1	1.4	1.3	2.9	0.2	39.9
2011년 전체		인원	9,953	5,819	2,068	3,192	137	131	277	15	4,134
		비율	100.0	58.5	20.8	32.1	1.4	1.3	2.8	0.1	41.5
취업상태	취업자	인원	5,052	4,548	1,688	2,494	122	90	142	12	504
		비율	100.0	90.0	33.4	49.4	2.4	1.8	2.8	0.2	10.0
	취업경험 있으나 현재미취업	인원	4,399	1,248	373	686	15	39	132	3	3,150
		비율	100.0	28.4	8.5	15.6	0.3	0.9	3.0	0.1	71.6
	생애동안 취업경험 전혀없음	인원	502	23	7	12	0	2	3	0	479
		비율	100.0	4.6	1.3	2.3	0.0	0.4	0.6	0.0	95.4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2011.

○ 향후 취업의지를 취업상태별로 살펴보면, 장래 근로희망 비율은 취업자가 90.0%로 가장 높았고,「취업경험 있으나 현재 미취업」은 28.4%,「생애 동안 취업경험 전혀 없음」은 4.6%로 나타나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함

8) 희망 직업 특성

<표 4-3-22> 직업 선택 기준(성별)

(단위 : 천명, %)

구분		장래근로 희망자 전체	직업선택기준						
			임금 수준	일의 양과 시간대	일의 내용	출퇴근 거리 등 편리성	계속 근로 가능성	과거 취업경험 연관성	그 외[1]
2009년 전체	인원	5,251	2,027	908	420	186	1,140	464	106
	비율	100.0	38.6	17.3	8.0	3.5	21.7	8.8	2.0
2010년 전체	인원	5,697	1,869	1,141	523	212	1,291	527	135
	비율	100.0	32.8	20.0	9.2	3.7	22.7	9.2	2.4
2011년 전체	인원	5,819	1,584	1,245	672	264	1,300	613	141
	비율	100.0	27.2	21.4	11.6	4.5	22.3	10.5	2.4
남	인원	3,328	919	519	409	113	854	414	101
	비율	100.0	27.6	15.6	12.3	3.4	25.6	12.4	3.0
여	인원	2,491	665	726	264	151	446	199	40
	비율	100.0	26.7	29.2	10.6	6.1	17.9	8.0	1.6

주1) : 사업장 규모, 사회적 지위유지 가능성, 기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2011.

○ 장래 근로희망자들이 일자리 선택 시 「임금수준(27.2%)」, 「계속근로 가능성(22.3%)」, 「일의 양과 시간대(21.4%)」을 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성별로 비교하면, 남자는 「임금수준」과 「계속근로 가능성」을, 여자는 「일의 양과 시간대」와 「임금수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4-3-23> 희망 근로형태(성별)

(단위 : 천명, %)

구분		장래 근로희망자 전체	희망 근로형태	
			전일제	시간제
2009년 전체	인원	5,251	3,740	1,511
	비율	100.0	71.2	28.8
2010년 전체	인원	5,697	4,007	1,689
	비율	100.0	70.3	29.7
2011년 전체	인원	5,819	4,065	1,754
	비율	100.0	69.9	30.1
남	인원	3,328	2,697	630
	비율	100.0	81.1	18.9
여	인원	2,491	1,367	1,124
	비율	100.0	54.9	45.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2011.

○ 55~79세 장래 근로희망자들이 원하는 일자리 형태는 「전일제」 가 69.9%(4,065천명)이며, 「시간제」 는 30.1%(1,754천명)로 나타났음. 「시간제」 희망은 여자(45.1%)가 남자(18.9%)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4-3-24> 희망 급여(성별)

(단위 : 천명, %)

구분		장래근로 희망자 전체	희망 급여				
			월평균 50만원 미만	월평균 50~100만원 미만	월평균 100~150만원 미만	월평균 150~00만원 미만	월평균 300만원 이상
2009년 전체	인원	5,251	600	1,703	1,614	1,017	317
	비율	100.0	11.4	32.4	30.7	19.4	6.0
2010년 전체	인원	5,697	667	1,753	1,729	1,211	338
	비율	100.0	11.7	30.8	30.4	21.3	5.9
2011년 전체	인원	5,819	564	1,588	1,903	1,357	407
	비율	100.0	9.7	27.3	32.7	23.3	7.0
남	인원	3,328	135	542	1,183	1,111	357
	비율	100.0	4.1	16.3	35.5	33.4	10.7
여	인원	2,491	429	1,046	720	247	50
	비율	100.0	17.2	42.0	28.9	9.9	2.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2011.

○ 55~79세 장래 근로희망자가 원하는 임금수준은 「월평균 100~150만원 미만」 32.7%, 「월평균 50~100만원 미만」 27.3% 순으로 나타났음.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월평균 100~150만원 미만(35.5%)」, 여자는 「월평균 50~100만원 미만(42.0%)」이 가장 높게 나타남

4. 경제활동 환경

<표 4-4-1> 55세 이상 고용현황(규모별, 업종별, 2010년 기준)

(단위 : 개소, 명, %)

구분		사업장		상시근로자		고령자[1]		
						고령근로자	고용률	(전년 고용률)
2008년 전체		2,318	100.00	2,666,338	100.00	191,591	7.19	5.79
2009년 전체		2,469	100.00	2,748,116	100.00	203,635	7.41	7.19
2010년 전체		2,584	100.00	3,109,274	100.00	253,611	8.16	7.41
업종별	농림어업	5	0.19	2,731	0.09	614	22.48	6.89
	광업	6	0.23	4,429	0.14	453	10.23	11.33
	제조업	799	30.92	1,095,018	35.22	36,002	3.29	3.26
	전기가스수도업	45	1.74	79,286	2.55	4,672	5.89	7.16
	건설업	103	3.99	146,441	4.71	14,269	9.74	7.92
	도매 및 소매업	146	5.65	188,506	6.06	3,505	1.86	1.45
	숙박 및 음식점업	54	2.09	82,320	2.65	4,035	4.90	4.75
	운수업	139	5.38	125,322	4.03	15,848	12.65	11.38
	통신업	32	1.24	72,770	2.34	1,211	1.66	2.16
	금융 및 보험업	137	5.30	287,487	9.25	5,429	1.89	1.63
	부동산 및 임대업	31	1.20	23,737	0.76	5,780	24.35	34.87
	기타서비스업	1,087	42.07	1,001,227	32.20	161,793	16.16	14.51
규모별	300~499인	1,058	40.94	407,203	13.10	57,144	14.03	12.46
	500~999인	864	33.44	596,442	19.18	81,386	13.65	10.92
	1000인 이상	662	25.62	2,105,629	67.72	115,081	5.47	5.17

주1) : 55세 이상

자료 : 통계청, 고령자 고용 현황 통계, 2011.

○ '10년 300인 이상 사업장에 55세 이상 근로자 수가 253,611명 고용되어 고령자 평균 고용률은 8.16%로 나타났으며, 전년에 비해 49,976명이 증가, 고용률은 0.7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업종별로 부동산및임대업(24.4%), 농림어업(22.5%), 기타서비스업(16.2%), 운수업(12.7%)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규모별로는 300~499인 사업장이 14.0%, 500~999인 사업장이 13.7%, 1,000인 이상 사업장은 5.5%로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고령자 고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1) 기준고용률

<표 4-4-2>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현황(업종별, 2010년 기준)

(단위 : 개소, 명)

구분	기준 고용률	전체			기준고용률 초과			기준고용률 미만		
		사업장수	전체 근로자수	55세 이상 고령자수	사업장수	전체 근로자수	55세 이상 근로자수	사업장수	전체 근로자수	55세 이상 근로자수
2008년 전체	-	2,318	2,666,338	191,591	1,261	1,313,424	179,317	1,057	1,352,914	12,274
2009년 전체	-	2,469	2,748,116	203,635	1,389	1,390,378	190,963	1,080	1,357,738	12,672

구분	기준 고용률	사업장수	고령자고용률	기준고용률미만 사업장수	기준고용률미만비율
2010년 전체	-	2,584	8.16	1,063	41.1
농림어업	3%	5	22.48	1	20
광업	3%	6	10.23	1	16.7
제조업	2%	799	3.29	375	46.9
전기가스 수도업	3%	45	5.89	8	17.8
건설업	3%	103	9.74	11	10.7
도매및 소매업	3%	146	1.86	124	84.9
숙박및 음식점	3%	54	4.9	30	55.6
운수업	6%	139	12.65	27	19.4
통신업	3%	32	1.66	19	59.4
금융및 보험업	3%	137	1.89	109	79.6

구분	기준 고용률	사업장수	고령자고용률	기준고용률미만 사업장수	기준고용률미만비율
부동산 및 임대업	6%	31	24.35	7	22.6
기타 서비스업	3%	1,087	16.16	351	32.3

주1) : 고령자 기준고용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및 시행령 제3조, 제10조에 의거,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 현재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률은 제조업 2%, 운수업·부동산 및 임대업 6%, 기타산업 3% 이상임

고령자고용률 = 55세 이상 근로자 / 상시근로자수 × 100

주2) : 2010년 통계부터 조사양식이 변경됨

자료 : 통계청, 기준고용률 이행현황 통계, 2011.

○ '10년 기준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결과,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비율이 기준 고용률을 초과한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 2,584개 사업장 중 1,521개(58.9%)였으며, 기준고용률 미만인 사업장은 1,063개(41.1%)인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통신업, 숙박 및 음식점 등의 업종에서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4-3> 정년제 운용현황(2010년 기준)

(단위 : 개소, 명, %)

구분		계	정년제도 있음				제도 없음
			단일정년	직급별	직종별	기타	
2008년 전체	사업장수	2,318	1,644	254	209	90	121
	비율	100.0	70.9	10.9	9.0	3.9	5.3
	근로자수	2,666,337	1,981,753	296,338	189,425	119,495	79,296
	비율	100.0	74.3	11.1	7.1	4.6	2.9
2009년 전체	사업장수	2,469	1,779	227	222	99	142
	비율	100.0	72.0	9.2	9.0	4.0	5.8
	근로자수	2,748,116	2,081,415	234,405	216,755	138,916	76,625
	비율	100.0	75.7	8.5	7.9	5.1	2.8
2010년 전체	사업장수	2,584	1,851	239	230	97	167
	비율	100.0	71.6	9.2	8.9	3.8	6.5
	근로자수	3,109,274	2,339,523	241,102	264,498	146,451	117,700
	비율	100.0	75.2	7.8	8.5	4.7	3.8

주1) :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2,584개 사업장 대상 조사 결과임
자료 : 통계청, 업종별규모별 정년유형 통계, 2011.

○ 2010년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2,584개 중 정년제를 운용 중인 사업장은 2,417개소(93.5%)임. 유형별로는 단일정년제 운용 사업장 1,851개소(71.6%), 직급별 정년제 239개소(9.2%), 직종별정년제 230개소(8.9%)이며, 정년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은 167개소(6.5%)로 조사됨

<표 4-4-4> 단일정년제 채택사업장의 평균정년(규모별, 업종별, 2010년 기준)

(단위 : 개소, 명, 세)

구분		단일	전체	55세 이하 정년	평균정년
2008년 전체		사업장수	1,644	660	57.14
		근로자수	1,981,753	761,344	
2009년 전체		사업장수	1,779	714	57.18
		근로자수	2,081,415	836,438	
2010년 전체		사업장수	1,851	679	57.35
		근로자수	2,339,523	789,414	
업종	농림어업	사업장수	1	1	55.00
		근로자수	350	350	
	광업	사업장수	6	0	58.30
		근로자수	4,429	0	
	제조업	사업장수	705	263	56.88
		근로자수	1,020,628	271,517	
	전기가스수도업	사업장수	27	2	58.15
		근로자수	58,558	680	
	건설업	사업장수	73	42	56.51
		근로자수	111,867	71,042	
	도매 및 소매업	사업장수	129	70	56.63
		근로자수	168,095	108,159	
	숙박 및 음식업	사업장수	51	29	56.31
		근로자수	76,350	45,429	

구분		단일	전체	55세 이하 정년	평균정년
업종	운수업	사업장수	86	12	58.74
		근로자수	79,227	6,487	
	통신업	사업장수	22	6	57.23
		근로자수	33,062	2,629	
	금융 및 보험업	사업장수	119	60	56.57
		근로자수	222,036	87,275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장수	21	3	59.33
		근로자수	15,934	3,489	
	기타 서비스업	사업장수	611	191	58.08
		근로자수	548,987	192,357	
규모	300~499인	사업장수	772	278	57.48
		근로자수	297,410	105,912	
	500~999인	사업장수	612	226	57.36
		근로자수	418,858	158,992	
	1,000인 이상	사업장수	467	175	57.10
		근로자수	1,623,255	524,510	

주1) :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2,584개 사업장 중 단일정년제 채택 사업장(1,851개소, 71.6%) 대상 조사 결과임

자료 : 통계청, 단일정년제 채택사업장의 업종별규모별 평균정년 통계, 2011.

○ 단일정년제를 채택하고 있는 1,851개소 중 정년이 55세 이하인 사업장은 679개소로 전체의 3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평균정년은 57.35세로 전년에 비해 0.17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광업,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의 정년이 대체적으로 높았으나 농림어업, 숙박 및 음식업 등의 정년이 상대적으로 낮음. 규모별로는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2)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1)]

<표 4-4-5>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지급실적 추이(연도별)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실적	연인원	266,119	218,541	229,121	259,383	273,945	274,850	217,538
	지원금	41,299	34,321	36,035	40,897	48,062	50,135	43,688

주1) : '11년부터 기존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으로 명칭 변경
자료 : 고용노동부, 「2011년판 고용노동백서」, 2011.

○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은 '10년 기준 217,538명을 대상으로 43,688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지원금은 '05년 급감하였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10년 다시 감소세로 전환됨

<표 4-4-6> 노인 취업알선 인프라별 실적 추이(시 · 도별, 연도별, 2010년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장기취업		단기취업	
		알선	취업	알선	취업	알선	취업
연도별	2004	36,050	27,977	20,966	13,690	15,084	14,287
	2005	71,630	31,592	41,251	21,918	30,379	9,674
	2006	40,710	33,551	29,398	22,916	11,312	10,635
	2007	45,026	35,749	32,823	24,138	12,203	11,611
	2008	45,002	38,197	33,427	27,120	11,575	11,077
	2009	50,117	41,908	38,700	31,746	11,417	10,162
	2010	37,539	28,635	31,990	23,336	5,549	5,299
시 · 도별	서울	4,832	2,133	4,637	1,934	195	199
	부산	1,602	1,252	1,313	972	289	280
	대구	861	661	598	414	263	247
	인천	1,109	811	996	660	113	151
	광주	820	707	609	531	211	176
	대전	829	645	734	571	95	74
	울산	635	542	590	503	45	39
	경기	10,225	6,909	9,232	5,896	993	1,013
	강원	2,167	2,037	1,927	1,817	240	220
	충북	1,625	1,468	1,426	1,217	199	251
	충남	2,170	1,781	1,703	1,308	467	473
	전북	2,024	1,904	1,494	1,419	530	485
	전남	2,840	2,398	2,222	1,949	618	449
	경북	2,880	2,645	2,263	2,090	617	555
	경남	2,591	2,422	1,998	1,811	593	611
	제주	329	320	248	244	81	76

자료 : 보건복지부, 「2011 보건복지통계연보」, 2011.

○ 노인 취업알선 실적은 '10년 기준 알선 37,539명, 취업 28,635명으로 전년에 비해 실적이 알선 12,578명, 취업은 13,273명 감소함. 시·도별로는 경기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도 등의 실적이 높게 나타남

<표 4-4-7> 고령자 고용인프라 취업알선 실적 추이(연도별)

(단위 : 명, %)

구분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2007	2008	2009	2010	2007	2008	2009	2010
구인인원	80,300	84,960	88,163	94,193	468	450	427	2,275
구직인원	77,169	80,991	91,193	102,698	514	628	879	4,430
취업알선	92,457	98,442	120,199	130,845	1,491	1,497	889	7,052
취업	64,124	67,381	72,438	76,559	90	177	179	947

주1) :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 퇴직 중견 전문인력에 대한 재취업 알선·상담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전문인력 활용으로 중소기업 등의 경영애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및 공익단체 등(노동부 지정, 2010년 현재 5개소)

고령자인재은행 : 고령자의 취업능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제공 기회를 넓히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등(노동부 지정, 2010년 전국 52개소)

자료 : 고용노동부, 「2011년판 고용노동백서」, 2011.

○ 고령자 인재은행의 경우 구인인원 및 구직인원이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0년 기준 취업알선실적 130,845명, 취업 76,559명임.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은 구인인원, 구직인원 모두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취업알선실적 7,052명, 취업 947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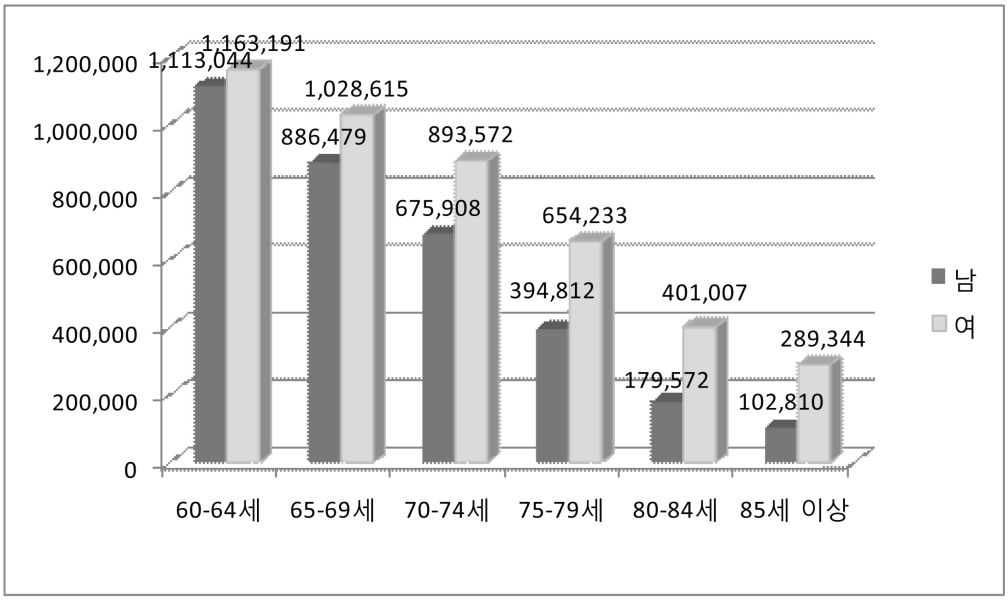
V. 참고 통계

V. 참고 통계

1. "그림으로 보는" 노인일자리 참고 지표

<그림 5-1-1> 2010년 노인 인구 현황 (성별,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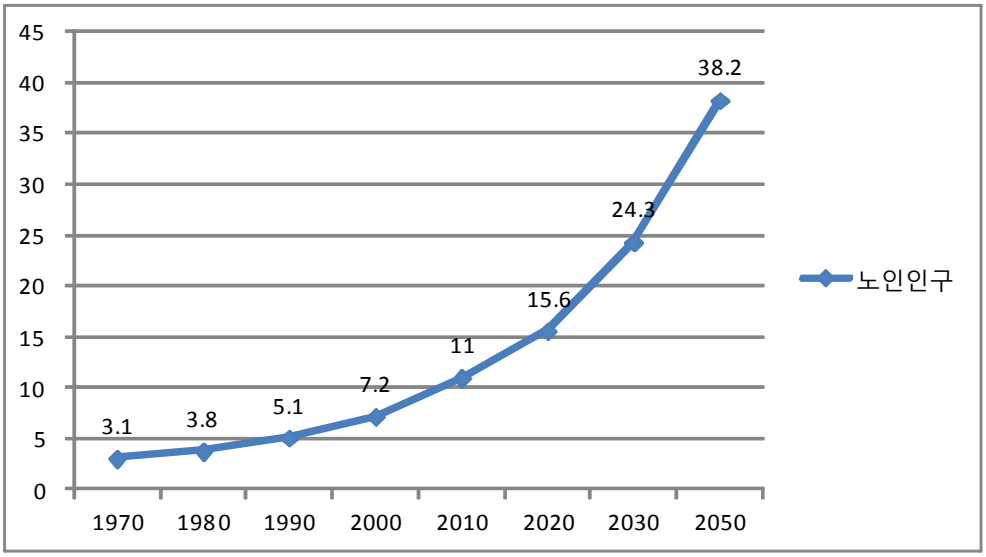
(단위 : 명)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10년 12월 31일 기준.

<그림 5-1-2> 노인인구 추이(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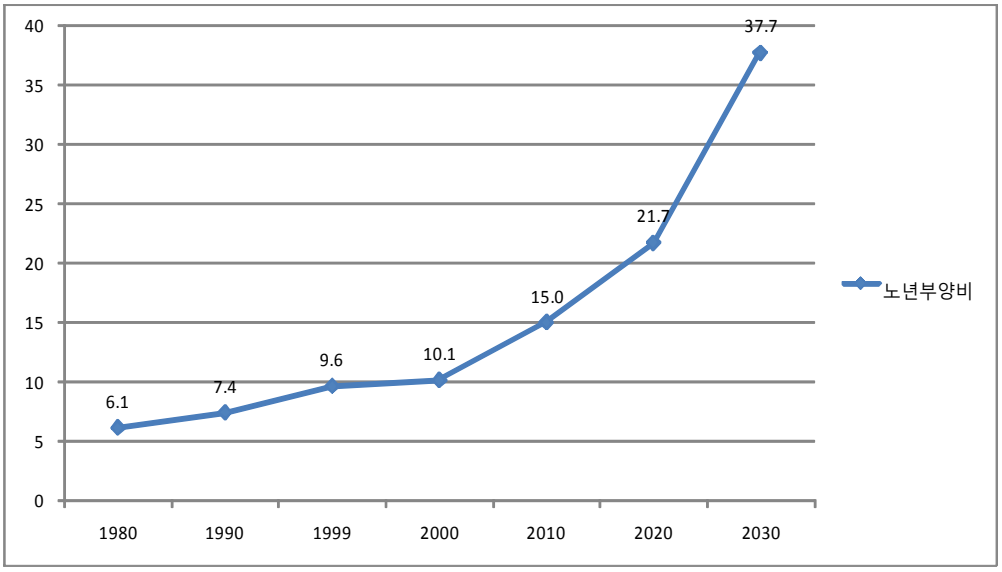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그림 5-1-3> 노년부양비 추이(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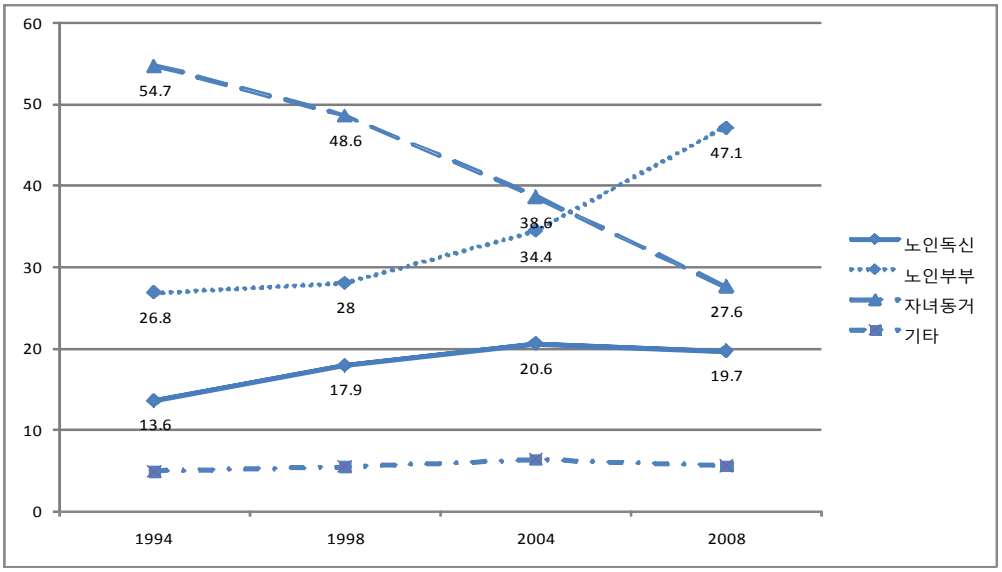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그림 5-1-4> 가구형태 추이(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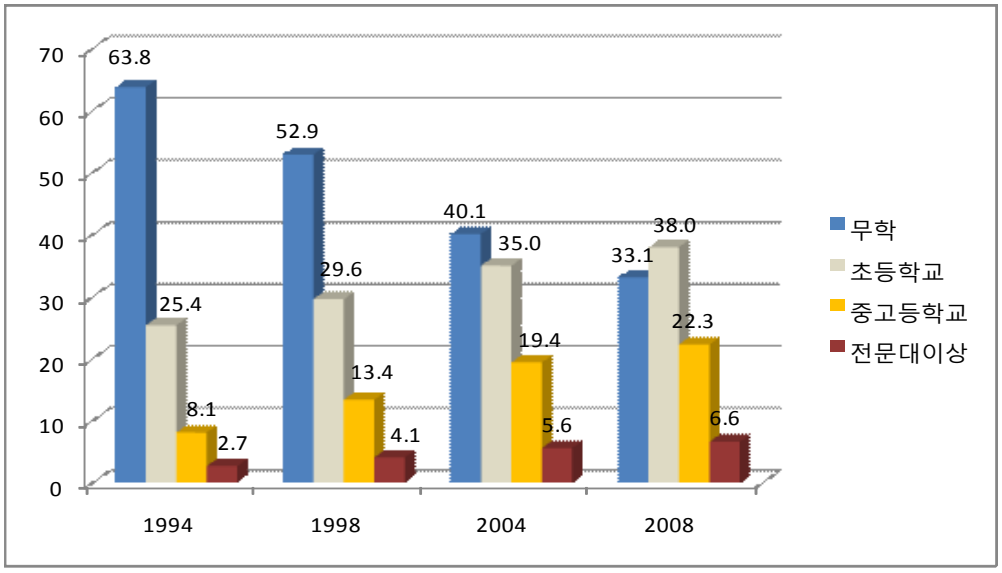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보건복지부·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2009.

<그림 5-1-5> 60세 이상 노인의 교육수준(연도별, 2008년 기준)

(단위 : %)



자료 : 보건복지부·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2009.

2. 주요 고령화 지표

1) 노인인구 현황 및 추이

<표 5-2-1> 노인 인구 현황(성별, 연령별)

(단위 : 명, %)

구분		전체	남		여	
			인구	비율	인구	비율
2009년 전체	60+	7,401,159	3,170,380	42.8	4,230,779	57.2
	65+	5,267,708	2,129,009	40.4	3,138,699	59.6
2010년 전체	60+	7,782,587	3,352,625	43.1	4,429,962	56.9
	65+	5,506,352	2,239,581	40.7	3,266,771	59.3
2011년 전체	60+	8,020,279	3,466,345	43.2	4,553,934	56.8
	65+	5,700,972	2,332,588	40.9	3,368,384	59.1
	60~64세	2,319,307	1,133,757	48.9	1,185,550	51.1
	65~69세	1,897,565	886,144	46.7	1,011,421	53.3
	70~74세	1,640,831	713,163	43.5	927,668	56.5
	75~79세	1,130,345	433,883	38.4	696,462	61.6
	80~84세	618,481	192,497	31.1	425,984	68.9
	85~89세	283,425	77,030	27.2	206,395	72.8
	90~94세	95,014	22,523	23.7	72,491	76.3
	95~99세	23,677	4,696	19.8	18,981	80.2
	100세 이상	11,634	2,652	22.8	8,982	77.2

주1) : 주민등록법 개정('09.10.2)으로 종전의 무단전출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거주불명 등록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2010년 1월부터 거주불명 등록자를 주민등록자와 같이 인구 통계에 포함하여 공표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11년 12월 31일 기준

○ '11년 현재 주민등록 기준 전국 65세 이상 인구는 5,700,972명으로, 전년 대비 194,620명 증가. 남성 노인이 40.9%, 여성 노인이 59.1%를 차지하고 있음. 60~64세 인구는 2,319,307명이며 65세 이상 전체 인구 합의 40.7% 가량에 달함. 고연령으로 갈수록 여성노인 비율이 남성노인의 비율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2-2> 노인 인구 현황(시 · 도별)

(단위 : 명, %)

시 · 도	총인구	65세 이상		60세 이상	
		인구	비율	인구	비율
2009년 전체	49,773,145	5,267,708	10.6	7,401,159	14.9
2010년 전체	50,515,666	5,506,352	10.9	7,782,587	15.4
2011년 전체	50,734,284	5,700,972	11.2	8,020,279	15.8
서울	10,249,679	1,044,750	10.2	1,543,069	15.1
부산	3,550,963	418,043	11.8	623,335	17.6
대구	2,507,271	260,038	10.4	380,433	15.2
인천	2,801,274	250,528	8.9	360,437	12.9
광주	1,463,464	136,411	9.3	197,801	13.5
대전	1,515,603	135,740	9.0	196,937	13.0
울산	1,135,494	80,465	7.1	124,893	11.0
경기	11,937,415	1,072,462	9.0	1,509,529	12.6
강원	1,536,448	233,219	15.2	304,331	19.8
충북	1,562,903	209,473	13.4	278,068	17.8
충남	2,101,284	315,079	15.0	418,687	19.9
전북	1,874,031	291,919	15.6	394,072	21.0
전남	1,914,339	356,349	18.6	467,559	24.4
경북	2,699,195	424,386	15.7	570,722	21.1
경남	3,308,765	399,530	12.1	552,051	16.7
제주	576,156	72,580	12.6	98,355	17.1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11년 12월 31일 기준

○ '11년 현재 주민등록인구 기준 전국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약 11.2%로 전년 대비 0.3%p 증가함.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전남(18.6%), 경북(15.7%), 전북(15.6%)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시·도는 울산(7.1%), 인천(8.9%), 대전 및 경기도(9.0%) 순이었으며 전국 모든 시·도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사회로 접어듬

<표 5-2-3> 2011년 기초지자체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시 · 도별)

(단위 : 개, %)

시 · 도	기초지자체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			
	전체	14% 미만	14% 이상 20% 미만	20% 이상
2009년 전체	232	123	42	67
	100.0	53.0	18.1	28.9
2010년 전체	232	120	45	67
	100.0	51.7	19.4	28.9
2011년 전체	230	118	43	69
	100.0	51.3	18.7	30.0
서울	25	25	0	0
	100	100.0	0.0	0.0
부산	16	11	5	0
	100	68.8	31.3	0.0
대구	8	6	2	0
	100	75.0	25.0	0.0
인천	10	8	1	1
	100	80.0	10.0	10.0
광주	5	4	1	0
	100	80.0	20.0	0.0
대전	5	5	0	0
	100	100.0	0.0	0.0
울산	5	5	0	0
	100	100.0	0.0	0.0
경기	31	27	3	1
	100	87.1	9.7	3.2

시 · 도	기초지자체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			
	전체	14% 미만	14% 이상 20% 미만	20% 이상
강원	18	4	10	4
	100	22.2	55.6	22.2
충북	12	2	5	5
	100	16.7	41.7	41.7
충남	16	3	6	7
	100	18.8	37.5	43.8
전북	14	3	1	10
	100	21.4	7.1	71.4
전남	22	4	1	17
	100	18.2	4.5	77.3
경북	23	4	5	14
	100	17.4	21.7	60.9
경남	18	6	2	10
	100	33.3	11.1	55.6
제주	2	1	1	0
	100	50.0	50.0	0.0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11년 12월 31일 기준

○ 수도권 및 광역시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4% 미만인 기초지자체가 많았으나 전라남·북도, 경상북도 등은 65세 이상의 비율이 20% 이상의 초고령 기초지자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5-2-4> 기초지자체의 65세 이상 인구 추이(순위별, 연도별)

(단위 : %)

구분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상위	2008	전남고흥	30.6	경북의성	30.6	경북군위	30.6	경남의령	29.7	경남남해	29.4
	2009	경북의성	31.4	경북군위	31.4	전남고흥	31.4	경남의령	30.1	경남합천	30.0
	2010	전남고흥	32.0	경북군위	31.8	경북의성	31.7	경남합천	31.2	경북영양	30.4
	2011	전남고흥	32.6	경북군위	32.3	경북의성	32.3	경남합천	31.7	경북영양	30.7
하위	2008	울산동구	4.7	울산북구	5.1	울산남구	5.3	경남창원	5.4	경기오산	5.7
	2009	울산동구	5.1	울산북구	5.2	경남창원	5.6	울산남구	5.6	경기오산	6.0
	2010	울산북구	5.3	울산동구	5.4	울산남구	5.9	경기오산	6.2	경북구미	6.2
	2011	울산북구	5.4	울산동구	5.8	울산남구	6.2	경북구미	6.2	대전유성	6.4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08년~2011년 12월 31일 기준

○ '11년 12월 말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고흥군(32.6%)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경북 군위군, 의성군 등의 순으로 나타남

○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주로 산업생산지역으로 울산의 북구, 동구, 남구 순이며, 이들 세 지역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5위권 내에 계속 포함되었던 지역임

○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각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상, 하위 집단 모두 증가함

2) 노인인구추이

<표 5-2-5> 65세 이상 인구 추이(연도별, 연령별)

(단위 : 천명, %, 여성 100명당)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총인구		32,241	38,124	42,869	47,008	48,138	49,410	51,435	52,160	51,091	48,121	43,959
65세 이상	인구	991	1,456	2,195	3,395	4,367	5,452	8,084	12,691	16,501	17,991	17,622
	구성비	3.1	3.8	5.1	7.2	9.1	11.0	15.7	24.3	32.3	37.4	40.1
	성비	70.0	59.7	59.8	62.0	65.8	69.1	74.5	81.1	82.5	82.8	87.0
70세 이상	인구	563	832	1,294	2,014	2,684	3,606	5,426	8,606	12,383	14,297	14,120
	구성비	1.7	2.2	3.0	4.3	5.6	7.3	10.6	16.5	24.2	29.7	32.1
	성비	68.8	51.0	52.6	53.8	57.1	61.8	67.1	75.0	78.6	78.9	82.0
80세 이상	인구	101	178	302	483	676	961	1,904	2,786	4,815	6,894	7,548
	구성비	0.3	0.5	0.7	1.0	1.4	1.9	3.7	5.3	9.4	14.3	17.2
	성비	50.3	33.6	35.8	39.1	41.4	42.3	48.7	55.7	65.0	67.9	70.2

주1) : 2010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11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시 변경될 수 있음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기대수명 연장 및 저출산 현상의 지속으로 '10년 현재 11.0%(5,452천명)에 달함

○ 80세 이상 인구는 '10년 현재 961천명이며, '60년에는 6.4배인 7,548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65세 이상 고령인구 성비는 '10년 69.1에서 상대적으로 남자의 사망률 개선 속도가 빠르게 진전되어 '20년 74.5, '30년 81.1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표 5-2-6> 65세 이상 인구 추이(시 · 도별, 연도별)

(단위 : 명, %)

시 · 도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전국	991,308	1,456,033	2,195,084	3,394,896	4,366,642	5,356,853	7,701,125	11,810,707
	3.1	3.8	5.1	7.2	9.1	11.0	15.6	24.3
서울	95,538	209,787	368,112	538,670	712,406	941,479	1,470,507	2,102,329
	1.7	2.5	3.5	5.3	7.1	9.4	14.9	22.3
부산	36,308	75,785	132,724	226,864	303,903	390,122	606,992	861,251
	1.8	2.3	3.5	6.1	8.5	11.3	19.0	29.7
대구	26,778	51,101	90,245	148,084	196,419	244,017	364,707	549,081
	2.1	2.7	3.9	5.9	7.8	10.0	16.0	26.1
인천	17,363	36,224	75,641	137,591	178,833	229,184	372,463	674,818
	2.2	2.9	4.0	5.5	6.9	8.6	13.4	23.6
광주	16,913	26,746	46,595	75,934	101,209	128,254	196,567	305,565
	2.6	3.1	4.1	5.5	7.0	8.8	13.7	21.9
대전	12,362	24,421	42,824	75,249	100,860	128,983	208,517	345,811
	2.3	3.0	4.1	5.4	6.9	8.5	13.2	21.5
울산	9,780	15,617	24,999	41,117	56,188	75,658	148,619	288,958
	3.5	2.9	3.1	4.0	5.3	6.9	13.3	25.5
경기	80,319	139,900	265,959	522,810	753,013	995,087	1,609,354	2,951,585
	3.0	3.7	4.5	5.7	7.1	8.6	12.3	21.0
강원	51,745	76,086	104,453	147,885	187,982	221,035	273,439	380,531
	2.7	4.2	6.7	9.8	12.6	15.3	20.4	31.1
충북	55,090	75,728	100,426	142,794	175,466	202,170	257,659	380,509
	3.6	5.2	7.3	9.6	11.8	13.7	17.9	27.6
충남	90,928	120,335	157,789	223,501	267,553	301,837	370,389	524,005
	3.8	5.5	7.9	11.9	13.9	15.4	18.5	26.1
전북	91,427	112,879	151,569	213,060	252,681	279,376	328,423	412,104
	3.7	4.8	7.4	11.1	13.9	16.4	21.5	29.8
전남	146,775	162,953	194,845	272,576	320,751	349,391	378,210	441,349
	4.3	5.5	7.9	13.4	17.3	20.1	24.8	32.8
경북	130,003	172,501	229,750	316,303	374,211	418,495	505,991	669,638
	3.9	5.5	8.4	11.4	14.1	16.1	20.8	29.9
경남	110,719	132,002	178,765	269,261	329,598	384,369	520,106	791,874
	4.0	4.8	6.4	8.9	10.6	12.2	16.6	25.7
제주	19,260	23,968	30,388	43,197	55,569	67,396	89,182	131,299
	5.2	5.1	6.0	8.2	10.3	12.3	16.4	24.6

주1) : 2005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06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시 변경될 수 있음

자료 : 통계청, 「2005~2030 시 · 도별 장래인구추계」, 2007.

○ 시 · 도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고 '30년경 에는 모든 시 · 도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상회할 것이며, 강원도, 전라남도의 경우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3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됨

<표 5-2-7> 65세 이상 노인 가구 추이(연도별)

(단위 : 가구, %)

구분	총가구	65세 이상 노인가구	비율	65세 이상 1인(독거)노인가구	비율
2000	14,507,010	1,733,525	11.9	543,522	3.7
2005	15,971,010	2,432,247	15.2	776,996	4.9
2010	17,152,277	2,982,240	17.4	1,021,008	6.0
2015	18,191,663	3,533,961	19.4	1,250,792	6.9
2020	19,011,815	4,231,578	22.3	1,512,082	8.0
2025	19,593,767	5,338,955	27.2	1,894,260	9.7
2030	19,871,144	6,410,665	32.3	2,338,354	11.8

주1) : 2005년까지는 확정가구이며, 2006년 이후는 다음 가구추계시 변경될 수 있음
자료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07.

○ '10년 현재 총 가구 수 중 65세 이상 노인가구 수는 17.4%(2,982,240가구)를 차지하며, '30년경에는 32.3%(6,410,665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10년 현재 총 가구 수 중 65세 이상 1인(독거)노인가구 수는 6.0%(1,021,008가구)를 차지하며, '30년경에는 11.8%(2,338,354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3)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표 5-2-8>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추이(연도별)

(단위 : %)

구분	1980	1990	1999	2000	2009	2010	2015	2020	2030
노년부양비[1)]	6.1	7.4	9.6	10.1	14.7	15.2	17.9	22.1	38.6
노령화지수[1)]	11.2	20.0	32.3	34.3	63.9	68.4	94.1	119.1	193.0
노인1명당 생산가능인구	16.3	13.5	10.4	9.9	6.8	6.6	5.6	4.5	2.6

주1) :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 / 0~14세 인구) × 100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 = 15~64세 인구 / 65세 이상 인구
주2) : 2010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11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시 변경될 수 있음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인 노년부양비는 '10년 현재 15.2%로, 10년 전('00년) 10.1%에 비해 5.1%p 증가함'10년 노인 1명을 부양하는데 소요되는 생산가능인구는 6.6명임

○ 유소년인구(0~14세)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인 노령화지수는 '10년 현재 68.4%로 10년전('00년) 34.3%에 비해 34.1%p 증가하였으며, '15년에 이르면 노령화지수가 94.1%로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를 초과할 것이며, '30년 경에는 193.0%로 2배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됨

4) 기대수명

<표 5-2-9> 기대수명 추이(성별, 연도별)

(단위 : 세)

연도	전체	남	여	차이(여-남)
1970	61.9	58.7	65.6	6.9
1975	63.8	60.2	67.9	7.7
1980	65.7	61.8	70.0	8.3
1985	68.4	64.4	72.8	8.4
1990	71.3	67.3	75.5	8.2
1995	73.5	69.6	77.4	7.8
2000	76.0	72.3	79.6	7.3
2003	77.4	73.9	80.8	6.9
2005	78.6	75.1	81.9	6.8
2010	80.8	77.2	84.1	6.9
2015	81.7	78.2	85.0	6.8
2020	82.6	79.3	85.7	6.4
2025	83.5	80.4	86.4	6.0
2030	84.3	81.4	87.0	5.5
2040	86.0	83.4	88.2	4.8
2050	87.4	85.1	89.3	4.2
2060	88.6	86.6	90.3	3.7

주1) : 기대수명 :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생존년수로서 '0세의 기대수명'을 말함
주2) : 2010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11년이후는 다음 인구추계시 변경될 수 있음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 '10년 기대수명(0세 기대수명)은 70년 61.9세에서 18.9세 증가한 80.8세이며, 향후 '30년 84.3세, '60년 88.6세로 늘어날 전망임

○ 남녀별 기대수명 차이는 '10년 6.9세로 여자가 높으나 이러한 남녀별 차이는 '30년 5.5세, '60년 3.7세로 점차 줄어들 전망임

<표 5-2-10> 5세별 기대수명 현황 비교(성별, 연령별, 2009년 기준)

(단위 : 세)

연령	2008년 전체	2009년			
		전체	남	여	차이(여-남)
0	80.08	80.55	76.99	83.77	6.78
1	79.38	79.84	76.28	83.05	6.77
5	75.46	75.91	72.35	79.13	6.78
10	70.51	70.96	67.41	74.16	6.75
15	65.55	66.00	62.46	69.20	6.74
20	60.65	61.10	57.57	64.28	6.71
25	55.79	56.24	52.73	59.40	6.67
30	50.95	51.42	47.92	54.55	6.63
35	46.12	46.61	43.13	49.71	6.58
40	41.34	41.84	38.40	44.89	6.49
45	36.65	37.15	33.81	40.09	6.28
50	32.08	32.58	29.36	35.33	5.97
55	27.63	28.13	25.11	30.64	5.53
60	23.32	23.80	20.98	26.02	5.04
65	19.15	19.62	17.05	21.51	4.46
70	15.25	15.70	13.43	17.19	3.76
75	11.75	12.14	10.24	13.22	2.98
80	8.69	9.06	7.55	9.77	2.22
85	6.29	6.59	5.50	6.98	1.48
90	4.56	4.76	4.03	4.95	0.92
95	3.39	3.47	3.02	3.55	0.53
100+	2.63	2.60	2.35	2.64	0.29

주1) : 기대수명 :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생존년수
자료 : 통계청, 「2009년 생명표 작성결과」, 2010.

○ 주민등록인구와 사망신고자료를 통하여 산출한 최근의 기대수명 수치는 위와 같으며, 0세 기준 80.55세, 60세 기준 23.80세, 65세 기준 19.62세로 전년에 비해 약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전연령 기준 여성이 남성보다 기대수명이 긴 것으로 나타남

5) 생산가능인구

<표 5-2-11> 생산가능인구 추이(연도별, 연령별)

(단위 : 천명, %)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전체		17,540	23,717	29,701	33,702	35,983	36,563	32,893	28,873	25,347	21,865
15~24세	인구수	5,838	8,613	8,784	7,697	6,677	5,679	4,494	4,396	3,971	3,201
	구성비	33.3	36.3	29.6	22.8	18.6	15.5	13.7	15.2	15.7	14.6
25~49세	인구수	9,179	11,812	16,148	19,816	20,427	18,650	16,243	13,759	11,454	10,698
	구성비	52.3	49.8	54.4	58.8	56.8	51.0	49.4	47.7	45.2	48.9
50~64세	인구수	2,522	3,292	4,768	6,189	8,878	12,234	12,156	10,718	9,923	7,966
	구성비	14.4	13.9	16.1	18.4	24.7	33.5	37.0	37.1	39.1	36.4

주1) : 2010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11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시 변경될 수 있음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20년 36,563천명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60년에는 21,865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특히 생산가능인구 중 비교적 높은 연령층인 50~64세 인구는 2010년 생산가능인구의 24.7%(8,878천명) 수준에서 2020년 33.5%, '60년 36.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6) 중위연령

<표 5-2-12> 중위연령 추이(성별, 연도별)

(단위 : 세)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전체	18.5	21.8	27.0	31.8	37.9	43.4	48.5	52.6	55.9	57.9
남	17.9	21.2	26.3	30.8	36.8	41.9	46.8	50.7	54.4	56.2
여	19.2	22.4	27.7	32.7	39.0	45.0	50.1	54.7	57.6	59.6
차이	1.3	1.2	1.4	1.9	2.2	3.1	3.3	4.0	3.2	3.4

주1) : 중위연령 : 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
주2) : 2010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11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시 변경될 수 있음
자료 : 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11.

○ '10년 현재 중위연령은 37.9세로 10년 전인 2000년에 비해 6.1세 증가하였으며, 향후 출생아 감소 및 고령화 진전으로 2060년에 57.9세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함

7) 출산율

<표 5-2-13> 합계출산율 및 총출생아수 추이(모 연령별, 연도별)

(단위 : 명, 여성 천명당, 천명)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합계출산율[1)]	4.53	2.83	1.59	1.47	1.08	1.15	1.20	1.28	1.28
20~24세	193.1	135.9	83.2	39.0	17.9	15.9	14.7	14.7	14.7
25~29세	320.6	242.7	169.4	150.6	92.3	85.4	64.6	64.6	64.6
30~34세	205.7	114.0	50.5	84.2	82.4	97.0	99.4	101.4	101.4
35~39세	105.9	40.2	9.6	17.4	19.0	26.6	47.5	54.8	54.8
총 출생아수	1,007	865	659	637	438	434	377	348	226

주1) :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주2) : 2005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06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시 변경될 수 있음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다가 2005년을 기점으로 약간 개선되는 경향을 보임. 2010년 현재 1.15명으로 나타남

8) 사망원인

<표 5-2-14> 사망원인(순위별, 2010년 기준)

(단위 : 인구 10만명당)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전체	65세 이상	전체	65세 이상	전체	65세 이상
1위	사망원인	악성신생물(암)	악성신생물(암)	악성신생물(암)	악성신생물(암)	악성신생물(암)	악성신생물(암)
	사망자수	68,912	43,970	69,780	44,728	72,046	47,193
	사망률	139.5	885.5	140.5	865.4	144.4	882.4
2위	사망원인	뇌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사망자수	27,932	22,858	25,838	21,226	26,517	21,898
	사망률	56.5	460.3	52.0	410.7	53.2	409.4
3위	사망원인	심장 질환	심장 질환	심장 질환	심장 질환	심장 질환	심장 질환
	사망자수	21,429	16,559	22,347	17,192	23,407	18,399
	사망률	43.4	333.5	45.0	332.6	46.9	344.0
4위	사망원인	자살	당뇨병	자살	당뇨병	자살	당뇨병
	사망자수	12,858	7,845	15,413	7,577	15,566	8,187
	사망률	26.0	158.0	31.0	146.6	31.2	153.1
5위	사망원인	당뇨병	만성 하기도 질환	당뇨병	만성 하기도 질환	당뇨병	폐렴
	사망자수	10,234	6,756	9,757	6,430	10,349	6,826
	사망률	20.7	136.1	19.6	124.4	20.7	127.6

주1) : 사망원인별 사망률 = (특정 사망원인에 의한 사망자수 / 연앙인구) x 100,000

자료 : 통계청,「사망원인통계」. 2009~2011. 통계청,「고령자통계」. 2011.

○ '1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은 악성신생물(암)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으로 나타남. 당뇨병과 폐렴도 65세 이상 노인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나타남

3. 노인인구특성

1) 가구형태

<표 5-3-1> 가구형태 추이(연도별)

(단위 : %)

구분	1994	1998	2004	2008
노인독신	13.6	17.9	20.6	19.7
노인부부	26.8	28.0	34.4	47.1
자녀동거	54.7	48.6	38.6	27.6
기타	4.9	5.5	6.4	5.6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1998,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보건복지부·계명대학교산학협력단, 2008.「노인실태조사」
이윤경(2010),「노인 특성의 변화 및 정책 제언 (1994~200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인의 가구형태는 노인만으로 이루어진 노인1인 가구(노인독신)와 노인부부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자녀동거가구는 절반가량 감소함. 노인부부가구의 비율은 26.8%('94년)에서 47.1%('08년)로 약 20.3%p 증가한 반면 자녀동거가구의 비율은 54.7%('94년)에서 27.6%('08년)로 27.1%p 감소함

2) 교육수준

<표 5-3-2> 교육수준 추이(연도별)

(단위 : %)

구분	1994	1998	2004	2008
무학(글자모름)	36.7	29.2	19.2	15.3
무학(글자해독)	27.1	23.7	20.9	17.8
초등학교	25.4	29.6	35.0	38.0
중 · 고등학교	8.1	13.4	19.4	22.3
전문대 이상	2.7	4.1	5.6	6.6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1998,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보건복지부 · 계명대학교산학협력단, 2008.「노인실태조사」
이윤경(2010),「노인 특성의 변화 및 정책 제언 (1994~200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지난 14년간 노인인구 특성의 큰 변화는 교육수준에서 나타남. 특히 무학 노인의 비율이 '94년 65세 이상 노인의 63.8%에서 2008년 33.1%로 절반가량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남. 또한 중·고등 이상의 교육을 받은 노인의 비율은 '94년에 비해 '08년에는 18.1%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3) 건강상태

<표 5-3-3> 주관적 건강상태 추이(연도별)

(단위 : %)

구분	1994	1998	2004	2008
매우 좋다	6.1	5.0	8.3	2.2
약간 좋다	28.7	19.6	25.4	24.0
보통	18.5	16.5	27.8	18.6
약간 나쁘다	28.6	35.3	26.8	42.9
매우 나쁘다	18.1	23.6	11.7	12.4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1994 · 1998.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2004.
보건복지부 · 계명대학교산학협력단, 「노인실태조사」, 2008.
이윤경, 「노인 특성의 변화 및 정책 제언 (1994~200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상태는 지난 14년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동년배 노인에 비해 건강상태가 좋다고 느끼는 비율은 '94년 34.8%인 것에 비해 2008년 26.2%로 약 8.6%p 낮아진 반면, 나쁘다고 느끼는 비율은 46.7%에서 55.3%로 약 8.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5-3-4> 65세 이상 노인의료비 지출 추이(연도별)

(단위 : 억원, %)

연도	전체의료비	노인의료비	구성비
1994	48,048	5,403	11.2
1995	59,775	7,281	12.2
1996	74,237	9,762	13.1
1997	85,727	12,080	14.1
1998	97,039	14,913	15.4
1999	113,797	19,332	17.0
2000	131,410	22,893	17.4
2001	178,195	31,681	17.8
2002	190,606	36,815	19.3
2003	205,336	43,723	21.3
2004	223,559	51,097	22.9
2005	247,968	60,556	24.4
2006	285,580	73,931	25.9
2007	322,590	90,813	28.2
2008	350,366	104,904	29.9
2009	394,296	120,391	30.5
2010	436,570	137,847	31.6

주1) : 노인의료비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심사실적 기준의 요양급여비임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3 건강보험심사평가통계연보」, 2004.
「2004 건강보험심사통계지표」, 2005.
「2005~2007년 건강보험통계지표」, 2008.
「2008~2009년 진료비통계지표」, 2011.

○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지출 금액이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6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왔음. '10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는 137,847억원으로 전체 의료비의 3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4) 생활시간 특성

<표 5-3-5> 1일 시간활용 현황(성별, 행동별, 2009년 기준)

(단위 : 시간, 분)

구분	전체		남		여	
	전체	65세 이상	전체	65세 이상	전체	65세 이상
필수생활시간	10:53	11:34	10:52	11:34	10:53	11:34
수면	7:50	8:20	7:50	8:17	7:50	8:22
식사 및 간식	1:45	1:46	1:47	1:52	1:42	1:43
기타 개인유지[1]	1:18	1:28	1:15	1:25	1:21	1:30
의무생활시간	8:07	5:14	7:56	4:39	8:17	5:39
일(수입노동)	3:15	1:39	4:06	2:14	2:25	1:14
가사노동[2]	1:53	2:19	0:37	1:01	3:07	3:13
학습	1:15	0:00	1:19	-	1:11	0:01
이동	1:44	1:16	1:55	1:23	1:34	1:11
여가생활시간	5:01	7:12	5:12	7:48	4:50	6:47
미디어 이용	2:12	3:38	2:15	4:07	2:09	3:18
TV	1:51	3:27	1:50	3:46	1:53	3:14
컴퓨터[3]	0:13	0:02	0:16	0:04	0:11	0:00
교제	0:46	0:57	0:43	0:50	0:49	1:01
종교·문화·스포츠	0:42	1:11	0:42	1:20	0:42	1:04
스포츠	0:29	0:47	0:34	1:07	0:23	0:33
취미 및 그 외 여가[4]	0:49	0:56	1:02	1:01	0:36	0:52
독서	0:08	0:04	0:07	0:06	0:08	0:02

1. 개인위생, 외모관리, 의료적 건강관리 등
2.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3.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이용(업무, 학습용 제외)
4. 독서, 컴퓨터게임, 놀이, 유흥 등

주1) : 전체는 10세 이상의 국민을 말함

자료 : 통계청,「2009년 생활시간조사」, 2009.

○ 65세 이상 노인은 하루 24시간 중 수면시간 8시간 20분을 포함한 11시간 34분(48.2%)을 필수적인 활동에 사용함

○ 의무생활시간은 5시간 14분으로 전체 연령의 8시간 7분에 비해 짧았으며, 가사노동(여자 3시간 13분, 남자 1시간 1분)이 많은데 기인하여 여자(5시간 39분)가 남자(4시간 39분)보다 1시간 더 많이 사용함

○ 여가시간은 7시간 12분으로 하루 24시간 중 30%를 차지하며, 전체 연령의 5시간 1분에 비해 길게 나타남

4. 베이비붐 세대 현황

<표 5-4-1> 베이비붐 세대 인구 현황(연령별)

(단위 : 명, %)

구분		계	남	여
2009	전체인구	49,182,038	24,664,502	24,517,536
	베이비붐세대인구	7,165,000	3,618,491	3,546,509
	(비율)	14.6	14.7	14.5
2010	전체인구	49,410,366	24,757,776	24,652,590
	베이비붐세대인구	7,141,110	3,600,653	3,540,457
	(비율)	14.5	14.5	14.4
2011	전체인구	49,779,440	24,942,339	24,837,101
	베이비붐세대인구	7,147,528	3,597,371	3,550,157
	(비율)	14.4	14.4	14.3
1963년생(만48세)		856,208	435,737	420,471
1962년생(만49세)		873,017	439,822	433,195
1961년생(만50세)		870,828	437,011	433,817
1960년생(만51세)		848,881	427,043	421,838
1959년생(만52세)		813,794	410,138	403,656
1958년생(만53세)		778,511	392,599	385,912
1957년생(만54세)		742,471	374,114	368,357
1956년생(만55세)		704,309	353,305	351,004
1955년생(만56세)		659,509	327,602	331,907

주1) : 위 자료는 추정인구로, 다음 인구추계시 확정인구로 수치가 변경될 수 있음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 베이비붐 세대는 전후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출생자를 의미하며,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함. '11년 베이비붐 세대 인구는 7,148천명으로 예상(추정치)

<표 5-4-2> 베이비붐세대 경제활동현황 추이(연도별)

(단위 : 천명,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경제활동인구	전체	인구	5,789	5,825	5,816	5,795	5,722	5,620
		비율	79.1	78.7	78.7	78.7	78.6	77.6
	남	인구	3,456	3,470	3,454	3,426	3,404	3,357
		비율	93.8	93.1	93.1	92.6	92.4	91.5
	여	인구	2,333	2,355	2,362	2,369	2,318	2,263
		비율	64.3	64.0	64.3	64.7	64.5	63.2
취업자수	전체		5,661	5,689	5,693	5,685	5,613	5,491
	남		3,376	3,385	3,370	3,348	3,332	3,263
	여		2,285	2,304	2,323	2,337	2,281	2,228
고용률	전체		77.38	76.83	77.08	77.21	77.11	75.79
	남		91.59	90.80	90.81	90.49	90.49	88.98
	여		62.95	62.66	63.21	63.80	63.43	62.25

주1)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2009년도)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자료 : 손유미, 김찬훈.「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창출과 지원」, 201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인구는 '09년 기준 5,620천 명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노인의 경우 3.357천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91.5%로 매우 높게 나타남.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자 수는 '09년 기준으로 5,491천 명으로 인구 수 대비 취업자 수 비율인 고용률은 75.8%로 나타남

<표 5-4-3> 베이비붐세대 취업자수 현황(성별, 종사상지위별, 2009년 기준)

(단위 : 천명, %)

구분	전체		남		여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취업자	5,491	100.0	3,263	59.4	2,228	40.6
임금근로자	3,364	100.0	1,389	41.3	1,827	54.3
상용근로자	1,827	100.0	1,372	75.1	455	24.9
임시근로자	989	100.0	302	30.5	687	69.5
일용근로자	549	100.0	302	55.0	247	45.0
비임금근로자	2,127	100.0	1,287	60.5	840	39.5
고용주	566	100.0	441	77.9	125	22.1
자영자	1,181	100.0	825	69.9	357	30.2
무급가족봉사자	380	100.0	22	5.8	358	94.2

주1)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2009년도)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자료 : 손유미, 김찬훈.「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창출과 지원」, 201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09년 현재 베이비붐 세대 임금근로자 수는 3,364천명으로 취업자 수 대비 임금근로자 비율은 61.3%임. 비임금근로자는 2,127천명으로 취업자 수 대비 38.7%임. 베이비붐 세대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827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 5,491천명 대비 약 33.3%를 차지함. 남자의 경우는 베이비붐 세대의 상용근로자 비율이 아직까지도 높게 나타나 베이비붐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아직 고용상태가 안정되어 있음을 시사함

<표 5-4-4> 베이비붐세대 취업자수 현황(산업별, 성별, 2009년 기준)

(단위 : 천명, %)

구분	전체		남		여	
	취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전체	5,493	100.0	3,263	100.0	2,230	100.0
농업, 임업 및 어업	309	5.6	172	5.3	138	4.2
광업	8	0.1	7	0.2	0	0.0
제조업	966	17.6	617	18.9	349	10.7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6	0.5	24	0.7	2	0.1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15	0.3	14	0.4	1	0.0
건설업	547	10.0	513	15.7	34	1.0
도매 및 소매업	795	14.5	429	13.1	366	11.2
운수업	398	7.3	378	11.6	21	0.6
숙박 및 음식점업	634	11.5	151	4.6	483	14.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92	1.7	74	2.3	17	0.5
금융 및 보험업	151	2.7	79	2.4	72	2.2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9	2.0	63	1.9	46	1.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2	2.0	98	3.0	14	0.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77	3.2	81	2.5	96	2.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48	4.5	187	5.7	62	1.9
교육 서비스업	338	6.2	152	4.7	186	5.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58	2.9	36	1.1	121	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8	1.2	36	1.1	32	1.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97	5.4	150	4.6	147	4.5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42	0.8	1	0.0	41	1.3
국제 및 외국기관	3	0.1	3	0.1	1	0.0

주1)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2009년도)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자료 : 손유미, 김찬훈.「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창출과 지원」, 201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09년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남성은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등의 순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은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의 순으로 나타남

<표 5-4-5> 베이비붐세대 취업자수 현황(성별, 직종별)

(단위 : 천명, %)

구분	전체		남		여	
	취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전체	5,491	100.0	3,263	100.0	2,228	100.0
관리자	220	4.0	202	6.2	18	0.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685	12.5	467	14.3	218	9.8
사무 종사자	514	9.4	366	11.2	148	6.6
서비스 종사자	792	14.4	184	5.6	608	27.3
판매 종사자	753	13.7	346	10.6	407	18.3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282	5.1	161	4.9	121	5.4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679	12.4	552	16.9	127	5.7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798	14.5	687	21.1	110	5.0
단순노무 종사자	769	14.0	298	9.1	472	21.2

주1)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2009년도)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자료 : 손유미, 김찬훈.「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창출과 지원」, 201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베이비붐 세대의 직종별 분포를 보면 남녀 성별 특징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09년 현재 남성의 경우 관리직(6.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4.3%), 사무 종사자(11.2%)의 집단과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16.9%),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21.1%) 집단으로 대별되며, 여성의 경우 서비스 종사자(27.3%), 판매 종사자(18.3%)의 집단과 단순노무 종사자(21.2%)의 집단으로 크게 분포되어 있음

5. 고령화 관련 국제지표

<표 5-5-1> 주요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국가별)

(단위 : 년도, 년수)

구분	도달연도			증가소요년수	
	7%	14%	20%	7% → 14%	14% → 20%
일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독일	1932	1972	2009	40	37
영국	1929	1976	2026	47	50
이탈리아	1927	1988	2006	61	18
미국	1942	2015	2036	73	21
한국	2000	2018	2026	18	8

주1) : 2010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11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시 변경될 수 있음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 한국은 고령인구 비율이 7%(고령화사회)에서 14%(고령사회)로 도달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18년이며, 14%에서 20%(초고령사회)로 도달하는 데는 불과 8년에 불과하여 기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 총인구중 고령인구 구성비가 7% 이상~14% 미만인 사회, 고령사회(aged society) : 14% 이상~20% 미만,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 20% 이상

<표 5-5-2> 주요국의 인구 구조 및 노인인구 비율 추이(국가별, 연도별)

(단위 : %)

국가	2005			2030			2050		
	0~14	15~64	65+	0~14	15~64	65+	0~14	15~64	65+
전세계	28.4	64.4	7.3	22.7	65.7	11.7	19.6	64.1	16.2
한국	19.1	71.6	9.3	12.6	64.2	23.2	11.4	54.4	34.2
일본	13.8	66.3	19.9	10.8	58.4	30.8	11.2	50.9	37.8
미국	20.8	66.8	12.4	18.0	62.3	19.8	17.1	61.4	21.6
이탈리아	14.2	66.2	19.6	12.3	60.9	26.8	13.5	53.3	33.3
프랑스	18.4	65.1	16.5	16.4	59.3	24.3	16.2	56.8	26.9
중국	22.2	70.4	7.6	16.9	67.2	15.9	15.3	61.4	23.3
인도	33.1	62.3	4.6	22.8	68.8	8.4	18.2	68.0	13.7

자료 : UN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8 Revision」, 2009.

○ ‘05년 인구 구조 및 노인인구 비율을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전세계의 65세 이상 비율(7.3%)에 비해 한국(9.3%)은 높은 편이지만 일본(19.9%), 이탈리아(19.6%) 등에 비하면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한국의 유례없는 빠른 고령화 속도에 의해, 한국의 ‘30년 및 ‘50년의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각각 23.2%, 34.2%로 전세계의 65세 이상 비율 평균인 11.7%(‘30년), 16.2%(‘50년)를 각각 2배 가량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

<표 5-5-3> 2009년 UN 주요국 60세 이상 노인 관련 지표

(단위 : 백만명, %, 세)

국가명	노인인구수		노인인구 비율		성비		기대수명 (2005~2010)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	
	2009	2050	2009	2050	60+	80+	남	여	2009	2050
호주	4,070	8,482	19	30	88	62	22	26	5	3
오스트리아	1,912	3,049	23	36	75	45	21	25	4	2
벨기에	2,454	3,717	23	32	78	50	20	25	4	2
캐나다	6,549	14,129	20	32	83	57	22	25	5	2
체코	2,255	3,547	22	34	73	44	18	22	5	2
덴마크	1,258	1,626	23	29	83	53	20	23	4	3
핀란드	1,280	1,736	24	32	77	45	20	25	4	2
프랑스	14,140	22,034	23	33	76	50	22	27	4	2
독일	21,134	27,873	26	40	77	43	20	25	3	2
그리스	2,678	4,113	24	38	82	77	21	23	4	2
헝가리	2,212	2,952	22	33	63	42	16	21	4	2
아이슬란드	53	133	16	33	90	68	22	25	6	2
아일랜드	717	1,894	16	30	86	54	20	24	6	2
이탈리아	15,788	22,310	26	39	76	51	22	26	3	2
일본	37,827	44,914	30	44	79	50	22	28	3	1
한국	7,304	17,983	15	41	74	41	20	25	7	2
룩셈부르크	92	196	19	27	80	46	20	24	5	3
멕시코	9,991	36,428	9	28	87	68	21	23	10	3
네덜란드	3,548	5,445	21	31	83	50	21	24	4	2
뉴질랜드	760	1,562	18	29	86	62	22	25	5	3
노르웨이	1,000	1,761	21	30	82	53	21	25	4	3
폴란드	7,174	12,175	19	38	66	43	17	23	5	2
포르투갈	2,497	3,848	23	38	75	53	20	24	4	2
슬로바키아	933	1,780	17	36	66	43	17	21	6	2

국가명	노인인구수		노인인구 비율		성비		기대수명 (2005~2010)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	
	2009	2050	2009	2050	60+	80+	남	여	2009	2050
스페인	9,982	19,235	22	38	78	55	21	26	4	2
스웨덴	2,283	3,192	25	30	84	56	21	25	4	2
스위스	1,737	2,708	23	32	79	53	22	26	4	2
터키	6,601	23,785	9	24	84	71	17	19	11	3
영국	13,813	20,869	22	29	81	54	20	24	4	3
미국	56,175	110,508	18	27	80	56	21	25	5	3
World Total	737,275	2,008,244	11	22	83	59	18	21	9	4

자료 : UN, 「Population Ageing and Development 2009」, 2010.

○ UN 주요 국가들의 60세 이상 인구 관련 지표를 통해 한국의 상황을 조명해 보면, '09년 현재 노인인구 비율은 15%로 전세계 평균 11%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나, '50년에는 41%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전세계 평균인 22%에 비해 19%p 높은 수치를 보임. 성비는 전세계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남

<표 5-5-4> OECD의 65세 이상 노인 고용 지표(2009년)

(단위 : %)

국가명	노인인구 비율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호주	14.0	10.1	15.1	5.9	9.9	14.8	5.8
오스트리아	17.5	5.4	8.2	3.4	5.4	8.1	3.4
벨기에	17.1	1.7	3.1	0.7	1.7	3.0	0.7
캐나다	13.9	10.5	15.2	6.7	10.1	14.5	6.4
체코	15.1	4.9	7.5	3.2	4.9	7.5	3.2
덴마크	16.2	6.0	9.7	3.1	6.0	9.7	3.1
핀란드	16.9	7.1	10.0	4.7	7.1	10.0	4.7
프랑스	16.6	1.5	2.2	1.0	1.4	2.0	0.9
독일	20.3	4.1	5.9	2.7	4.0	5.8	2.7
그리스	18.7	4.2	6.7	2.2	4.2	6.6	2.2
헝가리	16.5	3.4	5.0	2.3	3.3	5.0	2.2
아이슬란드	11.9	35.0	42.8	27.7	34.1	41.7	27.1
아일랜드	11.7	9.1	14.9	4.3	9.0	14.8	4.3
이탈리아	20.4	3.2	5.8	1.3	3.1	5.7	1.2
일본	22.8	20.1	29.4	13.2	19.5	28.4	12.9
한국	10.7	30.1	41.5	22.2	29.7	40.9	22.1
룩셈부르크	14.5	3.7	6.7	1.4	3.6	6.7	1.3
멕시코	5.8	27.7	43.2	14.5	27.2	42.4	14.4
네덜란드	15.2	5.7	9.0	3.1	5.5	8.5	3.0

국가명	노인인구 비율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뉴질랜드	12.8	16.0	21.1	11.6	15.7	20.8	11.4
노르웨이	14.8	17.4	21.5	13.6	17.2	21.1	13.5
폴란드	13.4	4.7	7.5	3.0	4.7	7.4	3.0
포르투갈	17.2	17.0	22.2	13.3	16.9	22.1	13.2
슬로바키아	12.6	1.5	2.5	0.9	1.5	2.5	0.9
스페인	17.2	2.1	2.9	1.4	2.0	2.8	1.4
스웨덴	18.0	12.7	16.4	9.2	12.5	16.2	8.9
스위스	16.8	10.0	14.5	6.7	9.9	14.4	6.7
터키	6.2	11.9	19.6	5.9	11.7	19.2	5.9
영국	16.3	7.8	10.5	5.6	7.6	10.1	5.5
미국	12.9	17.2	21.9	13.6	16.1	20.5	12.8
OECD 평균	14.6	9.1	12.6	7.3	8.8	12.6	6.9

자료 : OECD, 「OECD Factbook 2009: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2009.
OECD, OECD.StatExtracts(http://stats.oecd.org/Index.aspx)

○ OECD 국가들의 65세 이상 인구의 고용 관련 지표를 통해 한국의 상황을 조명해 보면 '09년 기준 경제활동참가율 30.1%, 고용률 29.7%로 OECD 평균인 9.1%, 8.8%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이는 아이슬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특히 남성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높게 나타남

부 록

1. 수록 주요 통계 소개
2. 시군구별 노인인구 비율(2011.12.31 기준)
3. 2011 노인일자리 정책 주요 특징

부록 1 수록 주요 통계 소개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실태조사(2010년 기준)

목적	① 참여노인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 파악을 통해 노인일자리사업 목표의 적정성 검토, 향후 정책추진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 ②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실태, 참여만족도 및 욕구 파악을 통해 만족도 및 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연혁(주기)	2007년부터 조사 (3년)
조사대상	2010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500명 (사업유형, 지역규모, 시·도 등을 고려한 비비례층화표본 추출, 2010. 7월 기준)
조사내용	① 참여자 일반특성 (교육수준, 가구특성, 건강상태 등) ② 사회경제적 특성 (직업력, 경제상태, 자원봉사활동 등) ③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실태 (참여경로, 활동내용, 근로조건, 교통이용 등) ④ 참여효과 및 욕구 (참여 만족도 및 욕구 등)
조사방법	조사원을 통한 일대일 면접조사
조사기간	2010. 8. 25 ~ 2010. 9. 17
자료담당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교육·연구팀

○ 경제활동인구조사(2011년 기준)

목적	① 국민의 경제활동 즉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 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인 노동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 활용정도를 제공하고 정부의 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연혁(주기)	1957년부터 조사 (매월)
조사대상	표본조사구 약 32,000가구 내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인 자
조사내용	① 인적사항,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의 고용과 관련된 항목
조사방법	면접조사(담당직원이 각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면접과 동시에 자료 입력) 단, 부재가구 등 면접이 불가능한 경우는 전화 또는 자기기입식조사도 일부 허용
조사기간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
자료담당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2011년 기준)

목적	①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복지비용 증가로 고령자의 노동력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음. 노인 취업실태를 조사를 통하여 노인일자리 지원 등 고용 안정정책 및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연혁(주기)	2005년부터 조사 (매년)
조사대상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상 가구원 중 만55 ~ 79세 연령층
조사내용	① 경제활동상태,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취업유경험자)의 근속기간, 이직시기, 이직사유, 지난 1년간 구직/직업훈련/취업경험, 향후 취업의사, 일자리 선택기준, 희망하는 일자리 형태 희망임금수준, 연금수령여부 등
조사방법	면접조사(담당직원이 각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면접과 동시에 자료 입력) 단, 부재가구 등 면접이 불가능한 경우는 전화 또는 자기기입식조사도 일부 허용
조사기간	2011. 5. 22 ~ 5. 28
자료담당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 고령자 고용 현황(2011년 기준)

목적	① 고령자고용동향은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에 활력있는 고령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정책목표 달성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써 기능
연혁(주기)	2006년부터 조사 (매년)
조사대상	고용보험 DB수록 300인 이상 사업체
조사내용	① 업종별, 규모별 고령자 고용 현황 등
조사체계	지방노동관서 고용지원센터 → 사업주 → 지방노동청 → 노동부
조사기간	매년 1.31까지
자료담당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장애인고령자고용과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1년 기준)

목적	①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주를 제외한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고용형태.사회보험 등 각종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사업체 특성 및 인적 속성별로 파악하여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연혁(주기)	2000년부터 (매년)
조사대상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정규 및 비정규근로자 31,663개 표본사업체 및 표본사업체 소속 근로자 약 79만명
조사내용	① 고용형태, 성별, 학력, 출생년월, 사회보험가입여부, 노동조합가입여부, 근무형태, 입사년월, 경력년수, 고용계약기간, 직급명, 직업분류, 자격증보유여부, 정상근로일수, 유일근로일수, 정상실근로시간수, 초과근로시간수, 임금산정기준, 임금기준액, 기본급, 통상수당, 기타수당,초과급여, 전년도 연간특별급여액, 부가급부 적용여부 등
조사체계	조사원 → 지방노동관서 → 노동부
조사기간	2011. 7월 ~ 9월
자료담당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노동시장분석과

○ 노인실태조사(2008년 기준)

목적	① 개별 노인 및 고령화 사회 전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건복지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보건복지욕구와 관련된 폭넓은 지표 개발 ② 국가적 수준 및 지역단위의 보건복지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의 종단적 축적을 통한 효율적인 중장기 노인 정책의 수립에 기여
연혁(주기)	1994년부터 조사 (법개정으로 2008년부터 3년 주기)
조사대상	전국 기준 12,567가구의 만60세 이상 노인개인 15,146명과 동거자녀 2,698명
조사내용	① 노인가구 : 가구원의 일반적 특성과 가구의 경제상태 등 ② 노인개인 : 노인의 일반적 특성 및 거주실태, 가족 및 사회적 관계와 상호지원, 경제상태, 경제활동, 건강 및 보건의료실태, 기능상태 및 간병수발실태, 여가 및 사회활동, 사회복지서비스, 노후생활과 삶의 질, 생활환경 등 ③ 동거자녀 : 동거자녀의 일반적 특성, 부모와의 동거실태,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조사방법	조사원이 직접 조사대상 가구 방문 및 응답대상 가구원 대상 조사 실시 후 응답내용을 조사원이 조사표에 기록하는 타계식 직접 면담조사 원칙
조사기간	2008. 8. 11 ~ 2009. 1. 10
자료담당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노인정책과

○ 장래인구추계(2010년 기준)

목적	①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장·단기 국가발전 계획수립과 향후 인구와 관련된 각종 경제·사회지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 및 학술자료 제공(가공통계)
연혁(주기)	1964년부터 조사 (대체적으로 5년 주기로, 인구주택총조사 다음 년도에 작성)
조사대상	(인구주택총조사)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 대상
조사내용	① (인구주택총조사)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인구변동요인(출생·사망·국제이동)별 실적자료 추이를 반영하여 작성
조사방법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면접 방식, 응답자 기입 방식, 인터넷 방식 병행
조사기간	(인구주택총조사) 2010. 11. 1 ~ 2010. 11. 15
자료담당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부록 2 시군구별 노인인구 비율(2011.12.31 기준)

1. 서울특별시									
시군구명	2010		2011		시군구명	2010		2011	
	65+(명)	비율(%)	65+(명)	비율(%)		65+(명)	비율(%)	65+(명)	비율(%)
강남구	44,095	7.7	47,041	8.3	서대문구	39,221	12.1	39,740	12.6
강동구	39,413	8.0	42,166	8.5	서초구	37,028	8.5	38,933	9.0
강북구	41,641	12.0	43,453	12.6	성동구	31,989	10.3	32,659	10.9
강서구	50,189	8.7	52,152	9.2	성북구	53,113	10.9	55,083	11.4
관악구	50,350	9.5	52,725	10.0	송파구	53,005	7.7	55,316	8.1
광진구	32,034	8.5	33,418	9.0	양천구	38,965	7.8	41,004	8.2
구로구	38,829	9.2	41,450	9.7	영등포구	42,083	10.3	43,215	10.9
금천구	23,675	9.7	24,761	10.2	용산구	30,770	12.6	31,623	12.8
노원구	56,977	9.3	58,584	9.7	은평구	53,650	11.0	56,485	11.4
도봉구	38,185	10.4	39,781	10.9	종로구	22,311	13.1	22,800	13.5
동대문구	42,524	11.6	44,229	12.1	중구	17,315	13.0	17,928	13.5
동작구	42,368	10.5	44,132	11.0	중랑구	41,803	9.8	43,676	10.3
마포구	41,237	10.5	42,396	10.9					
2. 부산광역시									
시군구명	2010		2011		시군구명	2010		2011	
	65+(명)	비율(%)	65+(명)	비율(%)		65+(명)	비율(%)	65+(명)	비율(%)
강서구	8,771	14.0	9,149	14.1	사상구	22,196	8.6	23,085	9.1
금정구	29,228	11.4	30,643	12.0	사하구	34,116	9.5	35,634	10.0
기장군	13,018	12.7	13,895	12.9	서구	19,792	15.7	20,280	16.4
남구	34,788	11.7	36,216	12.3	수영구	22,226	12.5	23,269	13.2
동구	16,896	16.6	17,316	17.2	연제구	23,777	11.2	24,878	11.7
동래구	30,039	10.6	31,448	11.1	영도구	21,857	14.9	22,577	15.8
부산진구	47,487	12.0	49,078	12.4	중구	7,972	16.1	8,213	16.9
북구	27,416	8.8	28,464	9.2	해운대구	42,205	9.9	43,898	10.3
3. 대구광역시									
시군구명	2010		2011		시군구명	2010		2011	
	65+(명)	비율(%)	65+(명)	비율(%)		65+(명)	비율(%)	65+(명)	비율(%)
남구	24,070	14.1	24,664	14.6	북구	39,290	8.7	40,393	9.0
달서구	46,419	7.6	48,206	7.9	서구	25,367	11.3	26,117	11.7
달성군	17,712	9.9	18,192	10.1	수성구	44,991	9.7	46,261	10.0
동구	41,651	12.3	43,363	12.7	중구	12,584	16.2	12,842	16.8

4. 인천광역시									
시군구명	2010		2011		시군구명	2010		2011	
	65+(명)	비율(%)	65+(명)	비율(%)		65+(명)	비율(%)	65+(명)	비율(%)
강화군	16,010	23.9	16,579	24.8	부평구	46,859	8.3	48,651	8.7
계양구	22,563	6.5	23,334	6.8	서구	27,319	6.7	29,798	6.8
남구	44,287	10.4	45,947	11.0	연수구	19,307	6.9	20,535	7.1
남동구	36,405	7.7	39,565	8.0	옹진군	3,620	19.3	3,789	19.4
동구	10,390	13.0	10,772	13.7	중구	11,045	11.9	11,558	12.4
5. 광주광역시									
시군구명	2010		2011		시군구명	2010		2011	
	65+(명)	비율(%)	65+(명)	비율(%)		65+(명)	비율(%)	65+(명)	비율(%)
광산구	24,142	6.6	25,500	6.8	북구	40,870	8.8	41,287	9.3
남구	23,795	11.0	25,056	11.4	서구	25,898	8.5	27,681	8.7
동구	15,752	15.1	16,887	15.9					
6. 대전광역시									
시군구명	2010		2010		시군구명	2010		2010	
	65+(명)	비율(%)	65+(명)	비율(%)		65+(명)	비율(%)	65+(명)	비율(%)
대덕구	17,485	8.4	18,182	8.9	유성구	17,695	6.3	18,694	6.4
동구	28,419	11.4	29,516	11.7	중구	29,948	11.3	31,126	11.7
서구	36,698	7.3	38,222	7.7					
7. 울산광역시									
시군구명	2010		2010		시군구명	2010		2010	
	65+(명)	비율(%)	65+(명)	비율(%)		65+(명)	비율(%)	65+(명)	비율(%)
남구	20,257	5.9	21,289	6.2	울주군	19,941	9.9	20,609	10.1
동구	9,303	5.4	9,922	5.8	중구	17,978	7.7	18,844	8.1
북구	9,321	5.3	9,801	5.4					
8. 경기도									
시군구명	2010		2011		시군구명	2010		2011	
	65+(명)	비율(%)	65+(명)	비율(%)		65+(명)	비율(%)	65+(명)	비율(%)
가평군	11,223	19.1	11,531	19.4	안양시	48,899	7.9	50,490	8.2
고양시	85,466	9.0	89,179	9.3	양주시	19,962	10.1	21,172	10.6
과천시	6,713	9.3	6,968	9.7	양평군	17,725	18.5	18,712	18.8
광명시	28,037	8.2	29,624	8.3	여주군	16,456	15.1	16,873	15.5
광주시	22,354	8.9	24,126	9.1	연천군	8,804	19.5	9,087	20.2
구리시	15,734	8.0	16,375	8.4	오산시	11,270	6.2	12,348	6.4

8. 경기도									
시군구명	2010		2011		시군구명	2010		2011	
	65+(명)	비율(%)	65+(명)	비율(%)		65+(명)	비율(%)	65+(명)	비율(%)
군포시	22,052	7.7	22,966	8.0	용인시	75,642	8.6	81,132	9.1
김포시	24,146	10.1	26,426	10.3	의왕시	12,078	8.2	12,804	8.6
남양주시	51,794	9.2	55,209	9.5	의정부시	41,960	9.7	43,889	10.2
동두천시	12,415	13.0	12,996	13.5	이천시	20,670	10.2	21,434	10.5
부천시	63,796	7.3	66,649	7.6	파주시	38,458	10.8	41,080	10.8
성남시	84,043	8.6	87,528	8.9	평택시	42,381	10.1	43,897	10.3
수원시	74,853	6.9	78,587	7.2	포천시	20,216	12.7	20,891	13.2
시흥시	24,996	6.2	25,647	6.4	하남시	14,244	9.5	14,628	9.9
안산시	45,508	6.4	47,327	6.6	화성시	38,499	7.6	40,139	7.8
안성시	22,062	12.4	22,748	12.6					

9. 강원도									
시군구명	2010		2011		시군구명	2010		2011	
	65+(명)	비율(%)	65+(명)	비율(%)		65+(명)	비율(%)	65+(명)	비율(%)
강릉시	31,250	14.3	32,235	14.8	인제군	5,107	16.0	5,212	16.3
고성군	6,246	20.7	6,446	21.4	정선군	7,901	19.2	7,978	19.9
동해시	12,566	13.2	12,985	13.6	철원군	7,966	16.3	8,143	16.9
삼척시	12,901	17.9	13,085	18.1	춘천시	35,384	13.1	36,774	13.5
속초시	10,677	12.7	11,036	13.2	태백시	7,536	14.8	7,708	15.4
양구군	3,756	17.2	3,802	17.1	평창군	8,470	19.4	8,685	19.9
양양군	5,940	21.3	6,144	22.0	홍천군	13,188	18.9	13,524	19.3
영월군	8,744	21.6	8,890	22.1	화천군	4,406	18.1	4,510	18.1
원주시	34,853	11.1	36,202	11.3	횡성군	9,614	21.7	9,860	22.2

10. 충청북도									
시군구명	2010		2011		시군구명	2010		2011	
	65+(명)	비율(%)	65+(명)	비율(%)		65+(명)	비율(%)	65+(명)	비율(%)
괴산군	10,316	28.0	10,421	27.9	제천시	20,379	14.8	20,851	15.1
단양군	7,035	22.1	7,116	22.5	증평군	4,404	13.1	4,523	13.3
보은군	9,515	27.2	9,625	27.7	진천군	9,585	15.4	9,771	15.5
영동군	12,442	24.6	12,603	24.9	청원군	22,090	14.4	22,688	14.3
옥천군	11,604	21.5	11,718	21.9	청주시	52,672	8.0	54,728	8.3
음성군	14,460	15.9	14,765	16.1	충주시	29,968	14.4	30,664	14.7

11. 충청남도									
시군구명	2010		2011		시군구명	2010		2011	
	65+(명)	비율(%)	65+(명)	비율(%)		65+(명)	비율(%)	65+(명)	비율(%)
계룡시	3,055	7.1	3,151	7.3	서천군	15,839	26.4	16,008	26.9
공주시	22,548	18.0	22,774	18.3	아산시	27,764	10.5	28,890	10.5
금산군	12,936	22.9	13,039	23.3	연기군	13,378	16.3	13,620	16.4
논산시	24,878	19.5	25,060	19.6	예산군	19,140	22.0	19,376	22.4
당진군	22,718	15.7	23,333	15.5	천안시	44,350	8.0	46,056	8.1
보령시	19,354	18.0	19,756	18.6	청양군	9,241	28.4	9,354	29.0
부여군	18,861	25.1	18,938	25.6	태안군	13,633	21.6	13,996	22.3
서산시	22,858	14.2	23,413	14.5	홍성군	18,003	20.4	18,315	20.8
12. 전라북도									
시군구명	2010		2011		시군구명	2010		2011	
	65+(명)	비율(%)	65+(명)	비율(%)		65+(명)	비율(%)	65+(명)	비율(%)
고창군	16,117	26.5	16,248	27.1	완주군	15,414	18.1	15,715	18.6
군산시	33,555	12.3	34,921	12.7	익산시	39,268	12.8	40,520	13.1
김제시	22,332	23.7	22,607	24.3	임실군	8,854	28.9	8,941	29.0
남원시	18,100	20.6	18,451	21.1	장수군	6,338	27.1	6,360	27.4
무주군	6,825	26.7	6,953	26.9	전주시	61,560	9.6	64,549	10.0
부안군	14,788	24.6	14,973	25.3	정읍시	25,096	20.6	25,448	21.1
순창군	8,579	28.4	8,590	29.1	진안군	7,547	27.4	7,643	26.8
13. 전라남도									
시군구명	2010		2011		시군구명	2010		2011	
	65+(명)	비율(%)	65+(명)	비율(%)		65+(명)	비율(%)	65+(명)	비율(%)
강진군	11,107	26.7	11,182	26.9	신안군	12,862	28.3	12,979	29.3
고흥군	23,651	32.0	23,703	32.6	여수시	36,601	12.5	37,830	12.9
곡성군	9,279	29.1	9,371	29.9	영광군	13,319	23.2	13,543	23.8
광양시	13,614	9.4	14,014	9.3	영암군	12,575	20.9	12,726	21.2
구례군	7,511	27.4	7,611	27.8	완도군	14,329	26.4	14,460	26.8
나주시	21,270	23.6	21,288	24.1	장성군	11,302	24.3	11,473	24.8
담양군	11,924	24.9	12,052	25.2	장흥군	11,932	28.1	11,988	28.2
목포시	25,134	10.2	26,270	10.7	진도군	9,605	28.5	9,668	28.9
무안군	14,208	19.1	14,482	19.1	함평군	10,825	29.5	10,878	30.1
보성군	14,415	29.5	14,439	30.1	해남군	20,090	25.2	20,222	25.8
순천시	31,204	11.4	31,827	11.7	화순군	14,143	20.4	14,343	20.8

14. 경상북도									
시군구명	2010		2011		시군구명	2010		2011	
	65+(명)	비율(%)	65+(명)	비율(%)		65+(명)	비율(%)	65+(명)	비율(%)
경산시	27,848	11.6	28,662	11.8	영양군	5,616	30.4	5,602	30.7
경주시	41,129	15.4	41,669	15.7	영주시	21,244	18.6	21,482	18.8
고령군	7,845	22.6	7,953	22.4	영천시	21,735	21.1	21,932	21.1
구미시	25,054	6.2	25,636	6.2	예천군	13,967	29.7	13,927	29.9
군위군	7,870	31.8	7,832	32.3	울릉군	1,907	17.8	1,955	18.2
김천시	24,543	18.0	24,899	18.3	울진군	12,105	23.1	12,173	23.4
문경시	16,958	21.9	17,165	22.4	의성군	18,655	31.7	18,628	32.3
봉화군	9,800	28.4	9,737	28.5	청도군	12,436	28.0	12,501	28.2
상주시	25,075	23.7	25,227	24.1	청송군	7,739	29.0	7,786	29.3
성주군	10,659	23.5	10,729	23.5	칠곡군	13,368	11.2	13,492	11.4
안동시	30,303	18.0	30,728	18.3	포항시	51,026	9.9	52,642	10.2
영덕군	11,976	28.9	12,029	29.5					

15. 경상남도									
시군구명	2010		2011		시군구명	2010		2011	
	65+(명)	비율(%)	65+(명)	비율(%)		65+(명)	비율(%)	65+(명)	비율(%)
거제시	16,475	7.2	17,009	7.3	의령군	9,167	30.4	9,174	30.5
거창군	14,083	22.2	14,221	22.5	진주시	38,938	11.6	40,296	12.0
고성군	13,102	22.9	13,280	23.2	창녕군	15,187	24.6	15,460	24.7
김해시	36,178	7.2	37,543	7.4	창원시	88,196	8.1	91,563	8.4
남해군	14,984	30.4	15,251	30.4	통영시	16,655	11.9	17,048	12.2
밀양시	21,681	19.6	22,018	20.1	하동군	13,364	25.9	13,645	25.3
사천시	17,904	15.7	18,363	16.1	함안군	12,232	18.2	12,369	18.5
산청군	10,432	29.3	10,579	29.7	함양군	11,323	27.5	11,404	27.8
양산시	22,794	8.8	24,253	9.1	합천군	15,953	31.2	16,054	31.7

16. 제주도									
시군구명	2010		2011		시군구명	2010		2011	
	65+(명)	비율(%)	65+(명)	비율(%)		65+(명)	비율(%)	65+(명)	비율(%)
서귀포시	23,990	15.6	24,839	16.2	제주시	45,651	10.9	47,741	11.3

부록 3 2012 노인일자리 정책 주요 특징

1 노인일자리 창출 · 확대

○ 사업량 확대 : 200천개('11) → 220천개('12). 20천개 증가

- 사회공헌형(구. 공공분야) : 176천개('11) → 195천개('12), 19천개 증가
- 시장진입형(구. 민간분야) : 20천개('11) → 20천개('12), 전년 동일
- 시장자립형(구. 자립형) : 4천개('11) → 4.7천개('12), 7백개 증가

2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한 사회문제 완화

○ 사회적 이슈 선점을 통한 전략사업 기획 및 보급

- 사회적 소외 · 관리 필요 대상별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 2012년도 아동대상 :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보육교사도우미

○ 일자리사업의 사회적 유용성 강화

- 단순작업 위주의 획일적 일자리 지양
  - 거리환경지킴이사업 : 지자체별 사전 수요조사, 관리방법 등의 사업계획서 심사 요건 강화 등
- 사업운영 및 관리가 어려운 사업 운영폐지
  - 폐의약품수거사업 운영중단

3 참여노인에 대한 연계서비스 확대

○ 소양교육 시간 내, 어르신 관심분야에 대한 교양교육 필수 수강

- 자살예방, 소득관리, 자원봉사, 성교육의 필수교육 지정
- 분야별 강사풀 구성 및 수행기관 연계 진행

○ 일자리를 통한 지속적인 사회참여 기회제공

- 일자리사업을 통한 자원봉사 참여
  - 일자리사업 참여 도중, 종료 후 관련 사업에 대한 자원봉사 참여

– 어르신 자조모임 및 문화체험 활동지원
  • 사업단별 수행기관을 통한 자조모임 구성, 모임장소지원 등
  • 부대경비 활용을 통한 문화체험(공연 관람, 각종 행사 체험) 지원

4 전달체계 간소화 및 관리 · 평가 강화

○ 시 · 도에 권한과 책임 부여를 통한 신속한 업무처리

– 사회공헌형 신규사업에 대한 최종심사권 시 · 도 부여

– 심사 적기성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

○ 사업운영에 관한 상시 ·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 전산시스템을 통해 필요자료 생성 후, 시 · 도 통보 및 조치사항 확인
  • 일자리 참여 적격여부 확인, 예산집행 현황, 부진사업 등의 정기적 확인 및 관리와 평가의 연동

○ 노인일자리 모니터링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강화

– 노인을 참여자로 하는 노인일자리 모니터링사업단 운영을 통해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체제로서 사업 참여자 욕구를 반영하는 일자리 창출

– 노인일자리 사업현장 외 사업운영 전반, 부진사업단 모니터링 등 내용 및 방안 다양화를 통한 효과성 제고

–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수행기관 피드백 체계 구축

5 시장형 사업 내실화 도모

○ 부진사업 중단기준안 마련 및 서포터즈 연계 컨설팅 실시

– 성과진단을 통해 수익성, 지속가능성 등이 낮은 부진사업에 대한 사업 중단기준안을 마련하여 조기에 부진사업을 중단하고 경쟁력을 갖춘 사업으로 전환 유도

– 부진사업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서포터즈와 연계한 집중 컨설팅 실시

○ **전략아이템사업 육성을 통한 공동브랜드 사업 추진**

- 전략아이템사업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시장경쟁력 강화
- 전략아이템사업에 대해 공동브랜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표준화 실시 및 관리·홍보 효과 극대화로 영세성 극복

○ **노인생산품 판매 경로 확대**

- 기존 온라인 매장 하나하나몰 홍보 강화 및 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 노인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에 대해 노인일자리 평가 시 정부방침 이행지표에 반영하여 판매 촉진

2011 노인일자리 통계동향
발 행 ▮ 2011년 4월
발행인 ▮ 장옥주
발행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37-838 서울시 서초구 방배4동 869-9 성령빌딩 3층 ☎ 02) 6007-9100~9 Fax 02) 6203-6908~9
저 자 ▮ 하세윤, 윤남희, 안희진(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인쇄처 ▮ 삼양애드 T. (02) 3474-3646 F. (02) 3474-3648